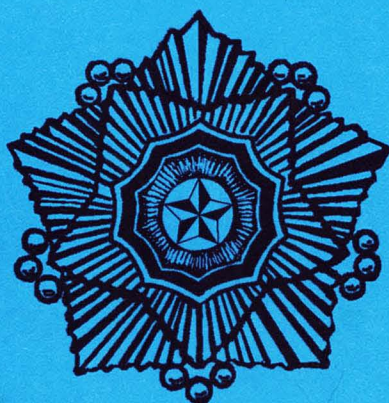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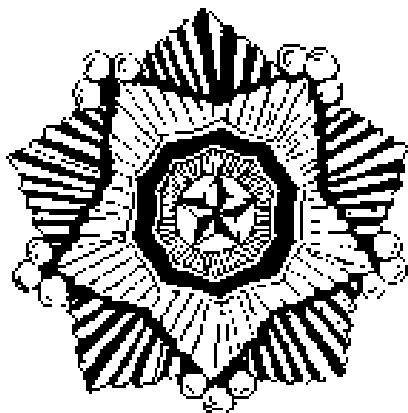
조선문학



1

주체95(201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0(2011)년 제1호

(루계 제759호)

차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새해 문학작품창작에서 더 큰 성과를 안아오자.....	4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6
인민의 소원입니다	6
백두산의 붉은 눈	6
두번 다시 감탄하게 된 사연	7
주체문학의 대강	8
과학의 봄이 왔네	8
눈보라 치는 날에	9
새해의 달력을 펼치며	17
사과향기	18
청춘의 활력을 안고	19
새로운 비약으로	19
나는 새해와 약속한다.....	20

평론의 역할을 높여나가겠다	21
흰눈의 노래	21
래일을 앞당기라!	22
붉은기는 달려야 휘날린다	25
새해를 축하합니다!	26
우리 노래의 가락	27
대안의 발자국	39
비료변은 쌀변	39
평양의 밤	40
시인의 심장이 불타면 시대의 서정은 뜨겁다	41
병사의 모습	44
희천의 달밤	44
그가 가는 길	45
용해공은 바다와 이야기하네	54
분조장 옥이야	54
농민의 마음	55
특색있는 구성으로 느껴지는것은... ..	56
기억력을 높이자면	57
나는 고난의 나날에 아버지로 되었다!	58
나의 앞날	59
하루	68
그대들과 속삭인다	69
미곡벌의 마음	69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70

참된 사랑의 기초는 애국에 있다.....	71
뇌출혈이 흔히 일어나는 시간.....	72
민족수난기 진보적농민형상소설의 예술적특성	73
해방전 녀류작가들의 진보적시문학	75
헤밍웨이와 장편소설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가》	76
로동계급의 계급적각성과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을 반영한 총서 《브리텐의 길》	78
미래의 농장 설계방안들	79
떨어져나간 쪽상	80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새해 문학작품창작에서 더 큰 성과를 안아오자

새해가 밝아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또다시 분발하여 올해의 보람찬 투쟁을 더 힘차게 벌려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전투장들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다.

지난해 주체99(2010)년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며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승리와 영광의 한해였으며 문학부문에서도 새로운 양상과 빛나는 결실이 이룩된 잇을수 없는 한해였다.

특히 지난해 우리는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하고 당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뜻깊은 9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절절한 념원을 담아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였다. 당대표자회를 통하여 우리는 영명하신 전설적위인들을 높이 모신 조선민족의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해갈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경사로운 10월의 대축전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전진하는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기상과 혁명적기개가 힘있게 파시되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속에서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불멸의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고 선군조선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서게 되었다. 현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고 더 큰 승리를 안아올 신심에 넘쳐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우리 문학부문에서도 자랑스런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문학부문에서는 새해공동사설과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전국문학축전을 힘있게 벌린 결과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번영의 시대》를 비롯하여 백두산3대장군을 형상한 특색있는 단편소설들, 장편소설 《북방의 노을》, 《격랑》, 《숙적》 1부, 《래일에 사는 사람들》, 《인생의 열매》, 서사시 《당은 어머니》, 《압록강 2천리》, 서정시 《우리 수령님 축복하신다》, 《추대》, 《우리에겐 당이 있다!》, 가요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당을 노래하노라》 등 우수한 작품들이 창작되어나왔다.

지난해 우리 문학이 거둔 자랑스런 성과들은 작가들이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창작의 지침으로 삼을 때 시대와 군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우수한 작품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낼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올해 작가들앞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친아버이로, 자애로운 스승으로 모시고 선군혁명문학을 창조한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시대의 명작을 최상의 수준에서 더 많이 창작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들은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전사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 다양한 종류의 성과작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돌이켜보면 우리 문학은 언제나 중요한 정치적 사변을 계기로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상이 일어났고 여기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새해에도 우리 작가들이 분발하여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당이 바라고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할 때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고 수령님의 참된 전사, 제자로서의 숭고한 본분을 다해나갈수 있다.

올해 작가들의 명작창작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돌려야 할것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형상한 우수한 작품창작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것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 《총

성의 한길에서》에 속하는 장편소설창작을 더 활발히 진행하면서 창작되는 모든 작품들마다에서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이 더 뜨겁게 울려나오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언제나 군대와 인민들속에 계시는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한 풍모를 잘 그리면서 작품의 진실성과 철학성이 옳게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작품창작은 단편소설을 비롯한 문학의 모든 형식과 형태들에서도 활발히 해나가야 한다. 작가들은 언제나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이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면서 자기들의 있는 지혜와 창작적열정을 아낌없이 다 바쳐나가야 한다.

올해 작가들의 명작창작에서는 백두산혁명강군인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창작에도 깊은 주목을 돌리는것이다.

인민군대는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승리와 인민의 행복을 무적의 총대로 굳건히 담보하고있다.

작가들이 인민군대의 참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해내야 모든 군인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청춘을 빛내이는 총대영웅으로,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사회주의건설장들마다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위훈의 창조자로 더 잘 준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

올해 작가들의 명작창작에서 또한 관심을 돌려야 할것은 주체101(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최후공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생동하게 형상해내는것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인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작품들을 활발히 창작하는것이다.

우리 인민들이 소리치며 잘살 날은 멀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저절로 오는것이 아니다.

경공업과 농업은 의연히 인민생활향상의 주타격전선이다.

작가들은 올해에도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여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원만히 대주기 위해 애쓰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모습을 형상한 작품들을 왕성히 창작해냄으로써 가는 곳마다에서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해야 한다.

작가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알심있게 지어나가는 농업부문과 그 연관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충

정의 마음, 애국의 마음을 형상한 우수한 작품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냄으로써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을 가장 뜻깊게 기념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작가들이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명작을 많이 창작하자면 현실체험을 실속있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작품의 철학적인 종자도 현실에 있고 그것을 꽃피울수 있는 형상의 원천도 현실에 있다. 현실에 나가 보아야 당의 사상과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느낄수 있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신심도 더 굳게 가질수 있다.

작가들이 현실체험을 잘하지 않고서는, 현실에서 충격을 받지 않고서는 언제나 당이 바라는 시대의 명작을 창작해낼수 없다는것이 창작실천이 보여준 좋은 실례이다.

작가들은 현실에 몸을 꼭 잠그고 대중과 한가마밥을 먹고 잠자리를 같이하면서 기름냄새, 땅냄새가 꼭 배이도록 현실체험을 언제나 실속있게 해나가야 한다.

작가들이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명작창작의 근본담보이다.

오늘날 실력전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작가들의 현실체험에 못지 않게 중요한것이다. 실력의 높이이자 충실성의 높이이다. 실력이 없으면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제때에 받아들일수 없고 당의 문예로선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없다.

작가들은 실력이 높아야 계속 앞으로 나갈수 있고 김일성상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과 같이 세월이 멀리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는 명작을 창작해낼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작가들은 잠자는 시간을 내놓고는 공부를 많이 하고 생활체험도 더 많이 쌓아 언제나 생활의 박식가, 창작의 능수로 준비되어야 한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한해 앞둔 그야말로 중요한 해이다. 이 한해 작가들이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굳게 갖추고 분발하며 모든 창작적열정을 깡그리 바쳐가는가 하는데 따라 뜻깊은 주체101(2012)년의 창작성과가 결정되게 된다.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에 무한히 충직한 작가대오가 있는 한 우리에게는 못해낼 일이 없고 명작창작의 성과는 확정적이다.

작가들이여! 당과 운명을 함께 하는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다음해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을 더 뜻깊게 맞이하기 위해 올해 한 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작품창작에서 기여이 명작풍년을 안아오자.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태어난 문학과 예술은 지금 우리 당의 문예전통으로 되고있으며 우리 나라 문학 예술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귀중한 재보로 되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항일혁명시기의 예술은 암흑을 불사르는 등불이라고도 할수 있었으며 사람들을 투쟁의 길로 부르는 북소리라고도 할수 있었다.》

《실로 한편의 훌륭한 시나 연극이나 소설이 천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며 혁명적인 노래는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적의 심장을 꿰뚫을수 있다는것은 항일혁명시기의 문학예술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도달한 진리이다.》

인민의 소원입니다

봄바람 향기로운 봄날
록음이 실레는 여름날
이런 계절 이런 날 구내에 들어서면
이 가슴 뜨겁게 하는
정월의 찬눈 찬바람

두해전 1월 우리 장군님
찬바람 맞으시며
우리 공장에 찾아오시여
우리의 작업모습도
우리가 꾸린 회관도 연혁소개실도 돌아보시며
와보니 떠나고싶지 않다고
또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장군님

장군님 오늘처럼 추운 날
먼길을 걷지 마시라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었건만
오늘은 병사들과 약속한 날이라고
승용차에 오르시던 장군님

정녕 또다시
찬바람 맞으시며
험한 길 떠나셔야 한단 말인가
떠나려던 승용차 발동소리 멎고
차문을 열고 우리들을 들어가라고

손짓하시는 어버이장군님

추운데 어서들 들어가라고
제사공들의 손은 비단결처럼 고와야
비단실이 곱고 비단이 곱다고 손을 흔드실 때
장군님 옷소매로 찬바람 스며들고
차창에 성애가 불리는데

정— 올려와라
대동강에서 얼음장이 갈라터지는 소리에
더더욱 뜨거워지는
제사공 우리의 가슴
정방기의 기대소리는 감격의 흐느낌인듯
얼레에 감기는것은 실인가 눈물인가

우리 눈물로 아뢰이였어라
—장군님 차문을 닫으십시오
장군님 건강하셔야
인민들이 입은 비단옷도 따스합니다
장군님 건강하셔야
조국도 있고 우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민의 소원입니다

김경남

가사

백두산의 붉은 눈

찬란한 백두산의 붉은 노을이
흰눈을 붉게붉게 물들였는가
수령님의 붉은기 영원히 빛내갈
장군님의 뜻이 어려 흰눈도 붉게 타네
아 백두산의 붉은 눈 아 아름다워라
붉은 눈 붉은 눈 백두산의 붉은 눈이어

혁명선열들이 흘린 더운 피
흰눈에 붉게붉게 물들였는가
장군님 따라서 혁명의 먼길 가는
우리 심장 식지 말라 더운 피 붉게 하네

아 백두산의 붉은 눈 아 뜨거워라
붉은 눈 붉은 눈 백두산의 붉은 눈이어

필승의 기상 넘친 선군의 기발
흰눈을 붉게붉게 물들였는가
장군님 령도따라 나가는 내 조국
그 모습 자락에 안고 더욱 붉게 타네
아 백두산의 붉은 눈 아 눈부시여라
붉은 눈 붉은 눈 백두산의 붉은 눈

김경일

두번 다시 감탄하게 된 사연

주체59(1970)년 7월 하순 어느날이었다.

무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만수대에 술단에서 준비한 새 음악작품을 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여러 노래들에서 가사표현을 잘 쓰지 못한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날에 지적하신 작품들중에는 예술영화 《피바다》에서 나오는 노래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도 들어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상의 본질을 명중하는 적절한 어휘를 찾아내는 작가의 노력에 대하여 산더미같은 금광의 버럭속에서 한알의 금싸래기를 얻어내는 일과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 문장을 다듬는데 땀을 쏟는 작가만이 보석처럼 빛을 내는 정확한 단어와 표현을 찾아낼수 있다.》

영화가 나온지도 이제는 1년이 가까운 때인데도 결함이 남아있는 영화의 가사가 있더니?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새롭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초조한 마음안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고있을 때 그이께서는 창작가들을 둘러보시며 노래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의 가사에 《밝은 해님》이라는 표현이 동요식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밝은 해님》, 표현을 음미해보면 그것은 진짜 우리 어린이들이 늘 쓰는 동요적인 색채가 짙은 말이다.

사실 노래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의 노래는 보람찬 투쟁의 길을 걸어가는 어머니의 심정을 딸 갑순이나 아들 을남이의 시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립장에서 부르는 노래이므로 동요적으로 형상하는것은 맞지 않았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생각깊은 음성으로 이 가사에서 《밝은 해님》을 《밝은 해빛》이라고 고치는것이 좋겠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감탄하였다.

그렇다, 해님이 파사로이 비쳐준다는것보다 해빛이 파사로이 비쳐준다는것이 노래의 가사에 얼마나 꼭 들어맞는 표현인가. 이렇게 된다면 노래에서 동요적인 형상도 피하고 가사가 어른들의 립장에서도 의미적으로 완벽하게 형상되는것이였다. 또다시 사색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노래의 가사형상에서 표현된 다른 부족점도 명백히 지적해주시고 바로 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가사에서 《가을바람 부는

언덕 넘어갑니다》도 고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노래의 가사를 다시금 음미해보니 가사의 이 문장은 먼저 운율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것이 사실이였다. 더우기 가사표현에서 《가을바람》, 《부는 언덕》을 떼여 불러야 하는데 가사와 선율이 잘 밀착되지도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노래의 가사에서 《가을바람 부는 언덕》이라는 가사도 《바람부는 산언덕》으로 고쳐놓으니 운율도 순탄해지고 가사와 선율도 잘 밀착되어 노래가 한결 부르기 쉽게 되였다.

철창속에 고생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바람부는 산언덕을 넘어갑니다
아득한 저 산너머
밝은 해빛 파사로이 비쳐줍니다

...

비바람과 눈보라가 우리 앞길 막아도
굴함없이 혁명의 길 걸어갑니다
저 멀리 구름너머
붉은 서광 아름답게 비껴옵니다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새로 고쳐진 노래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를 너도나도 조용히 불러보며 다시금 크게 감탄하게 되였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노래의 가사는 순식간에 명가사로 완성되게 되였다.

돌이켜보면 1년이나 가까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부르면서도 찾아낼수 없었던 가사의 결함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번에 명백히 밝혀주시지 않았는가.

이날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노래가사에 대한 명철한 가르치심에 두번씩이나 크게 감탄하면서 가사창작에서 표현을 정확히 찾아내고 문장의 운율을 잘 살리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그러면서 위대한 장군님을 문학예술의 영재로, 자애로운 스승으로 모시고 사업하는 영예와 긍지를 다시금 가슴뿌듯이 느끼였다.

리학철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의 전진에 앞장서나가며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선도하는 문학예술이라야 생활의 참다운 교과서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 문학예술은 격동하는 시대의 역사적흐름을 힘있게 선도함으로써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시대는 끊임없이 전진하고있으며 문학예술에 대한 인민의 요구도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지고있다.》
《문학예술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시대 인간과 생활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그려내야 한다.》

과학의 봄이 왔네

그날은
새해에도 정초
날중에도 추운 날
우리 장군님 과학원에 오시였네
만면에 봄빛같은 미소를 지으시고

얼마나 오고싶던 곳이였으면
얼마나 만나고싶던 과학자들이였으면
겨울에도 한겨울
바람에도 찬바람 헤치며 오셨을가

장군님을 맞이한 과학원의 일군들
추운 날에 모신것이 가슴 저리여
그이께 진정답아 아뢰이였네
—장군님 오늘은 소한날이 아닙니까...

그 순간 어버이 우리 장군님
심중에 품고계신 열망의 불씨를
그들의 가슴속에 심어주시듯
이렇게 뜨겁게 말씀하시였네
—그래야 과학의 봄이 앞당겨집니다

그제야 알았네 일군들 누구나
봉쇄와 제재, 고립과 압살...
원썬들이 몰아오는 시련의 광풍을
과학의 불길로 녹여버리시려
그이께서 이런 날에 찾아오신것을

그날 그이께서 걸으시였네
엄동의 추위도 다 잊으신듯
과학이 꽃피우는 인민들의 웃음소리
마음속에 흐뭇이 들어보시며
연구실과 실험실들 그리고 합숙으로

그이는 그날 다 만나주시였네
피타는 탐구와 사색속에 고심하던

연구사들 손을 잡고 고무도 해주시고
슬기와 담력도 안겨주시며

과학에도 최고봉
첨단에도 최첨단
미지의 세계에로 이끌어주시던
그날 어버이 우리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불같은 사랑

그것이 봄빛되고 꽃바람 되였는가
인공지구위성 발사, 지하핵시험 성공
CNC 노래속에 쏟아져내리는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폭포에
온 나라에 물결친 대경사의 꽃바다여

세월을 주름잡아
이 땅우에 펼쳐주신 과학의 새봄
반만년 력사국 우리 조선을
과학의 상상봉에 우뚝 올려세운
백두의 선군령장 위대한 장군님

그이는 진정 그이는
과학의 무릉도원 풍성한 열매로
인민들이 세세년년 만복을 누리도록
은혜의 해빛만을 뿌려주시는
영원한 봄의 태양이시여라

아, 우리 장군님
과학원에 몸소 찾아오신 날
그날은 봄날
그이께서 안고오신 과학의 열풍에
대소한의 설한풍도 멀리로 사라져갔네
과학으로 빛나는 우리 강성대국
승리의 봄노을 펼치며 다가왔네

문동식

눈보라 치는 날에

전국농업대회참가자들의 반영자료를 보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안광에는 밝은 빛이 어리였다. 한장한장 반영문을 번지실수록 지난해 농사를 잘 짓느라 봄내, 여름내 땀을 바쳐온 농장원들의 낮익은 얼굴들이 떠오르며 뜨거운 감회와 애뜻한 정이 솟구쳐오르는것을 금할수가 없으시였다.

자리에서 일어서신 그이께서는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푸름푸름 새날이 밝아오고있는 창밖에서는 눈보라가 지동치듯 몰아치고있었다.

기상관측이래 보기도문 강추위를 예보한 1975년 대한의 눈보라였다. 우—우— 하는 세찬 눈보라소리가 들려왔다. 뽀야니 날리는 눈발사이로 자신과 남다른 인연을 맺은, 한생을 당의 농업정책관철에 바쳐가는 유명무명의 농업전사들의 모습이 보이는듯싶으시여 그이께서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고계시였다.

림근상, 안달수…

60을 넘긴 로세대로부터 쌍태머리를 딴 처녀농장원에 이르기까지 포전길에서 만났다 헤어진 땀에 절고 해별에 그들은 그들, 며칠전에도 대회장에서 만나보신 소박하고 정다운 얼굴들이 떠오른다.

세계를 휩쓰는 이상기후의 동란으로 식량위기가 증대되고있는 이때 주체농법으로 농사를 지어 새해에도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겠다는 그들의 신심에 넘친 맹세들이 저 눈보라소리를 누르며 기세차게 들려오는듯싶으시였다. …

자리에 앉으신 수령님께서서는 이미 보신 반영문들을 간중그려놓으시고 다음 반영문을 집어드시였다.

몇해전 어느 봄날 서해지구 농장들을 현지지도하시는 길에 만나보신적이 있는 처녀작업반장의 반영자료였다. 일부 농장들에서 벼모가 누렇게 되고있는 원인에 대해 전문농업부문 일군들도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있던 그때 이것은 농장원들의 과학기술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벼팽상모관박막안의 온도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해별에 덴것이라고 차랑차랑한 목소리로 말씀올리던 처녀작업반장…

논벼의 생육상태와 그 기술적요구에 대하여 그리도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처녀가 못내 대견하시여 농업박사라고 불러주시며 그가 키운 싹하게 자란 벼모를 손에 드신채 작업반장을 곁에 세우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던 일이 감회깊게 떠오른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웅골찬 성격인양 여무진 글줄을 한줄한줄 더듬어 내려가시였다.

농업대회에 참가하여 많은것을 배웠다는것으로부터 시작된 처녀의 글은 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더욱 과학기술적으로 알심있게 짓겠다는 결의를 피력하고있었다.

《…우리 함중리는 산을 끼고있는 농장이기는 하나 화강암지대여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벼팽상모키우기에 필요한 활창대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러던것이 지난해에 우리 이웃농장인 풍연리에서 활창대에 의거한 궁룡식벼팽상모키우기방법이 아니라 활창대를 전혀 쓰지 않는 장판식벼팽상모키우기를 연구 도입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작업반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올해에 벼모를 튼튼하게 키워내겠습니다.》

처녀의 반영문우에 손을 얹으신 수령님께서서는 《장판식이라… 장판식…》하고 나직이 되이시였다.

이에 대해 아직 한번도 들은적은 없었으나 뭔가 새로운것에 대한 지향이 엿보이는것이 기쁘시였다. 《장판식》이라는 문구밑에 빨간줄을 그으시고 《?》를 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원주필뒤등으로 집무탁을 가볍게 두드리시며 그것이 어떤 방법일가 하는 호기심에 잠겨계시였다.

한동안 반영문을 들여다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손을 뻗치시여 송수화기를 드시고 농업위원회(당시)부위원장 리원삼을 찾으시였다.

아직 출근시간전이어서 원삼은 집에 있었다.

원삼이 올리는 아침인사를 다정히 받으신 그이께서는 지난해에 풍연협동농장에서 연구도입했다는 장판식에 대하여 알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알고있습니다, 수령님. 그런데… 주체농법에는 없는 그런 농법입니다.》

《나도 아직은 들어보지 못한 방법이요. 그 장판식을 연구한 동무가 누구요?》

《저… 풍연리 기사장 최용준동무입니다. 그 동무는 지난해에 농업위원회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벼모를 키운것으로 해서 군인민위원회에 불리위가 엄중경고를 받았습시다.》

차마 말씀올리기가 피로운듯 한 리원삼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울려왔다.

두해전 어느 여름날 풍연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의 일이 떠오르시였다. 벼가 이랑이 메게 아지를 치는 간석지벌을 흐뭇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동행하던 관리위원장에게 제기할것이 있으면 다 하라고 이르시였다.

《수령님, 특별히 애로되는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것은…》

관리위원장은 잠시 머뭇거리며 수령님의 안색을 살폈다.

《왜 그러오? 어서 말하오.》

수령님께서는 부드럽게 재촉하시였다.

《저... 농장의 기술사업을 지도할 줄고 능력있는 기사장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의아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시였다.

이 동무가 혹시 사람타발을 하는건 아닌가 하는 미심쩍은 느낌이 드시였던것이다.

《이 농장엔 송진수동무가 있지 않습니까?》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에서 싸우고있는 대학생들을 부를 때 소환되어와서 대학공부를 한 기사장의 이름을 부르시였다.

《송진수동무는 기술도 있고 농사경험도 풍부하지만 전쟁시기 다친 부상자리가 도저 7년째 거의 병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담당지도원(당시)으로 사업하는 최용준동무가 지금 대리기사장까지 겸임하고있습니다.》

《경영위원회 담당지도원이 대리기사장을 한다. ...》

혼자소리로 뇌이시던 그이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여 아무 말씀도 않으시고 들길을 거니시였다.

《그 동무의 이름이 최용준이라고 했지. 혹시 그 동무가 원산농업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소?》

수령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소담하게 잎새를 펼친 논두렁콩잎을 매만지시다가 농업위원회 부위원장 리원삼을 돌아보시며 물으시였다.

《예, 그렇습니다. 수령님, 최용준동무와 그의 안해 오경숙동무는 그 대학 졸업생들중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에 속합니다.》

한때 원산농업대학 학부장으로 일했고 농업과 학원에서 기술실무사업도 한바 있는 리원삼이 한발 나서며 말씀드렸다. 그러는 그의 목소리에는 자기가 키운 제자에 대한 은근한 긍지가 흐르고 있었다.

《글쎄 어쩐지 그의 이름이 무척 귀에 익다 했소. 내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부위원장동무가 나에게 최용준동무에 대해 이야기했던것 같은데... 한 십여년전에 말이요.》

원삼은 놀랐다.

퍼그나 오래전에, 그것도 현지도도로 바뀐 수령님을 모시고 일하면서 여담삼아 말씀드린적이 있는 이야기를 잊지 않으시고 되살려내시는 그의 남다른 기억력에 탄복을 금치 못하면서 원삼은 두손을 맞잡고 선채 정중히 말씀올렸다.

《수령님, 어느 해인가 황해남도의 농장들을 현지도도하실 때 학교에서 돌아오는 농촌아이들의 학습장을 펼쳐보시고나서...》

《옳소, 그날 한 더벅머리소년은 4점을 맞은 자기의 학습장을 내앞에 내놓게 되는것이 부끄러워 목덜미를 붉히며 몹시도 주뭇거렸었지. 점수를 주는데서 야박한 자기 담임선생님을 원망하면서 말이요, 허허.》

수령님께서는 그때 일을 추억하시며 소탈하게 웃으시였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달리는 차안에서 원삼에게 동무도 성격을 봐서는 제자들의 점수를 주는데서 펍 린색했을것 같다고 통조로 말씀하시였다.

《예... 전 방금 제자의 논문을 잘 평가하지 못한것으로 해서 저의 교육자적능력을 두고 고민을 하던 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제자의 논문평가를 두고 한 고민이라... 거 무슨 이야기인지 나도 흥미가 동하누만.》

수령님께서 관심을 가지시자 원삼은 아직 누구에게도 들춰보인적이 없는 두해전에 있는 일을 말씀올리기 시작하였다.

...

황혼이 깃드는 저녁무렵이었다.

교원들의 강의안을 검토하고있던 원삼은 대학학장이 학부실에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원삼은 서둘러 자리를 권했다.

손을 들어 사양하고난 학장은 조용히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턱에 놓인 화분에서는 진주꽃이 한창 꽃망울을 머금고있었다.

미구하여 피여날 꽃망울을 이윽도록 지켜보던 학장이 돌아서며 말했다.

《학부장선생, 우리 머리도 쉬웁겠지 기숙사나 좀 돌아보지 않겠소?》

매없이 기숙사를 돌아보며 대학생들의 생활상 문제에 대하여 료해하군 하는 학장에 대해 잘알고있는 원삼은 강의안을 덮고나서 그를 따라나섰다.

호실들을 돌아보던 그들은 열띤 목소리들이 울려나오는 어느 한 호실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어떤 학술적문제를 두고 론쟁이 한창인듯싶었다.

원삼에게 빙그레 미소를 지어보이고난 학장이 호실문을 열었다. 놀라움과 반가움이 엇갈린 학생들의 눈길이 두 스승에게로 향해졌다.

정갈하게 꾸려진 호실을 둘러보던 학장이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강의에서 잘 납득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게로구만?》 학생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보며 서있었다.

동안이 지나자 손에 책을 쥐고있던 체대군인출신의 한 학생이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사실은 용준동무의 논문을 놓고...》

호기심이 비낀 학장의 눈길이 논문에서 떴었다.

《논문이라... 어디 나도 한번 보면 안될가?》

논문을 받아든 학장은 어서들 앉으라고 이르고는 그들과 마주앉았다.

자기가 이미 검토하고 신통하게 여기지 않았던 용준의 논문인지라 원삼은 책장을 번지는 학장의

손을 흥심없이 지켜보았다.

학장의 얼굴에 흥분이 실리기 시작하였다.

《그래,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있소?》

론문을 덮으며 학장이 용준에게 물었다.

용준은 고개를 수그린채 아무 대답도 못했다.

《저, 서로 의견들이 상반되다나니...》

학장선생이 결론해주기를 바라는듯 한 학생이 용준을 대신하여 말했다.

《그렇지요.》

그의 말을 긍정해주며 학장은 머리를 끄덕였다.

《이 분야는 생물학계가 아직 미지의 세계로 여기고있는것이니까... 그렇다고 먼 앞날의 일은 아니요. 용준동무의 논문에서 내가 좋게 본것은 종자가 새롭고 착상이 기발하다는것이요.》

학장은 용준에게 신심을 주듯 그를 바라보며 계속했다.

《그렇다면 명백한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세계 유전자학은 이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는거요. 이론문은 유전자학에서 하나의 발견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우리의 현실정에 맞게 적응시키려고 한 싹이라고 할수 있소. 한마디로 우리 식 유전자학의 땀이요.》

학생들은 용준에게 축하의 눈길을 보냈다.

원삼은 놀랐다.

《수고했습니다, 학부장선생.》

학장은 원삼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그럴수록 원삼의 마음은 무거웠다.

...

《수령님, 솔직히 전 그때 놀라움보다도 수치감이 앞서는것을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대학교원이 그것도 명색이 학부장이라는 사람이 생물학의 첨단을 따라앞서려는 새싹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이게 어디... 그때부터 전 새로운 사고방식과 관점을 가지고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원삼동문 행복한 사람이요. 그런 제자를 키웠으니 말이요.》

그이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였다.

사심없이 솔직하면서도 과학학에 무한히 성실한 한 일군을 더 깊이 알게 된것이 무엇보다 기쁘시였다.

수령님께서 한껏 푸르러가는 들판을 바라보시며 관현악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의 흥겨운 선율을 입속으로 불러보시였다.

이런 교육자, 이런 일군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키워낸 제자들이 농업전선을 떠메고나갈 후비들로 준비되고있는 한 우리 농촌의 래일은 더 풍요할것이라는 믿음이 더욱 굳어지시였던것이다.

...

《그런데 대학시절부터 수재로 이름난 동무가 어떻게 여기에 와있습니까?》

그이께서는 농업과학연구기관에서도 결코 욕심을 안냈을리 없으리라는 생각이 드시여 원삼에게 물으시였다.

《배치담화때 본인이 하도 농장에 나가겠다고 하기에 대학에서도 어찌지 못한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요구했던 말이지. ...》

김일성동지께서는 저녁노을이 곱게 물드는 서해기슭의 간석지벌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며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이윽고 고개를 돌리신 그이께서는 관리위원장과 리원삼부위원장에게 정겨운 시선을 보내시며 말씀하시였다.

《그럼 최용준동무를 기사장으로 임명합시다. 그들부부가 다 농업대학졸업생들이라니 더욱 좋구만. 한번 힘을 합쳐 본때있게 내밀어보라고 하시오. 그리고 송진수동무는 내가 데려다가 치료하도록 하겠소.》

이렇게 되어 기사장으로 정식 사업을 시작한지 2년도 안되는 사이에, 그것도 첫째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독단과 고집을 부려 엄중경고까지 받았다는것이 어쩐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드시였다.

궁룡식...

장판식...

어스듯비슷하면서도 뭔가 극에서 극으로 오가는 듯싶은 여섯글자를 두고 여기에는 필경 깊은사연이 있을것이라고 여겨지시였다. 직접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싶으시였다. 자기의 창조물로 해서 엄중경고까지 받은 한 기술일군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여서 그이께서는 오래도록 말씀을 얹으시였다.

《수령님, 저희들은 장판식이 좋습니다.》하는 기사장의 목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려오는듯싶으시여 그이께서는 책임서기를 부르시였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어있던가?》

《오전에는 농업문제와 관련하여 도당책임비서들의 협의회를 지도하시고 오후에는...》

책임서기로부터 일정안을 들으시던 수령님께서 한손을 가볍게 드시며 그의 말을 막으시였다.

《협의회는 현지에서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조직사업을 하도록 하자고 책임서기에게 이르신 수령님께서 손에 쥐고계시던 송수화기를 귀전에 올리시였다.

《원삼동무도 오늘 협의회에 참가하게 되어있으니 나와 함께 풍연리에 먼저 다녀오도록 하시오. 우리가 가면서 들리도록 할테니 여기로 오느라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집에서 기다리도록 하오.》

그이께서는 래일부터 예정되였던 서해안지구 협동농장들에 대한 현지지도일정을 하루 당겨 떠나기로 결심하시였다.

《아니 그럼, 이제 현지지도를 떠나시렵니까?》

책임서기의 놀라운 물음에 그이께서는 웃으시었다.

《수령님, 지금은 대한입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세차고 날씨는 평하 20도를 오르내리고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현지도도를 떠나시는것은...》

《거 서두가 지내 요란하구만. 이보오, 책임서기동무. 난 50여년에 가까운 혁명투쟁의 나날에 언제나 눈보라를 벗어나며 살아왔소. 이젠 이 눈보라가 나의 동지가 되었소. 해마다 이런 눈보라가 지속되면 우리 농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오? 눈보라가 농사군을 도와주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들 하오. 그건 이 혹한속에서 땅속에 잠복해있던 온갖 벌레들이 다 얼어죽으니 새해의 풍년은 문제 없다는 말이요. 자, 어서 떠납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외투를 입으시며 재촉하시었다.

...

승용차는 하얀 눈가루를 날리며 수도의 중심거리를 달리고있었다.

거리는 온통 백설이다. 대극장의 지붕우에도, 거리의 가로수밑에도 바람에 흩날린 흰눈들이 쌓여있었다.

출근길에 오른 수도시민들의 모습이 차창밖으로 언뜻언뜻 지나간다.

생의 보람과 활기에 넘쳐있는 모습들이다. 생활에 대한 랑만이 가득차있고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된 인민들이었다.

문득 며칠전에 록화물로 보신 세계식량위기와 관련한 화면들이 떠올랐다. 심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경제의 파동... 어디서나 아우성이 터져오르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있다.

나지막한 둔덕을 넘어서자 리원삼부위원장의 집이 한눈에 내려다보이였다.

수령님께서는 털모자를 쓰고 문밖에서 서성대고있는 그를 차창으로 내다보시며 빙그레 웃으시었다. 차는 대문앞에서 멎어섰다.

《어서 타오.》

그이께서는 차문을 열어주시며 다정히 이르시었다.

《눈보라도 세찬데 집안에서 기다릴걸 그랬소. 어련히 찾지 않으리. ...》

수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리원삼은 얼어든 입술을 어물거릴뿐 미처 대답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와했다.

그이께서는 운전사에게 온풍기의 온도를 좀 펴구라고 이르시었다. 찬곳에 있다가 더운곳에 갑자기 들어오면 몸에 쥐가 일면서 육체적으로 이상이 생길수 있다는 녀려가 담긴 말씀이었다. 더구나 랑이 심해 추위를 잘 타는 부위원장이다보니 더 근심이 되시었다.

승용차는 속도를 내어 대동도로를 타고 달렸다.

《농업대회참가자들의 반영문들을 보았소. 풍년협동농장에서 지난해에 도입했다는 장관식벼랑상모키우기방법이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어 이렇게 떠났소.》

수령님께서 무엇때문에 이런 곳은 날씨에 먼길을 떠나셨는지를 안 리원삼은 놀랐다. 그는 최용준의 고집을 속으로 꾸짖으며 말씀드렸다.

《그것은 활창대를 쓰지 않고 벼모를 키우는 방법인데 주체농법의 요구에 완전히 위반되는것입니다.》

《위반되는 방법이라... 제판에는 그래도 무슨 궁냥이 있어 도입하려 한것이 아닐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지금껏 차를 타고 오며 거듭해오시던 생각을 터놓지 않으시고 웃으시며 물으시었다. 수령님의 깊은 심정을 미처 깨닫지 못한 리원삼은 지난해 있던 일의 자초지종을 말씀올리기 시작했다.

《제가 지난해 초봄 평안남도에 지도차로 내려갔다가 풍연리에서 궁룡식이 아닌 자기식대로 벼락종을 하고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현지에 내려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그가 저의 수제자이고 수령님의 남다른 은덕을 입은 일군으로서 과오를 범하는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3작업반 랑상모판에 나가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니 활창대를 아예 준비하지조차 않았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안된다고, 주체농법제장에 어디 동무처럼 랑상모를 하라는 요강이 있는가고 물었으나 그는 끝까지자기는 주체농법의 요구를 지킨다는것이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지부동이였습니다. 전 모관들을 다 돌아보고나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궁룡식으로 하라고 이르고는 회의가 있어 평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문 저의 충고를 듣지 않고 끝까지 장관식을 주장하고 내밀었다는게 아니겠습니까.

후날 다시 현지에 내려가 확인하고난 저는 군인민위원회 일군에게 더는 고집을 부리지 못하게 자체반성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니 옛 스승이 엄중경고를 주게 한셈이구만.》

웃으며 말씀하시는 수령님의 음성은 부드러우시였으나 그속에는 준절한것이 배여있었다.

그이의 안색에서 모든것을 느낀 리원삼은 잠시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몇해전까지만도 농업부문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적성과들이 제기되면 선참으로 그 도입을 주장하던 리원삼이 왜 최용준이 연구도입하는 장관식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는지 리해가 되지 않으시여 그들이 진그의 갱뽕한 얼굴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않으시었다. 그들사이에 생긴 그 어떤 풀기 어려운 인간적인 알룩이 이들의 사업에 작용한것은 아닐가?...

하지만 그이께서는 인차 그것을 부정해버리시었다.

리원삼의 됃됨이를 봐서는 결코 그런 웅졸한 인간이 아니라는 믿음이 강하게 드시었던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리 식의 농사방법—주체농법에 대한 일군들의 견해와 관점, 자세와 립장에서부터 산생된 문제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는 결론을 지으시었다.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눈보라속에 잠긴 농촌전경에 이윽도록 눈길을 주고계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원삼에게로 시선을 옮기시며 《부위원장동문 〈성냥팍속의 비밀〉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소?》 하시며 화제를 돌리시었다.

《못 들었습니다.》

깊은 사색속에 잠겨계시던 수령님께서 동화제 목같은 이야기를 꺼내시자 리원삼은 천진한 아이처럼 얼굴에 활기를 띠었다.

《못 들었다? 그럼 그리 오래전 일은 아니지만 내 이야기를 하나 하지요.》

김일성동지께서는 믿음에 넘치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두해전 가을 평안남도의 농장들을 현지지도하시는 길에 풍연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을 부르시여 담화를 나누실 때 들으신 최용준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었다.

...

최용준은 오경숙과 함께 6개월간 졸업론문을 준비하기 위해 실습을 떠났다.

정월을 앞둔 한겨울이라 날씨는 맵찔다. 게다가 그들은 북방의 농촌으로 갈 파업을 받은지라 더욱 추운 지방으로 가게되었다. 대학기간 론쟁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는 나날에 서로의 우정이 두터워진 그들을 태우고 온밤 달린 렬차는 새벽녘에 어느 한 철도분기역에 그들을 내려놓았다. 작별의 시각이 가까와오고있었다. 그들은 여기서 또 서로 다른 렬차를 타고 헤어져야 하는 서운함을 순간이나마 메꾸어보려고 북방의 사나운 눈보라에 앙상한 아지를 애처롭게 떠는 백양나무우듬지를 바라보면서 역전공원을 거닐었다. 한동안 그렇게 걷던 경숙이 문득 용준에게 성냥이 있는가고 물었다. 추위에 입술이 파랗게 언 처녀가 모닥불이라도 피우려는줄로 안 용준은 성냥을 가지고있지 못한것이 마치 제 불찰이길라도 한듯 미안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추운데 기다림칸에 들어가 잠간 기다려줘요.》

경숙은 용준이 어디 가는가고 미처 묻기도 전에 그에게 대학생가방을 맡기고 눈보라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시간은 눈보라처럼 빠르게도 지나갔다. 역안내원이 경숙이 타고가야 할 렬차의 개찰을 알렸다. 그래도 경숙은 나타나지 않았다. 용준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렬차가 역구내에 들어설 무렵에야 경숙은 숨이 턱에 닿아 뛰어왔다.

예쁘장하게 생긴 얼굴은 빨강게 상기되고 살짝

뒤로 제쳐진 앞머리같은 하얗게 성에가 붙어왔는데도 렬차시간에 늦지 않은것이 다행인듯 처녀는 미소를 지었다.

《어델 그렇게 갔다오오, 기차가 들어왔는데. ...》

용준은 기다림에 지쳐 화를 냈다.

그러나 처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미안해요.》하고 생긋 웃고는 자기의 가방을 집어들었다. 표직는 곳으로 빠져나가며 처녀는 용준의 손에 성냥팍을 쥐여주었다. 그리고는 다시한번 생긋 미소를 보내고나서 발그레 언손을 저으며 떠나는 렬차의 승강대에 올라섰다. ...

그날 밤 어느 한 산간역에서 내린 용준은 인적 없는 골짜기에서 길을 잃었다. 온종일 몰아친 눈보라가 길을 메워버렸던것이다. 하는수없이 한지에서 밤을 지새우게 된 그는 그제야 경숙이 헤어지면서 쥐여준 성냥생각을 하였다. 삭정이를 주어 무드기 쌓아놓고난 그는 성냥갑을 열었다. 성냥가치를 반나마 덜어낸 갑속엔 돈 10원이 들어있었다. 모닥불을 지피고나서 처녀의 애뜻한 마음이 배인 돈을 매만지는 그의 가슴속에는 사랑의 감정이 우등불처럼 뜨겁게 솟구쳐오르고있었다. 이튿날 현지에 도착한 그는 자기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다.

《경숙동무는 나에게 성냥과 함께 돈 10원을 주고 갔다. 한가치의 성냥은 비록 작지만 이것이 불씨가 되면 눈보라치는 광야에서도 우등불을 피워 올릴수 있을것이며 그러면 어둠을 밀어내고 추위도 이겨내게 하는 큰 힘을 가진다는 의미를 나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였을수도 있다. 그렇다면 10원의 돈은?... 남자의 주머니에는 항상 필요할 때 돈이 있어야 한다는 뜻일까? 심분 그럴수도 있다. ... 아니, 이걸 내식대로 생각해보자. 만일 10원을 전으로 계산한다면 천전이 된다. 열의 백배...

엄청난 수자다. 열은 비록 보잘것없이 느껴지지만 천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이제부터 나에게 생기는 돈을 전단위로 계산하는 습관을 붙여보자. 이것이 오늘의 천리마시대가 요구하는 절약과 증산의 예비일수도 있다. 이제부터 이런 관점을 가지고 탐구에 탐구를 거듭해보자. ...》

...

《어떻소? 원삼동무!》

수령님께서서는 이야기에 심취된 원삼을 바라보시었다.

정에 겨운 아버이의 시선이였다.

《수령님!》

리원삼은 뭐라고 말씀올려야 할지 알수 없었다.

그는 수령님께서 최용준에 대해 자기보다 더 자상히 알고계시며 또 그를 믿고계신다는것을 의식했다. 그와 함께 농업위원회 부위원장인 이 리

원삼에 대한 지적의 말씀처럼 생각되어 고개를 들수 없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원삼이 생각을 더듬고있는데 그이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계속 울리었다.

《이게 바로 내가 알고있는 최용준동무요. 모든 것을 자기식으로 창조적으로 대하고 사고하고 실천에 구현하는데 습관된 사람... 허, 벌써 풍연리에 다 왔구만.》

수령님을 모신 승용차는 나지막한 둔덕을 끼고 작업반들이 전개되어있는 풍연벌에 들어섰다.

수령님께서 언제인가 간석지벌에 널려있는 작업반들을 모두 소재지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빠르게 출퇴근하도록 하시여 지금은 오붓한 농촌마을의 전경을 펼쳐놓은 풍연벌.

그러나 길가에도 벌에도 농장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리원삼은 퇴비반출로력조차 조직하지 않은 최용준을 속으로 꾸짖으며 수령님의 안색을 살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감회가 새로우신듯 넓은 간석지벌을 바라보시며 미소하고계시었다.

차는 곧추 관리위원회마당에 들어섰다.

리원삼이 차에서 내려 관리위원회건물로 급히 다가갔다. 접수실에 앉아있던 처녀가 쌍꺼풀진 눈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관리위원장과 리당비서는 군당협의회에 참가하고 기사장은 대정마을로 기술학습지도를 나갔다고 상냥하게 알려준다.

수령님께서는 논벌 한가운데 있는 이 벌에 내려오실 때마다 들리곤 하시던 9작업반쪽으로 차를 몰도록 하시었다. 거기서 대정마을까지는 그리 멀지 않다. 논보라는 바다바람의 기승으로 더욱 세웠다. 기사장을 데리러 대정마을로 원삼을 떠나 보내신 그이께서는 가까이에 있는 탈곡장으로 향하시었다. 아직 유일하게 이동하지 않은 9작업반 탈곡장이었다. 중년의 작업반장이 영농계획을 세우다가 그이를 맞이했다.

논보라가 사나운 날에 벌에 찾아오신 수령님을 만나뵙게 된 그는 몸둘바를 몰라하면서 일기관계로 농장원들은 집집에 모여 새끼꼬기를 비롯한 새해농사준비를 하고있다고 말씀드렸다.

《강냉이국수에 김치국물이랑 부어두고 추렴이랑 하겠구만.》

김일성동지께서는 유쾌한 이야기들이 터져오르는 정경을 그려보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수령님을 모시고 홀로 작업반의 여러 곳을 보여드리게 된 작업반장은 굳어졌던 마음을 풀며 따라웃었다.

《그래, 지난해 농사는 어떻게 됐소?》

그이께서는 다정하게 물으시었다.

작업반장이 자랑스레 올리는 대답을 들으시며 수령님께서는 두해전에 오셨을 때 관리위원장이 말하던 정보당 알곡수확량을 되새겨보시었다.

《그러니 두해전에 비해 수확량이 더 높아졌다는것이겠소?》

그것을 다시 확인해보시려는듯 그이께서는 반장의 해별에 그슬은 얼굴을 자애넘치신 안광으로 바라보시며 물으시었다.

《그렇습니다. 수령님!》

작업반장은 만족해하시는 수령님을 뵈옵게 되자 기쁨을 금치 못하며 힘있게 대답올렸다.

리원삼이 최용준기사장이 도착했다고 수령님께 보고드린것은 이때였다.

《날씨도 찬데 우리 방에 들어가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지요.》

그이께서는 눈보라를 삼키며 허둥지둥 달려오는 최용준을 보시자 반색을 지으시며 작업반장을 이끄시고 마주 걸어가시었다.

꿈결에도 그리던 어버이수령님을 눈덮인 들에서 만나뵙게 된 영광과 황송함에 최용준은 어떻게 인사를 올려야 할지 몰라 허둥거리다가 허리 굽혀 인사를 드렸다.

너무도 급작스레 이루어진 행복으로 해서 걱정을 금치 못해하는 그의 인사를 다정히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자애에 넘치신 시선으로 최용준을 여겨보시었다. 후리후리한 키에 잘 어울리는 길쭉한 얼굴이며 수북한 장미를 돋구어주며 영민하게 빛나는 두눈동자, 우뚝 선 코날이며 두툼한 입술을 하나하나 뜯어보시던 그이께서는 최용준이 탐구심이 보통 강하지 않고 배짱 또한 여간내기가 아니라는 느낌이 드시었다. 허름한 채색작업복을 입은채 북두갈구리같은 마디진 손을 맞잡고 송구스럽게 서있는 그를 수령님께서는 대견스럽게 바라보시었다. 큰 농장의 기사장이라는 틀진 모습보다도 볼내, 여름내 간석지벌을 जु다하게 누비며 이 땅에 생을 묻어가는 수수한 농사군이라는 인상이 첫 순간에 드는것이 무엇보다 기쁘시었다.

《기사장동무가 듬직한게 좋구만, 응. ... 자, 논보라가 세찬데 어서 들어가지요.》

수령님께서는 최용준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리시며 방안으로 떠미시었다.

마음이 훈훈해지시었다.

최용준과 마주앉으신 수령님께서는 그의 건강이며 안해와 자식들에 대해 먼저 물으시고나서 영농준비정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최용준의 목소리가 차츰 활기를 띠기 시작하자 김일성동지께서는 푸른색뚜껑을 한 수첩을 꺼내 놓으며 말씀하시었다.

《기사장동무, 난 오늘 동무에게 배우자고 왔소.》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한 최용준은 고개를 들어 수령님의 자애에 넘친 모습을 조심히 우려했다.

《그래, 장관식이 그렇게 좋다면서...》

김일성 동지께서는 최용준이 주밋거릴것 같아서 두를 이렇게 때시였다.

최용준은 묻는듯 한 눈길로 리원삼부위원장을 쳐다보았다.

자기의 주장을 고집했다가 군인민위원회에 불리위가 엄중경고까지 받은 장판식인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알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차츰 누가 뭐라든 우리 농장의 실정에 알맞는 재배방법이니 자초지종을 아뢰이고 가르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결심이 서기 시작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주저주저하는 용준을 보기가 딱하신듯 리원삼을 돌아보며 말씀하시였다.

《혹시 옛 스승이 미리 침을 놓은건 아니요? ... 자, 어서 이야기해보오. 군인민위원회에 가셔도 자기 주장을 꺾지 않았는데 내앞에서는 왜 그러오. 어려워말고 동무앞에 국가주석이 아니라 농사군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말하오. 내 동무에게 배우러 왔다지 않소.》

부드럽게 재촉하시는 수령님의 인자하신 음성에 힘을 얻은 용준은 용기를 내어 그이를 우러렀다.

《수령님, 우리 농장에서는 장판식이 좋습니다.》

확신에 차넘치는 용준의 목소리에 그이께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무엇이 어떻게 좋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오.》

그이의 고무를 받은 용준은 간석지팽상모재배관리에서 궁룡식의 결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풍연벌은 간석지논이기때문에 벼씨앗을 뿌리고 나서 다짐굴대로 진압까지 하면 모세관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땅속온도가 높아지면서 수분을 빨아올리게 된다. 이때 땅속의 소금기가 물에 용해되면서 소금물이 올라온다. 여기서 높은 내부온도에 의한 수증현상으로 물은 증기로 변해오르고 소금기만 남아 씨앗의 표면에 소금버캐를 씌우면서 발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함께 가운데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모가 헛자라며키만 크고 옆테두리 모는 수증기에 의해 올라온 물방울들이 박막을 타고내리면서 랭기를 주기때문에 키가 크지 못한다. 균일하고 튼튼하게 자라지 못한 이 벼모들이 수확고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리고 수많은 로력을 낭비하게 되어있다. 궁룡식으로 팽상모를 하면 활창대를 설치하고 한 파장당 수십메터의 새끼줄을 늘어야 하기때문에 모락종이 적어도 두달이상은 걸려야 한다.

용준의 설명을 들으시던 그이께서는 《그러면

안되오. 벼락종은 한달이내로 끝내야 용근소출을 낼수 있소.》하시며 리원삼을 돌아보시였다.

《수령님, 그런데 산을 끼고있지 못한 우리 농장에는 활창대원천이 없습니다. 그러니 학교운동장만 한 크기의 창고에 채워넣어도 모자라는 그 많은 활창대를 마련하고 새끼줄까지 장만하자면 겨울철 영농준비기간을 다 바쳐도 솔직히 숨이 찹니다.》

그이께서는 이해가 되시여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수첩에 긴요한 과학적수치들을 적어넣으시던 수령님께서는 《그럼 장판식의 우점은 뭐요?》하시며 확연히 안겨는 오시였으나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시여 물으시였다.

최용준은 손가락을 꼽아가며 말씀드렸다.

《우선 온도조절이 정상이기때문에 수증기현상이 높지 않으며 물방울이 있어도 그 자리에 떨어지므로 소금기를 세척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다나니 벼모들이하나같이 싹하고 튼튼하며 균일하게 자랍니다. 이것이 벌에 나가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지를 많이 치기때문에 수확고를 높일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활창대와 새끼줄의 설치시간이 없기때문에 한달이면 씨뿌리기를 넉넉히 끝낼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 다음으로 우월한 점은 바다바람이 센 우리 농장의 실정에 맞다는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궁룡식으로 한 박막은 센 바람에 의한 피해를 입는 면적이 크기때문에 그해 벼모도 미처 키워내지 못하고 찢어지지만 장판식으로 사용하는 박막은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때문에 3~4년동안은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영학적으로 본 장판식의 우월점들입니다.》

수령님께서는 풍연리에 자주 나오시여 이 농장의 한해 영농준비에 필요한 박막의 총면적수를 알고계시였다. 그것을 길이로만 펼쳐놓아도 막대한 거리에 달하는것이였다. 그것을 여러해동안 더리용할수 있다니 얼마나 실리에 맞는 일인가. ...

《그래, 지난해에 종자는 부족하지 않았소?》

그이께서는 지난해 가을 여러 협동농장들에 나가시여 농민들과 담화를 나누시다가 발견하신 종자소요량에 대해 생각하시면서 물으시였다.

최용준은 자기를 대신해서 전국농사경협총화회의에 참가하여 안해가 주장했던 종자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다.

《수령님, 지금 새 품종의 종자들이 많이 육종되고있는 조건에서 천알당무게가 현재 품종의 무게보다 적은 지난 시기 품종을 기준으로 종자를 공급하면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보

장할수 없습니다.》

《옳은 말이요. 우리 농업과학자들이 해마다 새 품종들을 육종해내는데 맞게 채종공급체계도 현실성있게 따라세워야 하오.》

수령님께서는 눈가에 심한 자책과 회오의 감정이 비껴있는 리원삼을 보시며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안팎에는 너그러운 미소가 흘렀다.

《기사장동무, 지난해에 거름은 얼마나 냈소?》

관심이 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다시금 물으시고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간석지논일수록 질 좋은 거름을 더 많이 내야 하오. 식물도 여러가지 미량원소들을 충분히 흡수해야 줄기도 튼튼해지고 웅근소출을 낼수 있거든. 그래 지금 미량원 소비료공장을 세우고있는데 앞으로 여기도 많이 보내줄거요. 그렇다고 우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안되오.》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모든 농사일을 기계화, 화학화하기 위한 대책적인 문제들에 대해 물으시기도 하시고 강조도 하신 그이께서는 다시 지난해 농사작황으로 화제를 돌리시였다.

《지난해 장관식으로 벼모를 키워 알곡소출이 얼마나 났소?》

김일성동지께서는 방금전에 작업반장의 이야기를 통해 알고계시였지만 기술일군의 정확한 수자를 다시한번 듣고싶으시였다.

《장관식은 벼령상모판씨뿌리기를 한달내에 끝낼수 있게 하기때문에 모를 제철에 옮기고 잘 익은 벼를 거두어들일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일부 작업반들에서 신심을 가지지 못하고 좌왕우왕하다나니 벼락종을 제 기일에 하지 못하여 예상했던 수확고를 따라서지 못했지만 자기의 기술적요구만 철저히 지키면 정보당 평균 18프로이상은 더 증수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닐박막의 리용가치를 늘어 나라의 귀중한 자금을 절약한것도 증수로 치게 되면...》

(18프로란 말이지, 18프로... 거기에다 수많은 자금을 절약한다. ...)

최용준이 과학적으로 계산한 수자들을 련거해 나갈수록 그이께서는 온몸에 흥분이 실리는것을 금할수가 없으시였다. 그럴수록 이렇듯 선진적인 농사방법을 우리 일군들이 왜 굳이 인정하려고조차 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리해가 되지 않으시였다.

주체농법에 그 방법이 없다고?... 그럼 우리 일군들은 우리 당의 주체농법이 어떻게 창시되었는지 모른단 말인가. 주체사상이란 문자 그대로 인민대중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

나간다는 사상인데 농사의 직접적담당자인 농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존중하지 않는 농법이 누구를 위해 필요한것인가.

지난날에 배운 낡은 지식에 매여달리면서 나날이 비약하는 현대농업과학기술과 농민들의 창조적노력은 안중에 두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 제강이나 들여다보고 혼시나 하면서 자리지킴을 하는 일군들의 체면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수령님께서는 이런 일이 비단 여기 풍연리에서만 산생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번 기회에 인민대중과 숨결을 같이하지 않고 사무실에서만 땀돌면서 전진하는 시대의 걸음에 제동을 거는 일부 일군들의 협애한 관점과 무책임한 사업태도에 경종을 울려야겠다고 결심하시였다.

결에 앉아있던 작업반장이 수령님께 장관식을 도입하기 위해 기사장과 농장시험포전책임자인 그의 안해가 여러해동안 연구해온 과정을 자상히 말씀드렸다.

《그랬을거요.》

그이께서는 그들의 남다른 수고가 헤아려지시여 한동안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였다.

《그럼 기사장동무가 장관식이 굳이 풍연리의 실정에만 맞는다고 하는 리유는 뭘요?》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의 농장들의 영농준비실태를 분석해보시며 관심이 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물으시였다.

최용준은 수령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의 진의도를 미처 깨닫지 못한채 그이만 우러러보며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있었다.

《풍연리주변의 다른 간석지농장들이나 동서해안의 바람이 센 농장들에 장관식을 도입하면 어떤가 하는거요?》

하나의 성과를 두고서도 온 나라 일을 생각하시는 그이의 위대한 사색의 세계를 다는 알수 없었던 최용준은 《수령님, 거기까지는 미처...》하고는 얼굴을 붉히였다.

《하긴 동무네 농장에서만 하는것도 반대에 부딪혔는데...》하시며 그이께서는 웃으시였다.

무한히 기쁘시였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모든것을 새로운 안목으로 보고 대하려는 그의 창조적열정과 과학적신념이 마음에 드시였다. 30대 중엽의 젊은 기술일군의 그 열정과 남다른 기질을 소중하게 여기신 그이께서는 믿음이 넘친 시선으로 오래도록 최용준을 바라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수첩에 무엇인가 적고있는 리원삼을 여겨보시며 말씀하시였다.

《부위원장동무, 제강에 따라 일률적으로 내려먹이는것이 주체농법이 아닙니다. 지대별 특성, 필지별 특성을 적극 살리면서 그 고장의 기후풍토와 오랜 농민들의 농사경험에 기초하여 현대과학기술을 현실에 맞게 발전시킨것이 우리가 말하는 주체농법입니다.》

...

도당책임비서들의 협의회가 진행될 이웃군으로 가시면서 그이께서는 오래도록 눈덮인 차창밖을 내다보고계시였다.

방금 헤어진 최용준의 모습이 자꾸만 얼른거리 그이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였다.

리원삼은 자기들의 편협성으로 하여 그이께 근심을 드렸다는 자책감에 고개를 숙인채 수령님곁에 앉아있었다.

신흥리를 지난 승용차가 눈덮인 산길을 끼고 달릴 때 수령님께서는 타이르시는 어조로 원삼에게 말씀하시였다.

《부위원장동무, 인민들속에 들어가 배우려 하지 않고 창조적사색을 게을리하는 일군은 발전하는 시대와 함께 부단히 날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뒤다리나 잡아당기는것외에는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어제는 비록 자기가 배워준 제자였다고

해도 오늘은 찾아다니며 배우기도 해야 하는것이 현시기 일꾼들이 지녀야 할 품성의 하나이며 인민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농사에서는 박사도 선생도 바로 농민들이라는것을 우리 명심합시다. ... 인차 주체농법대강습을 조직하고 모든 일꾼들에게 주체농법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세워주고 자기 농장의 실정에 맞게 장판식을 받아들일 곳에서는 받아들이도록 제강도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농업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해가는 우리 농민들의 창조적지혜와 노력에 의해서 우리당의 주체농법은 더욱 발전풍부화될것이라는데 대해서도 강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령님.》

차창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있었다. 정오가 지나서부터는 더 기승을 부리는 눈보라였다. 그러나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갈기같이 휘날리는 눈보라속을 뚫고 멈춤없이 달리고있었다.

자신의 한생애 영원한 스승으로 내세우신 인민을 찾아 질풍같이, 질풍같이...

안명국

새해의 달력을 펼치며

새해의 달력을 펼치니
이 가슴 류달리 들먹이누나
열두달 삼백륙십오일이
결승의 주로우에 나래치는듯

레사로운 세월의 날과 달이 아님을
눈시울 뜨겁도록 새겨준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길
결사의 한해걸음을 깨우쳐주는이해

이해도
천하지대본의 첫자리에 선 이 몸
새해의 첫 자욱 솟눈길에 새기며
발동소리 드높이 절기를 앞당기리라

한해농사 첫삽은 거름삽에 있으며
한해농사 거름집에 쌀단가리 곱해지매
성에 불린 거름내 몸매 배이도록
소금버께 등에 얹은 농사꾼이 되여보자

선군길 주름잡으시는 우리 장군님

마음은 늘 미루벌에 두고있다시며
미루벌을 곡창으로 만들라신
그 사랑에 흥하는 미루벌

흙만으로는 품어줄수 없었던 씨앗
사랑의 생명수로 키워주시고
끝간데 없는 드넓은 벌을
종합적기계화의 포전으로 펼쳐주신 이 벌

장군님 열어주신 자연흐름식물길타고
출렁이는 미루벌의 수평선우에
물농사 소리치며 이삭을 솟구고
무릉도원 풍치속에 만복이 꽃피는 고장

아 축복받은 대지의 주인된 궁지
장군님 높이 모신 태양조선의 년호속에
주체100년 다시금 이해를
황금나락의 장엄한 축포로
하늘높이 새기리라

권태여

사과향기

언제나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아버지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에는 그 어디에나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뜨겁게 수놓아져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북방의 어느 한 제련소 로동계급에게 사과를 보내주시었다.

산과 들에는 아직도 흰눈이 덮여있건만 제련소 로동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빗갈 곱고 생신한 사과에서 풍기는 사과향기를 맡으며 연방 《야! 야!》하며 탄성을 올렸다. 행복에 겨워 사과향기에 취해 울고웃으며 걱정애 싸인 로동자들을 보는 일군들에게는 위대한 장군님을 일터에 모시였던 며칠전 일이 뜨겁게 돌이켜졌다.

그날 제련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구내식당에도 들리시어 조리대우에서 김이 문문나는 따끈한 밥이며 콩음식을 비롯한 여러가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반찬들과 음식감들을 하나하나 다 보아주시고 만족해하시며 제련소에서 자체로 생산한 썩갯도 알아보고 좋은 일이라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일군들은 가슴이 달아올랐다.

아버지장군님께서 공장과 기업소를 찾으실 때마다 항상 강조하신것은 로동자들의 후방사업과 관련한 문제였다.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 로동자들의 식생활향상에 보탬을 주기 위해 해놓은 일인데 오히려 자기들을 치하해주는것이 아닌가.

몸돌바를 몰라하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시었다가 여기에 사과까지 있으면 구색이 맞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사과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일군들은 목이 꼭 메여올랐다.

원래 북방의 기후조건으로 과일이 바른 고장이 다보니 일군들은 철을 따라가며 로동자들에게 과일을 공급하는것도 큰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하지만 로동자들에 대한 과일공급은 계절에 구애될수 없다는것이 바로 우리 장군님의 관점이지었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구내식당의 창고에도 몸소 들리시어 부식물저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그러나 거기에도 고기와 각종 산나물, 물고기, 콩가공품같은것은 있었지만 과일만은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못내 서운해하시면서 다시금 일군들에게 인차 사과를 보내주겠으니 보관할수 있게 창고안을 조절해야 하겠다고 이리시었다.

가을도 다 지난 때 제련소 로동계급이 받아안은 사과에는 바로 이런 다심한 아버지사랑이 깃들어있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류달리 크고 향기로운 그 사과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가꾸신것이였다.

그러한 과일을 받아안은 제련소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사과구력을 쓰다듬으며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었다.

민족최대의 국상을 치르는 속에서도 자강도의 어린이들에게 첫물복숭아를 보내시어 7월의 복숭아전설을 꽃피우시던 그때처럼 우리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전설은 고난의 천리길우에도, 락원의 만리길우에도 끊임없이 꽃피어났다.

그러한 사랑의 전설이 제련소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사과향기를 한껏 풍기며 또다시 꽃피났거늘 정녕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뜨거워지는것이 바로 인민들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사랑이 아니던가.

온 나라 인민들에게 맛 좋고 신선한 과일을 마음껏 먹이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구상에 의하여 지금 나라의 방방곡곡에 과수원이 일떠서고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같은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가 생겨나 또 하나의 사회주의선경으로 빛을 뿌리고 있다.

열매는 철따라 열리고 과일향기도 끝이 있기마련이다.

하지만 아버지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시는 천만가지 행복의 열매는 계절이 따로 없고 사랑의 그 열매에서 풍기는 향기는 세월이 갈수록 짙어만 간다.

청춘의 활력을 안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대경사로 빛나는 영광의 해 주체99(2010)년이 지나가고 어느덧 희망의 새 해 주체100(2011)년이 이 땅위에 밝아왔다.

새해를 맞는 이 시각 지나간 한해를 돌이켜보느라니 정말 가슴 벅차오름을 금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 그 감격과 흥분이 지금도 심장을 높뛰게 하고 당창건 65돐을 맞는 영광의 경축광장에서 절세의 위인들을 우러르며 터치던 환호성의 메아리가 오늘도 귀전에 울려오는듯싶다.

지난해는 우리 조국청사에 특기할 민족적사변들로 수놓아진 해였다.

우리 조국과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과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큰걸음을 내짚으며 온 한해를 줄달음쳐왔다. 주체철, 주체숨, 주체비료의 폭포가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하였고 대계도간석지를 비롯하여 가는 곳마다에 솟아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세상을 놀래웠다.

온 한해 전설적인 초강도강행군으로 날과 달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발걸음에 자기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자기 걸음의 보폭을 맞추며 달리고 또 달려온 우리 군대와 인민이었다.

우리 4.15문학창작단의 전체 작가들도 우리 군대와 인민과 함께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사회주의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있는 힘과 정열을 다 바치였다.

새해를 맞는 이 시각 지나간 한해에 대한 추억도 감회깊지만 희망찬 새해의 결의 또한 더욱 뜨

겁다.

새해 주체100(2011)년은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

우리는 다음해 주체101(2012)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을 맞이하게 된다.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승리의 대문을 열어제끼는 역사적시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 역사적인 시기를 맞으며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형상한 장편소설을 창작하는 작가로서의 영예감과 사명감, 의무를 다시한번 되새겨보게 되는 나 자신이다.

나는 올해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전반적무상치료를 실시해주신 역사적사실을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작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어느덧 70나이를 바라보는 나로서는 아름다운 과거가 아닐수 없다. 하지만 몸은비록 늙어도 마음만은 결코 늙을수 없다.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로작가들에게 안겨주신 청춘의 활력으로 나도 강성대국건설대의 참전자라는 영예를 안고 새해의 하루하루를 주름잡으며 붓을 달리고 또 달리겠다.

하여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리는 역사적시기를 량심의 부끄러움없이 땀땀이 맞이하겠다는것을 결의하게 된다.

4.15 문학창작단 작가 김일성상계관인

김삼복

새로운 비약으로

새해를 맞는 수도의 거리거리 아니, 온 나라 방방곡곡이 땀땀 추위에는 아랑곳없이 대고조의 열풍으로 확확 달아오른다.

돌이켜보니 얼마나 벅찬 시대를 장식한 나날들인가. 아직도 수도의 거리들과 온 나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당대표자회의 감격으로 끓고 크나큰 행복속에 척척 발구름소리를 울려가던 열병의 대오를 환호하던 그 열광으로 일렁이는것 같다.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과 경축의 축포야회가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고있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주체철과 비날론,

비료과도가 환성을 터치게 하고 바다로 나가는 철갑상어의 장쾌한 흐름이 현실로 펼쳐진다. 그에 앞서 일어나는 CNC 화의 우렁찬 동음, 번개처럼 달리는 회전속도의 불바람...

얼마나 큰 변이 일어난 해인가.

우리 소설가들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따라 당창건 65돐을 맞는 2010년을 드높은 문학작품창작실적으로 맞이하자고 기운차게 달려왔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기의 존엄과 위력을 만천하에 파시한 지난해에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진행한 전국문학축전, 큰

형식의 작품창작전투총화, 전투적이고 고무적인 여러가지 형식의 단편소설들과 수필, 단상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학작품창작의 결실.

이 모든 성과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이 없이는 생각할수도, 감히 붓을 들수도 없게 하는 힘의 원천이 꼭 들어차있다.

나 역시 새해를 맞으며 긴장된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는다. 지나간 1년을 돌이켜볼 때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당의 요구와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자면 너무도 거리가 먼것으로 여겨져 잠 못드는 나의 마음이다.

새해에 들어서 어머니당에 어떻게 기쁨을 드리며 첫 전투에 들어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과 지향을 어떻게 반영하여 큰 고무를 줄것인가. 생각할수록 무거운 사명감과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임감이 룡상주로의 출발선에서 신호총성을 기다리는 심정이다.

더욱 분발하여 배가의 노력을 가하자. 결심을 실천으로 옮길수 있는 원천은 이미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서 밝혀주시지 않았는가.

나는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고 시작의 첫걸음을 자기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는것으로 떤겠다. 《주체문학론》, 《영화예술론》을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심오한 탐구정신, 끊임없는 부단한 독서력, 현실체험과 창작실천을 겸비한 열렬한 정열과 실무수준의 질제고...

올해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관건적인 해이다.

우리 소설가들에게도 이 보람찬 투쟁에 떨쳐나선군대와 인민의 앞장에서 그들을 힘있게 불려일으킬 투쟁의 기수, 진격의 나팔수가 되어야 할 무거운 임무가 놓여있다.

나는 이 벽찬 투쟁에서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형상작품과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대진군, 대비약을 일으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작품을 창작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돌리겠다. 이와 함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배출된 공화국전투영웅들을 형상한 작품창작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여 공화국영웅채정보를 형상한 장편소설 《과도는 기습을 친다》(가제)를 올해안으로 사상에술적으로 훌륭히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겠다.

이 결의를 실행하는 길에 애로와 난관이 조성될수도 있다. 그러나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달려온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계속 힘차게 돌진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는 주체 101(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 문패를 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전진하는 대오에 문학작품창작성과를 가지고 당당히 들어서겠다는것을 결의하게 된다.

새해다. 더없이 밝고 창창한 앞날이 우리를 부른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있는 한 조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불패의 정신력과 배짱을 지닌 천만군민의 대오속에 나도 힘찬 첫걸음을 내디딘다.

소설문학분과위원회 이정수

나는 새해와 약속한다

작가생활을 시작하여 열다섯번째로 맞는 새해 주체100(2011)년이다.

언제나 희망을 안고오는 새해, 앞날에 대한 아름다운 기대와 래일의 이름 못할 환희를 안겨주는 새해, 한번 보거나 듣거나 알고있지도 못했던 현실 아닌 미지의 세계에서 나를 찾아오건만 벗처럼, 구면친구처럼 다정하고 친숙한 새해!

새해와의 첫인사는 누구에게나 기쁨이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똑같이 새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때문이다.

또다시 1년 365일이라는 아름다운 생의 구간을 선물받는 이 행복의 순간에 나는 새해와 무엇을 약속할것인가.

자기의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분발하고 또 분발하는 사람, 주체101(2012)년의 강

성대국 그 크나큰 집에 주춧돌 하나, 기와 한장이라도 자기의 성실한땀과 애국의 심장으로 고일줄 아는 몇몇한 창조자가 되고싶다.

제야의 종소리는 울려울려 내가 마흔돌이라는 인생의 중년기에 들어섰음을 알려준다.

어느새 어머니의 키를 따라앞선 아들도 새해에 중학교졸업이라는 인생의새 국면을 맞이한다.

나는 불현듯 놀라운 아들의 성장을 확인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물음을 들었으며 그 물음앞에 당황해지는 자신을 어쩔수 없었다.

인생의 중년기는 자신과 가정,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책임적인시기이다.

지난 시대의 그 어느 세대보다 이미 마련된 행복한 환경에 많이 습관된 우리 세대, 주는것보다 받는것에 습관된 우리 세대가 부모세대에게 물려

받은 재부만큼, 행복만큼, 그 위대한 정신만큼 후대들에게 물려줄것이있는가.

있다. 허나 거기에 나의 몫은 적다. 너무도 부족하다. 나는 많이 일해야 한다. 정말 일자리가 폭폭 나게 일하고 달려야 할 때는 왔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그 애들이 살 강성대국, **김일성**민족의 자손들이 부러움없이살 삶의 터전을 건설하는 길에 2011년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값비싸게, 빛나게 살아야 한다.

그 미래에로 가는 시간을 365일의 축복의 꽃보라로 아낌없이 나누어 뿌려주는 새해, 누구에게나 새해는 찾아왔고 오늘의 출발점도 같다.

뜻을 안고 분발하는 사람에게는 순간이 백년맞잡이이고 하루가 천년처럼 귀중하지만 건달군에게는 이 한해가 또다시 쓸모없는것으로 되고만다.

믿으라 새해여, 나는 너의 날과 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부지런한 농사꾼, 일꾼이 되련다. 봄내 여름내 나의 땀, 나의 정성으로 심어가꾼 알찬 열매, 생활의 명작, 애국의 노래로 조국과 인민, 우리 장군님을 받드는 축복이 되리라.

주체100(2011)년은 매일매일 거울이 되어 나를 비쳐줄것이다. 그 거울앞에 매 순간순간 아름답게 부끄럼없이 나서는 쉽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그 거울은 나만이 보는것이 아니다.

거기에 비치는 모습을 지켜볼 아들의 눈빛, 자랑높은 우리 문단의 선후배들의 눈빛, 인민의 천만눈빛을 마음속에 느끼고 잊지 않을 때 새해는 나의것, 값있는 창조의 한해로 될것이다.

시문학분과위원회 박경심

평론의 역할을 높여나가겠다

평론가들은 당의 문예정책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보람찬 사업에서 영예로운 전위투사로 될뿐 아니라 창작하는 평론 한편한편은 주체문학, 선군문학의 발전을 추동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어야 합니다.

올해 저는 우리 문학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라침판인 당의 문예정책을 높이 받들고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는, 작가들과 군대와 인민들이 요구하는 우수한 평론들을 더 많이 창작해낼 결심입니다.

먼저 평론에서 당의 문예정책을 적극 해설선전하고 창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창작의 실천적방도를 같이 탐구하는 문제성이 있는 평론들을 적극 집필해나가겠습니다.

발전하는 시대와 날로 높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미감을 제때에 포착하고 작가들이 창작에서 좋은 문제점들을 쥐고 그것을 생동하게 형상

해나가도록 도와주는 평론들을 활발히 창작해낼 결심입니다.

저는 새해 평론가의 본분에 맞게 작품평가를 심중하면서도 공정하게 한 평론, 비판은 날카롭게 하면서도 극복방도를 실속있게 찾아주는 평론들을 창작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 다지는 결의는 크나 이것은 저의 지혜와 창작적열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당의 작가라는 높은 영예와 자부심을 안고 올해에 분발하여 더 좋은 평론창작으로 당의 크나큰 신임에 보답하고 다음해 어버이 수령님탄생 100돐을 더 뜻깊게 맞이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평론분과위원회 권선철

가사

흰눈의 노래

흰눈이 내리면 강산은 은빛세계
산과 들 그 어디나 하얗게 물들이네
백두산마루의 흰눈빛 닮아서
아 티없이 내리나 순결한 흰눈송이

아침에 내려도 하얀 빛 안겨주고
깊은 밤 내리어도 하얀 빛 안겨주네
드넓은 이 세상 흰빛으로 단장한

아 티없는 흰눈아 네 모습 아름다워

천년을 내려도 하얀 빛 정가롭고
만년을 내리어도 하얀 빛 변함없이
세월의 끝까지 제모습 잃지 않는
아 티없는 흰눈아 너처럼 살고싶어

권오준

래일을 앞당기라!

새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래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오기 위해 용감하게 투쟁하고있는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줄 작품이 나와 독자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래일을 앞당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의 휘황찬란할 래일을 어서빨리 창조하라!

이는 장편소설 《북방의 노을》(정영종 작)의 형상세계가 안겨주는 거창한 메아리이며 높은 호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자강도사람들이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모든 부문에서 위대한 전변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하며 자강도일군들과 인민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높이 평가합니다.》

선군시대의 무릉도원을 일떠세운 작품의 주인공들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우며 그들의 투쟁이 남긴 혁명적호소는 또 얼마나 열정적인가.

소재와 작가의 몫

소설의 첫인상은 소재에 대한 련상과 감동이다.

불과 몇해어간에 생산능력을 배로 확장하고 모든 생산공정들의 CNC 화도 실현하였으며 2천여 세대의 문화주택을 새로 건설한 연하광산로동계급의 그 위훈,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연의 아침노을은 저 동해에서 먼저 피지만 강성대국의 아침노을은 여기 북방땅 연하에서 선참 피여올랐다고 치하하신 이곳 광산의 백만점짜리 훌륭한 풍경은 만사람의 인상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작품의 소재는 이처럼 감동적이다. 그러면 형상은?

소재가 감동적일수록 형상의 격이 높아야 하며 그러한 격을 갖추수 있는 발견과 몫이 있어야 한다.

장편소설 《북방의 노을》은 작가의 몫이 뚜렷한 생활철학을 탐구하여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깊은 감명을 안겨주고있다.

그것은 래일에 대한 철학이다. 오늘뒤에 래일이 있어 날과 날이 바뀌는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래일은 기다리면 의례히 오기마련이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이 리치를 부정하였다.

소설에서 형상한 래일에 대한 철학은 우리의 래일은 기다릴것이 아니라 마중가야 하고 그 래

일을 자기 손으로 앞당겨오는데 삶의 보람과 영예가 있다는것이다.

누구나 래일을 생각하지만 그 래일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 놀라운 결과가 생겨난다.

작품의 주인공 련진옥은 래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광산의 래일을 막아나서는 기술부기사장 김지택에게 이런 마음속 주장을 토로한다.

…훌륭해야 할, 훌륭할것이 분명한 래일의 시각으로 오늘을 굽어보라, 그러면 오늘의 모습이 참을수 없을만큼 싫어질것이며 그 좋은 래일을 하루빨리 당겨올 강한 의욕과 투지도 생길것이다!...

김지택의 시각은 오늘의 눈으로 본 래일, 오늘과 별로 다를바 없는 안정된 래일을 본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그 래일을 걱정하며 한사코 광산의 운명이 걸린 방수벽채굴을 방해해나선다. 채취공업성 부국장 박치명은 래일에 관심을 돌리지만 자기 힘을 믿지 못한데로부터 실지로는 래일을 암담하게 보며 편안한 오늘을 지키기 위해 집요하게 보신한다. 그러나 이런저런 착각과 보신을 과감히 물리치며 련진옥은 무조건 래일을 확신하고 그 래일을 위해 질주한다.

련진옥의 눈으로 본 래일은 무섭게 오늘을 부정할수밖에 없는 더없이 굳건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사회주의의 래일이다.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에게 이 진리를 가슴깊이 새겨주시였다.

《우리는 집을 하나 지어도 로동자들을 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래일이 얼마나 굳건하고 아름다운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인민이 실질적으로 덕을 보도록 하기 위해 지어야 하는것입니다!》

정녕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누구보다 그 래일을 확신하신다. 바로 그때문에 진정으로 래일을 위한 투쟁은 곱절 위력한 실천으로 그 래일을 앞당기게 되는것이다. 하기에 우리의 주인공 련진옥은 광산의 래일이 가장 어렵게 보이던 시기 광산을 맡아안았지만 무서운 정열과 배짱으로 일판을 벌려 그야말로 숨가쁘게 광산을 전변시켰고 마침내 연하땅에 강성대국의 아침노을을 피여올렸던것이다.

작가에 의하여 새롭게 발견된 래일에 대한 철학은 이렇게 래일을 앞당기라! 는 기본사상적알맹이를 무르익히며 형상의 격을 부쩍 올려주고있다.

소설은 사랑에 대한 철학도 몫이 있게 탐구하여 새로운 감흥을 주고있다.

작품에 구현된 사랑의 철학은 사랑은 기쁜것이

지만 무겁다는 것이다.

무엇때문인가, 마냥 아름답고 황홀하기만 한 사랑이 왜 여기 연하땅에서는 무겁게 여겨지는가. 어쩌서 그들은 그 힘겨운 짐을 벗지 않는 것인가. 어제날 광산이 힘겨울 때 고향을 떠났던 은별이가 옥수금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자.

《난 널 고맙게 생각해. 그때 넌 사랑은 무겁다고 했지. 지배인동지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해주었어. 광산을 위해 빠르도록 짐을 져라,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그러면 진짜 광산을 사랑하는걸로 된다! 하고.》

이 말을 깊이 음미해보자. 여기에는 힘겨움도 고생도 모두 달게 여기며 사랑의 힘으로 연하땅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래일을 안아온 광부들의 진정이 있고 고향과 정든 일터를 떠나 기쁨을 잃고 사랑도 잃었던 체험자의 고백이 있다.

그렇다, 기쁨만을 위한 사랑은 사랑 그자체도 잃을 수 있다. 얼마나 심각한 진리인가.

보다 훌륭할 것이 분명한 우리의 래일은 결코 묵묵히 수행하는 의무만으로는 안아올 수 없다. 바로 련진옥의 말처럼 빠르도록 힘겨워도 그것이 힘겹게 느껴지지 않을 때 그지없이 열렬한 사랑인 강렬한 애착심이 생겨나며 반드시 그러한 사랑을 지녀야만 희한한 래일을 안아올 수 있다.

이처럼 소설은 비상한 투쟁을 벌려 사회주의강성대국승리의 날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오늘날뿐 아니라 무거운 사랑을 기쁘게 주고받으며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할 우리 래일의 모습도 체현한 사랑의 리치를 독특하게 탐구하였다. 하여 작품은 시련속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우리의 사랑의 미덕을 새롭게 일반화함으로써 소설형상의 격을 한결 독특하게 부각하였다.

시대가 요구하는 사랑의 철학을 독특하게 형상화하면서 소설에서는 현대과학기술과 호응하는 사랑이라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토록 광산을 사랑하고 래일을 지키려 하면서도 김지택이 락오자로 되는 원인이 한편으로는 여기에 귀착되고 있고 주요하게는 소설의 주인공 련진옥이 래일을 향해 힘차게 돌진하면서 성과를 거두는 것이 바로 이와 관련된다.

사랑은 만능의 열원이다. 그러나 최첨단을 돌파하는 사랑은 역시 높은 과학지식과 기술로 호응해야만 한다. 이것은 지식경제시대 사랑의 높은 요구이며 그로 하여 이 형상은 매우 적절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소설의 형상세계는 시대가 바라고 혁명이 요구하는 훌륭한 풍격을 갖추었다. 이것으로 마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작품의 형상세계는 이제 절실히 필요한 마지막단계에 도달한다.

보루에 깔짚고 쉴네

압록수 흘러흘러도
네우에 비낀 이 모습
천년코 지워낼손가

연하토배기로서 광산개발과 관련한 두분의 백두산위인들의 귀중한 사적의 증견자인 《자고로》 아바이 옥준보가 읊는 이 옛 시구의 형상은 연하땅의 지정학적의미를 파고든 작가의 무게있는 발견의 산물이다. 북방의 옛 보루였던 이곳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 나라가 천년토록 부흥할 보배기둥을 박아주시었고 오늘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초선으로 내세워주신 여기서 선군시대의 광부들이 강성대국의 아침노을을 남먼저 피워올린 깊고깊은 그 의미!

조국의 옛 전초보루에서 울리는 래일을 앞당기라는 거세찬 메아리여! 더 높이, 더 크게 울려 퍼지라!

구태여 민족이 요구하고 이 땅우에 세세년년 부강번영할 김일성조선의 후대들이 바라는 그 념원의 의미를 더 해석하지 않는다.

형상세계의 높은 지성도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가깝게 바라보이는 북방의 연하땅에 것처럼 희한한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래일을 안아온 우리의 주인공들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계를 정히 그려낸 작가의 형상기교는 또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

장편소설 《북방의 노을》의 다음인상은 바로 이렇다.

소설에서는 인물성격형상에서 새로운 미의 세계를 탐구하고 높은 형상기교를 구사하여 작품의 지성도를 적극 살려냈다.

주인공 련진옥의 성격에서 아름다움은 그의 혁신의 독특한 징표인 열정적이지만 무서운 모습에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의미의 미학적평가가 따른다. 하나는 래일을 위한 실천에서의 완강성에 대한 보통의 긍정적평가이며 다른 하나는 보통인간들이 지녀야 할 인간성이 결여된 부정적평가이다.

그러면 과연 련진옥을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어쩌서 그는 광산사람들의 말처럼 《천천히》, 《좋다》라는 말을 못 배웠고 무섭게 자신을 초월하는가.

그는 그럴수밖에 없었다. 또 웅당 그래야 했다. 바로 그가 보통때 보통인간이기에 앞서 선군시대의 일군이기때문이며 그 때문에 그가 심혈을 다하여 힘차게 해제끼는 일은 비상한 의미를 가진다.

바로 련진옥의 성격형상에서 발견은 무서운 성격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낸 이점에 있다. 소설은 여기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리치를 구현하였다. 우리 일군들이 영예롭게도 거목의 뿌리로 사는 새로운 대고조시대 일군의 인간성은 결코 사

업과 분리되어 외파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의 숭고한 조국에는 가장 뜨거운 인간애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 무서운 정열과 헌신이 아름답지 않으며 고상하지 않겠는가.

소설의 인물형상에서 각별히 관심을 돌린것은 당비서 전주석의 성격이다.

그의 성격에서 독특한 미는 매우 사려깊고 능숙하게 모든 일을 해나가는 리지적인 측면에 있다.

새로 지배인이 되어 사업을 벌려나가는 련진옥과의 관계에서 처음은 조심하고 다음은 맞대들이 하며 그리고 그후에는 사려깊고 때로는 능청스럽게 지배인이 정확한 결심을 내리도록 깨우쳐주고 힘있게 떠밀어주는 당일군 전주석, 그는 담화를 나누면서도 속담과 전설에 비겨 많이 말하고 지배인이 급히 일판을 벌려놓는 마당에서는 슬쩍 판장을 치면서 면밀하게 방향과 방도를 탐구하고 일을 크게 내밀도록 정치사업을 잘해나가는 군 한다. 소설은 여기서 이 성격의 본질을 발견하였다. 능동적으로 행정일군을 이끌어나가고 거친 일숨씨도 바로잡아주며 능숙하게 일처리를 해나가는 풍모, 이것은 당일군인 전주석의 성격에서 리지적인 측면에 응당한 관심을 돌린것으로서 형상의 높은 풍격을 잘 말해주고있다.

또한 소설은 옥수금, 김청주, 련정옥이네들과 여러 인물들의 성격을 그리면서 래일을 앞당기기 위해 불같은 삶을 살며 인생의 사랑을 고귀한 피와 성실한 땀으로 가꾸어가는 성격적측면에 모를 두고 지성미 넘치는 형상을 창조하였다.

이들의 성격에서 지성미가 넘쳐나는것은 매 인물들의 성격에 아름다운 사랑의 료리가 독특하게 구현되었기때문이다.

련정옥의 사랑은 강요당한 사랑이다. 그러나 그는 광부들의 세계에서 살면서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그 나날에 주동적인 사랑의 주인이 되었다. 《난 동무가 날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할테예요.》 자기에게 먼저 편지를 보냈던 영예군인을 두고 고민을 하던 그가 나중에는 광부들덕에 이렇게 용감해진것이다.

김청주는 사랑을 거절당했다, 어느 성의 부원을 한다는 이쁘장한 옛 애인에게서. 그런데 그 녀자는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랐고 그때는 청주도 물론 몰랐다.

그러나 청주는 광부들속에서 자신을 단련하며 자기의것을 초월하는 광부의 료리를 터득하였다. 자기의것을 인식하는 리기는 철저히 아름다움의 세계에 들어올수 없는것이다.

련정옥이나 청주와는 달리 옥수금의 사랑은 방향한다.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생활가까이에서 모든것을 목격하고 아직은 미흡하지만 보다 깨끗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도 자기의 사랑을 창조한다. 그에게는 누구에게

없는 《자고로》 할아버지의 손녀라는 특권이 있으며 그때문에 광산을 더 사랑하고 보다 광부의 눈으로 사람들을 갈라보는 우수한 능력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광부의 진정과 료리를 자기들의 생활에 구현하여 래일뿐아니라 사랑에서도 개척자로 된다.

소설은 립체적인 묘사와 세련된 형상기교를 통하여 작품의 지성도를 크게 높이고있다. 작품에서는 주로 다의미적형상을 통해 묘사의 립체성이 잘 살아나고있는데 그중 어느 한 장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기로하자.

지배인 련진옥이 살림집건설돌격대에서 단련기간을 보내는 김청주를 찾아가 그에게 진정을 기울이는 장면이다.

돌격대에서 자기를 단련하면서도 아직 자기의것을 다 버리지 못한 청주는 그렇게 기다려온 지배인이 정작자기를 찾아와주었지만 계속 엇드레질을 한다. 이때 련진옥은 느닷없이 피우지 않는 담배를 찾아 입에 물었다가 첫모금에 기침을 터트리며 던져버리고는 나쁜 습관은 애초에 안 배우는게 좋고 배웠더라도 제때에 결별하는 용기는 더 훌륭하다고 말한다. 계속하여 지배인이 진실하게 자기를 드러내놓자 드디어 청주는 감동하게 되는데 이때 하늘에서 눈꽃들이 떨어져내린다.

청주는 볼썽 지난해에 회양골에서 보았던 나비를 련상하고 종전의 허무, 비애와 결부해보았던 의미를 달리 해석한다.

《짧은 삶에 대한 애수, 과연 그랬을가. 그 짧은 삶에 대한 정열적인 구가는 아니었을까? 긴 삶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비애를 자아내는 법이다.》

이 장면형상은 열백마디로도 다 말할수 없는 많은 내용을 설명하며 충분한 사색과 련상의 여지를 주고있다.

아버지의 파오와 자기의 방수벽체굴안에 대한 오해가 겹쳐 개별적일군에게서 모욕과 꾸중을 듣고 점차 타락하여 단련대상으로까지 된 청주. 그러나 그를 한번도 찾아보지 못한 지배인으로서 련진옥은 그에게 참으로 할말도 많았고 희망과 사랑도 안겨주고싶었다.

이러한 앞뒤정황을 안고있는데로부터 소설은 이 장면의 묘사에서 청주가 길을 잘못 들고있는 결함에 대해 형상적으로 지적하게 하였고 그를 통해 청주의 지나온 생활과 앞으로의 생활을 그려볼수 있게 하였다. 또 매듭이 있는 두 인물의 심리를 폭넓고 깊이있게 개방함으로써 다의미성을 잘 살리었다.

특히 여기서 짧은 삶에 대한 애수와 정열적인 구가로 대비되는 형상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것은 소설의 제명이기도 한 《북방의 노을》—《연하의 노을》과 의미가 통하여 깊은 사색을 펼치기때문이다.

소설에 그려진 연하의 노을에는 급격히 피여오

르는 인상이 있다. 작가는 여기서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내어 작품의 전반형상을 관통시켰다. 이것은 독자들이 상징적효과가 높은 다음의 결론을 찾게 한다.

연하의 노을처럼 격렬하고 아름다운 투쟁을 벌려 우리의 사회주의의 래일—강성대국을 어서 빨리 안아와야 한다는것이다.

무엇인가 쿵 치받는 충격이 있다. 깊이있게 굴절된 세부형상의 련관과 조화!

소설은 지성도가 높은 이러한 형상기교로 작품의 종자에 대한 새로운 감흥을 주고있으며 바로 그때문에 장편소설 《북방의 노을》의 마지막장을 덮기가 못내 서슴어진다.

×

리근세

붉은기는 달려야 휘날린다

번듯한 이마에 군모의 별처럼

신념의 붉은기 번쩍이며

나의 동행자 《붉은기》호는

새해의 첫 운행길에 올랐다

차판마다 가득가득

주체철... 주체비료... 세멘트

만복의 재부 만짐으로 실었으니

공동사설에 열렬히 호응하는

기관사 내 마음의 메아리인가

붕! 터쳐올리는 기적소리에도 힘이 넘친다

자 만족으로 달려보자

대고조로 들끓는 이 강산을 휘감으며

동맥처럼 뻗어간 두줄기 궤도따라

쾌속으로 가는 길에

최첨단을 자랑하는 새 공장 새 거리들

하늘을 메우며 치솟으리라

쌀폭포 비단폭포 인민의 웃음폭포

땅이 무겁도록 쏟아지리라

그날의 환희 위해

무사고정시의 초침에 맞춰

역들마다의 푸른 신호등은

훌륭한 소재는 훌륭한 형상을 낳는다.

훌륭한 형상은 훌륭한 힘을 가진다.

우리는 믿는다. 이제 크고작은 일터와 고장마다 조국의 방방곡곡에 우리의 북방의 노을이 선군시대 무릉도원의 창조열풍을 일으키리라. 온 나라에 거세차게 타오를 그 창조의 열풍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땅위에 것처럼 아름답고 황홀하고 휘황찬란할 강성대국의 래일을 앞당겨올것이다.

래일을 앞당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래일을 어서빨리 창조하라!

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연하광산 로동계급의 위훈에 대한 성공한 예술형상이 온 세계에 메아리를 울리는 선군조선의 확고부동한 승리의 전주곡이다.

2012년을 향하여 차길을 열어주고

이름부터 백두의 기상넘친

《붉은기》호 너와 나

질풍처달려가는 이 길이 어찌

수송길만이라

이 수송길은

2012년 강성대국으로 향한

장군님 초강도강행군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춰가는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전선길

쿵쿵 로반을 구르는

무쇠바퀴밑에선

원썬들이 내린 《제재》의 차단봉이

짓부서지는 소리 들리는듯

이미 승리가 확증된 길

보아라 온 나라 건설장 곳곳마다

나를 부르는 속보의 힘찬 굴발

《붉은기》호 기관사 나를 향해 웨치는구나

—붉은기는 달려야 휘날린다!

박세일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나는 내가 사는 평양의 고층살림집, 대동강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어디라없이 허공중에 대고 여섯살잡이 어린 딸애와 다름없는 천진한 마음으로 힘껏 소리내어 웨쳤다.

그리고는 창밖으로 한껏 옷몸을 내대고 귀를 강구었다.

그러느라니 한겨울의 랭기를 머금고 파르스름하니 짹짹 여문 새벽별들이 좌르륵 쏟아져내릴듯 싶은 하늘아래서 금시 낮익고 친근한 우리 작가들의 화답의 웨침이 들려오는것 같았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지난해 년말이었다.

나의 책상우에는 지방의 한 작가에게서 온 편지가 놓여있었다.

《편집원선생!

남보다 먼저 새해를 축하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아주 의미심장한 짧은 편지였다.

한여름의 나날에 우산장창작실에서 많은 허심탄회한 의견들을 나누면서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 무척 친숙해진 작가이다.

그 유별난 편지가 나오 하여금 이 글을 쓰고픈 충동을 낳았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새삼스럽게 이 두마디 문장의 의미를 되새겨보려고 하니 많은것이 떠오른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 말은 신년의 종소리를 들으며 뒤돌아보는 어제이다.

그 어제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보다먼저 우렷이 떠오르는것은 돌기돌기 스무해년월을 새겨온 세월의 갈피속에 더없이 정갈한 흰눈과 함께 소중히 간직되어있는 우리 작가들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장군님의 새해 축복의 인사이다.

만나주고싶으신 사람들, 축복의 인사 보내주고싶으신 하많은 사람들가운데서아버지장군님 정을 담아, 하많은 사랑과 기대, 믿음을 담아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가 되길 바라신다며 새해를 축하합니다 하고 뜻깊은 인사를 보내주신 그날의 그 새해인사가 간직되어있다.

그사랑, 그 믿음을 이 하늘아래 가장 귀중한것으로 간직하고 붓대를 틀어쥐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명도를 받들어온 우리 작가, 편집원들의 걸음걸음이 있다.

희천속도의 비약의 열풍 타래쳐오른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불타는심장의 박동인양 툭툭 살아 뛰는 언어들로 피갈고 살같은 시작품들을 창작하

던 시인들의 발자취며 남흥에서, 홍남에서, 대계도에서 영광의 10월축전장으로 달음쳐온 로동계급의 숨결을 자기 심장에 잇고 창작전투를 벌려온 소설가들의 뜨거운 체취가 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누구나 하는 이 말과 함께 돌이켜보는 어제에는 우리 천만군민이 어깨걸고 그를 위해 총돌격해온 지난해의 잊지 못할 10월의 경축광장—김일성광장의 영광의 주석단 단상이 있거니.

그렇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 말에는 래일이 있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향도아래 김일성민족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따라 펼쳐가는 강성대국 우리 조국의 광휘로운 앞날이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공동사설의 파업관철을 위해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당당한 공지와 자부로 땅땅 마음들을 다지고 최첨단의 과학기술지식으로 만장약하고 첫 걸음을 내디디는 천만군민의 청청한 기상이 있다.

천리마동상이 하늘을 향해, 누리를 향해 네굽을 안고 날으는 이 땅우에 영웅적조선인민이 새해에는 또 어떤 기적을 창조하게 될가.

희망과 기대로 뿌듯한 가슴을 안고 둘러보느라니 벌써 그 영웅적인민의 서사시를 창작하고있는 우리 작가들의 모습이 앞뒤를 다투며 떠오른다.

새해의 문을 열고 내다보는 앞날, 그 앞날은 멀지 않다.

하루밤을 자고깨면 래일이듯이 우리 조국의 앞날은 가까웁다.

결코 수평선 저 멀리에 있지 않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누구나 가슴들먹이며 하는 이 인사말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 가리키시는 강성대국 사회주의 조선의 미래가 휘영청 밝아온다.

나는 문득 펜을 멈추고 일어섰다.

창밖에 나서서 눈길을 들어 크게 심호흡하며 세상을 둘러보았다.

가슴가득 차오르는 행복감, 긍지감 그리고 삶과 투쟁에 대한 뜨거운 의욕...

누구에게라없이 다시한번 웨쳤다. 여섯살잡이 딸애도 함께.

새해를 축하합니다!—

그 메아리에 귀를 기울이던 딸애가 방긋 웃으며 나를 쳐다본다.

《엄마! 내가 한뼘은 큰것 같지 않나?...》

철없는 어린애의 말속에서 어른들도 무엇인가 음미해보게 되는 말...

우리 노래의 가락

1

청청한 가을의 새벽대기를 흔들며 어데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내 나라
여기 내가 태어났고 자라나는 곳
...

첫새벽이면 이곳 농장처녀 청순이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준비로 발성련습을 한다며 매일 한 본새로 반복하는 노래다.

헌데 그 발성련습으로 부르는 노래가 이곳 사람들에게 주는 감흥이 류달랐다. 그 노래가 꼭 자기들이 사는 명산을 읊조리고 자기들이 누리는 행복을 노래하는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명산칠보산과 더불어 이곳 황진은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다. 내용적으로는 한마당에서 온천과 약수가 솟는 것으로 하여 자랑우에 자랑이 겹친 셈이다.

그뿐이 아니다. 자연이 준 칠보의 신비경과 더불어 선군시대에 와서 근대인간생활이 꾸며놓은 이런저런 낡은 흔적마저 깨끗이 들어내고 100동의 주택과 문화회관, 상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로 새롭게 일신한 사회주의선경마을로 꾸려져 더욱 유명짜해졌다.

하니 이 땅에 울리는 노래소리조차 무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노래소리에는 칠보명산에서 사는 이곳 사람들의 자랑과 긍지가 한껏 넘쳐흐르고 있었다. 구김살 하나없이 울리는 그 소리는 푸른 하늘을 날아이며 우짖는 맑고 쟁쟁한 종다리의 노래처럼 내 나라의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구가하였다. 명산의 계곡을 흔들며 사회주의 내 조국에 대한 다함없는 송가로 울리는 노래는 때로는 숭고한 삶으로 지향시키는 절절한 호소로 사람들의 가슴에 파고들기도 했다.

노래가 주는 감흥은 이곳에 와서 한달가량 보내는 룡양생들에게도 레외로 되지 않았다.

방금 잠을 깨어 귀전에 흘러드는 노래소리를 꿈속에서처럼 들으며 가만히 누운 성복의 가슴에도 후더운 그 무엇이 축축히 젖어들었다. 그것은 그만에야 뜨겁게 가열되어 거세게 부풀리며 일렁거렸다.

성복의 마음은 벌써 처녀에게로 달려가 기타의 금선을 튕기며 말없는 약속속에 노래의 선율이 안고있는 사상감정을 뜨겁게 읊조리고 있었다.

아, 노래!

나도 부르고 너도 부르는 노래!

우리 인민모두가 사랑담아 부르는 노래!

그 노래속에는 사랑하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무르익히며 아름다운 삶을 창조해가는 우리 인민의 약동하는 생의 희열이 그대로 깃들어있으니 이 아침도 온 마을이 하나같은 생각에 무젖어 그 노래를 듣고있으리라 성복은 생각하였다.

어쩌면 그 노래의 선율이 자기가 떠나온 고향 도시의 활력에 넘친 음향속에도 비껴흐르고 자기가 돌리는 기계공장 선반기의 기세찬 동음에도 맥맥히 흐르고있다고 그는 애바른 그리움속에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2

성복이네들이 입소한 첫날 이곳 룡양소 소장이 우스개소리를 섞어가며 연설비슷한것을 했다.

《...누구든 우리 룡양소에 와서 건강이 회복되고 이모저모로 좋았다는 추억을 안고 돌아가야 합니다. 녀인들이 돌아가서는 남정들한테서 달덩이처럼 고와줬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구 사내들이 돌아가선 녀인들한테서 애개개! 당신 한달새 많이 무거워졌수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구석쪽에서 녀인 몇이 눈맞춤을 하며 웃었다.

《웃지 마시오.》 소장이 툭해 말했으나 선전에 때이르게 정수리까지 벗어진 대머리에 살이 올라 부얼부얼한 얼굴에서는 엄한 빔을 찾아볼수 없었다.

그는 두터운 안경을 추스르며 계속했다.

《그러자면 치료에만 전심해야 합니다. 경험한데 의하면 스트레스를 없애는것이 회복기 치료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생활조직으로 룡양기간을 즐기시오. 머리를 푹 쉬우시오. 벌써 돌아앉아 딸년 시집보내는데 꽃친 몇메터, 목화삼 몇키로그람 하는 식으로 수자를 생각할라믄 절대로 치료가 안됩니다.

모두 산으로 오르시오. 바다로 나가시오. 어디든 즐거운데를 찾으시오. 정 움직이기 싫은 사람은 누워 〈김치깎두기 노래〉라도 부르시오. ...》

소장은 치료에 지장을 주는 현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언명했다.

소장이 자못 심각해서 주의를 주었음에도 성복이와 함께 든 근영은 첫날부터 하루종일 책과 씨름했다. 그것도 재미있는 소설책이 아니라 알지 못할 수식과 리론이 짙 박힌 과학기술도서였다. 벌써 이곳에 올 때 책만 한배낭 지고 온 근영이다. 두만강기슭 어느 농장에서 트랙또르운전수로

일한다는데 선비처럼 책만 붙들고있었으니 어울리지 않았을뿐더러 뭇 좀 해보라고 해도 도무지 배짱이 맞지 않았다. 숙소를 돌아보던 소장의 눈에 띄어 추궁을 받은 뒤엔 창을 가리우고 밤길도 록 책을 읽고는 늦잠을 자 성복을 속상하게 했다.

오늘도 근영은 갠지 오랜 성복이 심술궂게 락을 두드려 덜카당소리를 내는데도 깨지 못했다.

《기상! 소장선생에게 일러바치구 말가부다. 이번엔 아예 추방이야.》

이미 이곳으로 오는 뻘에서 낮을 익힌 성복이와 근영은 나이까지 동갑이어서 숙소에 들어 하루이틀새에 벌써 서툰한데가 없는 친구로 되었다.

성복이한테 코등을 잡히워 숨이 막힌 근영이 머리를 뒤틀다 일어나 툄툄거렸다.

《소장선생이 스트레스소리를 해두 할수 없어, 난 암만해야 책읽기가 좋으니.》

잠기를 터느라 채머리질하면서도 단잠을 깬게 아쉬운지 자리에서 일어나길 싫어했다.

성복이늦장을 부리는 근영을 다물아 마을길에 나서니 벌써 약수터로 가는 길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띄었다. 모두 운동복차림이다.

원래 첫 아침이면 약수터로 가는 길이 대낮보다 더 분주했다. 약수리용때문이기도 했고 또 조 기운동으로도 거리가 맞춤했기때문이었다.

마을복판의 공원에서 밀려나온 한때의 아이들이 발을 맞추어 《강성대국》구호를 신나게 넘기고 받으며 약수터쪽으로 달려갔다.

아이들을 내놓고는 모두 룡양생들뿐이었다. 한 것은 룡양생들이 회한해하는 온천이니 약수니 하는것이 이곳 사람들에게는 다 심상한것으로 되어 이런덴 별로 관심이 없는 까닭이었다.

살림집 숙소(100동의 살림집에 룡양생들이 생활할수 있게 따로 꾸린 방을 말한다.)로부터 약수터까지는 1키로메터가량,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또 자연상의 풍치를 그대로 살려 꾸린 야외 욕탕까지 있다. 그러니 아침운동참에 약수로 속을 씻고 온탕치료욕까지 할수 있으니 이 모두 멋이 아니라 할수 없다.

강냉이밭옆에 산짐승을 쫓기 위해 세운 높이 많은 경비다락에서 한사람이 사냥총을 막대기처럼 세워잡고 엉거주춤해 내다보았다. 룡양소장의 형 전종해였다. 얼굴이 갠기해서 첫눈에는 동생과 다르게 보였으나 채양이 탈러오른 낡은 농립모를 벗으면 한톨에서 부어낸것 같은 대머리때문에 어찌면 신통히도 같다는 소리를 듣는다. 성복이네를 보고 알은체 했다.

《어제 굉장한 놈을 낚았으면서?...》

어제 성복은 도래굴이 낚시질을 나가 뜻밖에도 2.3키로그람이나 나가는 이면수를 잡았다. 고기를 낚은 당자는 말할것도 없고 한뼘 바다가에서 살

아온다는 이곳 사람들도 처음 본다고 회한해하는 굉장히 큰 놈이었다. 거의 팔 한기장되는 그놈을 끌어올리느라 성복이 20분나마 씨름을 했다. 그러느라 손까지 베었다. 하지만 가슴이 뛰여날것만 같은 기쁨때문에 낚시줄이 파고들어 베인 자리가 쓰린것도 느끼지 못했다.

《첫 숨쉴데 우연인가 봐요.》

《그래, 첫 숨씨는 재간이라구 안한다네. 그건 바로 자넬 바다와 끓을수 없는 인연을 맺어주느라 그러는걸세. 그런 생각밖의 첫 소득에 미련을 가져 가고 또 가게 되는데 낚시질이지.》

《그래서 오늘 계획두 낚시질입니다.》

별안간 전종해가 얼굴빛이 사색이 되여 상체를 밖으로 쭈욱 내밀었다. 그 서술에 어디에 걸렸는지 낡은 농립모가 날아나 발고랑에 뒹굴었다.

《그... 그렇게 낚시질에 미치면 내 딸 기타반주는 어떡하나?》

첫새벽 노래의 주인공 청순이 바로 전종해의 딸이다. 그 딸을 두고 전종해네 부부의 열성이 대단했다. 부부는 지금 금이약이야 하며 키우는 딸을 어떻게 하나 중앙경연무대에까지 내세워보자고 극성을 부렸다. 피곤때문에 딸이 얼른 깨지 못하는 날이면 큰일난것처럼 야단을 부리며 열리고 추고 으르고 하는게 그들부부였다. 아쉽게도 반주를 맡은 농장예술소조의 손풍금수가 군에 몇달 공부하러 가고 없어 서운해하는참 성복이가 나타났다. 사실 리에도 기타를 치는 젊은이가 몇되는데 반주를 맡을만큼 수준이 못되던가, 집이 멀던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다. 학교시절 도학생 소년궁전소조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기량이니 마당에 나왔아 치는 숨씨가 대뜸 눈에 들었던것이다. 당장 소장인 동생을 내세워 딸의 반주를 맡아주도록 부락했다.

성복은 어제부터 반주를 해주마고 약속해놓고도 낚시질에 움해 그것을 까맣게 잊었다. 섭섭해하는 전종해의 얼굴을 보고 래일부터는 꼭 시간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제 잡은 고기를 그 집에 든 조종기계연구소의 컴퓨터전문가인 로박사를 위해 가져다주었는데 이제 와선 다소 미안한 마음을 덜수 있어 다정한 생각이였다.

《이제 반주를 해줍니다.》

성복은 어정쩡한 대답을 하고는 쫓기듯 그앞을 지났다. 자연 걸음이 빨라졌다. 옆에 따라선 근영이 기척이 없어 돌아보니 저만치 뒤에 떨어져 길 옆 산자드락에서 어정거리고있었다.

《뭘해?》

근영이 뭔가 한입 가득 물고 땡땡이소리를 냈다.

《굼어죽은 귀신이 붙었어?》

그래도 욕을 타지 않고 버죽이 웃으며 온다. 손에는 빨간 산딸기가 소담하게 담겼다.

《별맛이야.》

근영이 내미는걸 외면했다.

《여, 사람이 좀 멧힌데없이 놀지 말어. 고기잡이를 계획했으면 거기에 신경을 써야지. 이거야 어디 옆에서 속이 타서...》

《이제라도 늦지 않아. 자, 맛보라는데. 고기에 못지 않은거야. 이 산딸기를 고려의학에서는 복분자라고 이르는데 사람들의 정력을 보할뿐 아니라 머리칼을 검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해. 그러니 우정이라도 찾아먹을만 한 가치를 가진 귀한 약재지.》

근영이 촌에서 살아 그런지 동식물에 대해 아는 소리를 곧잘했다. 성복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틀린데 없는 말임에도 웬일인지 까닭없이 코웃음이 나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체통과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자잘한것에 신경을 쓴다든가, 풍수에 맞지 않게 뭘해본다고 갑자르는데는 다 그 생활환경이 만들어준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둘은 길가에 정각모양으로 지은 아담한 약수터에서 바글거리는 조무래기들때문에 또 한동안 지체한 뒤에야 야외욕탕으로 올라갔다.

성복은 오작교를 편상케 하는 작은 목조다리를 건너 비좁은 골짜기를 따라 갈지자로 뒤탈려오른 좁은 포장길을 걸다 무춤 멈춰섰다.

《이자 패쪽을 봤어?》

온천용출구 주변의 바위가 움푹 패여 자연상태로도 기막힌것을 둘러막아 욕조면적이열명가까이 들어앉을수 있게 한 야외욕탕은 말그대로 가림시설이 없다. 그래서 이곳으로 올라오는 외통길인 다리목나무에 패쪽을 달아놓았다. 앞뒤에 남녀를 따로 밝힌 패쪽을 먼저 리용하는 쪽에서 둘러건것을 보고 현재 리용하는 편이 누구들인가를 알수 있게 되었다.

성복이 덤비다나니 그 패쪽을 보는걸 잊었다. 뒤에서 아무 생각없이 흥얼거리며 따라오던 근영이 역시 머리를 기웃거렸다.

《글쎄... 하긴 보나마나야. 이 새벽에 어느 녀자가 야외욕탕까지 왔겠다구.》

듣고보니 그럴법해. 에라— 하고 주춤거리던 걸음을 계속 내짚었다.

야외욕탕소개관 가까이로 다가가는데 근영이 흥얼거렸다.

《이거 향내가 난다.》

성복은 박혀서서 코를 벌름거리다 도리질했다.

《모르겠는데...》

《아니, 내 코는 못 속여.》

아니다나를가 석축구조물너머에서 놀란 녀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마나! 저기 남자들이 오는것 같어요.》

《거 누구요?》

석섬한 녀자의 목소리가 따라올랐다.

둘은 쫓기듯 아래로 밀려내렸다. 다리목까지 내려와보니 패쪽에 《녀자》라고 써여있었다. 저절

로 웃음이 나가 어깨를 흔들며 웃어댔다.

얼마후 녀자 넷이 치료욕을 마치고 내려왔다. 그중에 끼인 애된 처녀가 성복이네를 띄여보고는 무엇이 부끄러운지 괜히 녀인들의 잔등뒤에 까투리처럼 머리를 틀어박는다.

《다 늙은 우리넬 흠쳐보자고 올라온건 아니겠는데...》

녀인들의 입가에 그려지는 느물쩍한 웃음을 보니 그대로 지나칠 잡도리가 아니다. 상대가 총각들이니 차라리 잘되었다는 눈치다.

《사실 우린 패쪽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은 어따 팔구 보지 못했던 타령이요?》

《구실이야. 팔담엔 패쪽이 없어서 총각이 선녀들 목욕하는걸 흠쳐봤다 하구 여긴 팔담이 아니란 말이우. 외통길에 붙인 패쪽두 보지 못하더니.》

《엥큼한 젊은이들, 그러면 못썰요. 영애야, 저 젊은이들이 틀림없이 널 깨꼬— 해서 흠쳐본것 같은데...》

처녀는 너무 급해 성복이네를 지나치기 바쁘게 내뻘는데 녀인들은 그게 재미있어 더욱 승이 나 쪼고불고 떠들었다.

《이제 소문이 더럽게 나겠는데...》

성복이 걱정하는데 근영은 대수롭지 않아했다.

《별 걱정 다 하누나. 어서 욕탕에나 올라가자.》

따끈한 욕조속에 몸을 잠그고있으려니 방금전의 걱정같은것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금시 자기를 잇고 만족과 즐거움이 흘러넘치는 눈길로 파란 하늘을 쳐다보았다. 좋구나! 옆에서는 근영이 흥얼거리고있었다. 기분이 좋을 때면 반복해부르군 하는 노래의 후렴구인데 이곳에 와서붙은 버릇이란다.

...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

문득 성복은 가까이 들리는 처녀들의 재잘거림을 들었다. 《누구야?》 급해 소리쳤다.

어마나?! ... 금시 바스라지는 소리가 터지더니 쿠당탕— 포석을 구르며 아래로 내닫는소리가 들려왔다. 짹짹대는 웃음소리가 멀리서 날아왔다.

《오늘은 어떻게 된거야? 우릴 놀리는거 아냐?》

그 소리에 근영이 성복이쪽을 보며 기웃거렸다.

《가만, 우리가 패쪽을 둘러놓지 않은것 같애.》

아빨사! 누구를 탓할것도 없다. 이번에도 자기들이 덤빈탓이다. 그래도 계두덜거렸다.

《종합치료장을 리용할 노릇이지. 숙소에도 치료욕탕이 다 있는데 처녀들까지 여기로 오니 복잡할수밖에 없지 않아.》

《그러지 말아. 야외욕탕мест이 좋다구 자긴 맨날 여기로 오면서 남보구는 종합치료장에서만 하라는거야 너무 교약한 심보지.》

근영의 통을 맞은 성복은 헤식게 웃었다. 료양소에 꾸려진 이 모든것이 자신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모두의 복리를 위한것임을 그도 모르지 않았다.

그날 녀인들의 과장된 송사질에 소장이 껄껄거렸다.

《량권이 실컷 웃었다니 그 일은 제대로 된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 그대로 노래고 기쁨이라 하는거지요. 또 그렇게 즐거우라고 품들여 야외치료욕탕까지 꾸려준것이 아니겠습니까.》

3

풍요한 칠보의 가을이라 걸음걸음에 즐거운 일뿐이다. 낚시질, 버섯따기, 밤청대, 산열매따기... 과연 어느 재미를 먼저 봐야 할지 갈피를 잡기가 힘들어 량손에 땀진 심정이다. 요즘은 청순이의 노래편습을 반주해주는 일감까지 맡아 더 분주해졌는데 성복이로서는 그 일도 어느 재미에 못지 않은 일이었다. 그 일때문에 종종 늦어져 다른 일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조차 아쉬움을 몰랐다.

오늘 아침도 청순의 노래편습을 반주해주고 조금 늦어 돌아온 성복은 시간을 당기느라 대충 속소의 치료욕탕을 리용했다. 그런 뒤 이 궁리, 저 궁리 해볼것없이 낚시대를 집어들었다. 다른 재미도 재미지만 무직하니 근육을 자극하며 요동치는 팔뚝같은 고기들이 걸려오르는 모양이 금시 눈앞에 서물거리며 유혹하는데는 발길을 판데로 트는 재간이 없었다.

성복은 근영에게 빨리 준비를 하라고 다그쳤다. 어제 오후 억지로 끝고가 초벌 낚시재미를 붙여주었더니 또 가자고 제쪽에서 먼저 청해나섰던 근영인데 이 아침엔 별로 뜨직해하는 눈치다. 어제 늦도록 낚시도구를 새로 꾸미느라 할 때 같아서는 며칠새에 해칠보의 고기를 다 퍼낼 기세더니 밤새 달아오른 충동과 욕심이 다 사그라진 모양이다.

《아니, 밤새 결심이 달라졌나?》

《래일가는게 어때? 거기 가면 오늘 계획이 다 튀는데...》

근영이 미안한듯 손에 든 책을 내보였다.

성복은 대뜸 끝살을 찌프렸다. 근영의 저런 성격에 증이 났다.

《싫으면 관둬. 내가 잡아다 섬길테니 받아먹기나 해. 팔자가 그쯤 되는것 같은데.》

그렇게 꼬집혔으면 얼굴이 붉어지고도 남으려면 근영이 헤헤 웃고만 섰다.

성복은 그만 쓴입을 다셨다. 제가 무슨 연구사라도 되는가, 하다못해 현장기사쯤이라도 모르겠는데. 저렇게 둔한 감각으로 뭘 한다는게 우습다. 허바닥이 내키는대로라면 농촌에서 트랙토르나 끄는 주체에 뭘 그다지나 책을 붙들고있아 아까

운 시간, 아까운 시간 하면서 그래 하고 콧 싸주고싶다.

성복은 속에 불만의 소리가 그득했지만 애써 눌렀다. 큰것을 꿈꾸는 나이로 뭐나 다 해보고싶어하는 성복의 경우나 배우고싶어하는 근영의 경우가 비슷했으니 제 취미를 따르지 않는다고 끝을 낼수는 없었다. 그가 아니라도 길동무할 대상이 있으니 걱정할게 없다.

성복은 뒤호동의 전종해네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구학남박사가 벌써 며칠전부터 성복이 들고간 이면수를 보고 이런 재미를 혼자 보지 말고 함께 가자고 청을 했기때문이었다.

처마에 커다란 이면수 한마리가 데롱데롱 걸려있는걸 보고 싱긋 웃었다.자기가 가져다준 고기다. 보기만 해도 흐뭇했다. 가뜩이나 큰 고기를 째쳐놓으니 손바닥 몇개 합친것만큼 넉적한게 더 커보였다. 할수만 있다면 박제품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가 두고두고 자랑하고싶었지만 로박사에게 대접하라고 가져다주었다. 성복은 나라의 국력을 떨치는데 실질적으로 한몫하는 구학남선생과 같은 과학자들이야말로 누구나의 존경을 받을만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선뜻 들고간것인데 로박사쪽에서는 그게 고맙다고 몇번이고 인사를 했다. 그 고기속만도 청순이네 식구까지 한끼 푸짐히 먹고 남았다고 한다. 고기는 먹는 재미보다 보는 재미라면서 굳이 걸어놓으라고 해서 벌써 며칠째 처마에 걸려있다.

성복이 퇴마루에 올라서서 금방 문을 열려는데 뒤울안에서 나오던 청순이 손짓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시늉을 했다. 뜨아한 눈으로 바라보니 처녀가 대담대신 입에 손가락을 끝추 세웠다. 그때에야 안에서 두런두런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왜 그러요?》

까닭을 묻는 성복의 소리가 저도 모르게 가늘어졌다.

방안에서 소장의 여느때없이 높은 여성이 들려왔다.

《제발 제 립장도 생각해주시오. 선생의 건강회복에 특별히 관심을 돌려달라구 과학원에서는 벌써 도착전부터 전화가 왔는데 치료생각은 앓구 밤낮 연구사업만 하니 난 어떡합니까. ... 형님일두 섭섭합니다.》

로박사와 집주인 전종해의 목소리도 엿섞여나왔다. 섭섭하다거니, 리해하라거니, 할수 없었다거니 하는 소리들을 가려들었으나 전말을 모르고 듣는소리라 딱히 영문을 알수 없다.

청순이 대문가까이로 성복을 이끌고나와 사연을 들려주었다.

소장은 각별히 원심을 써 구학남박사를 형네 집에 따로 들였다. 마음같아선 자기 집에 들이고 싶었으나 한창 장난이 세차 때없이 쥐여박을내기를 하며 집이 떠나가게 물어봐, 웃어봐하는 늦본

네자식때문에 식구가 단출하고 조용한 형네 집을 택했다. 제집처럼 드나드는 형네 집이니 임의의 시간에 들여다보며 관심하기도 좋았다.

그런데 소장의 이런 관심을 로박사쪽에서는 성가시게 여기는상싶었다. 하루에도 몇번씩 들여다보며 외위대는 치료소리에 지겨워난 로박사는 문을 안으로 닫아거는것으로 대응했다.

로박사가 밤낮없이 연구사업에만 몰두하는데 속이 상한 소장이 사정도해봐, 호소도 해봐, 성도 내봐 하다 더는 참지 못하고 구학남박사가 보는 도서니, 기술자로서 하는것들을 전부 회수하여 집을 날라갔다.

헌데 청순의 아버지가 로박사의 간절한 부탁을 이기지 못해 동생이 없는 사이에 남편의침을 맞아 끄떡도 않는 제수에게서 시형의 권한을 행사하여 책을 찾아다 돌려주었던것이다.

동생한테 몰려 의기소침해진 전종해가 나오다 애꿎은 딸을 보고 끝을 냈다.

《넌 무슨 일을 하게 여적 꾸물거리고있냐?》

《누에골밭경비 가요.》

청순이 토끼처럼 겁먹은 눈으로 성복이쪽을 보고나서 급해라 종종달음을 놓았다.

소장이 나오다 성복이 든 낚시대를 여겨보고 일깨워주었다.

《오늘은 파도가 인다고 했는데... 이런 날 가면 박사선생이 낚시질을 다신 안 가겠다고 할거야.》

그래도 내친 걸음이라 박사를 찾아들어갔다.

《괜히 싫은소리 들을게 있습니까? 바람도 쏘일 겸 낚시질이든 어데든 나갑시다.》

로박사는 제사 안타까와하는 성복을 보고 시뭇이 웃기만 했다. 《낚시질? 그래, 내가 약속했었지. ... 그런데 어떻게 한다? 난 벌써 소장선생때문에 사흘이나 빈둥거렸어. 그러니 오늘은 갈수가 없구만.》

성복은 소장이 바라는데로 낚시질이든 밤청대이든 어떻게나 박사를 이끌어내여 즐겁게해줄 작정이었으나 자기가 고집하고 억지를 부려야 로박사를 돌려세우지 못하리라는것을 알았다. 어깨가 처져 물러나오고말았다. 파도소리도 들은 뒤라 낚시질에 대한 흥미도 사라져버렸다.

성복이 스적스적 발길이 가는대로 걷다보니 누에골어귀에 들어섰다. 저도 모르는 사이 발경비를 서는 청순이를 쫓아온것이다. 자기로서도 놀라웠다.

성복은 요즘와서 처녀에 대한 자기의 감정이 처음 반주를 해주던 때와 다르게 번저감을 느꼈다. 이상하게 날이 갈수록 마음이 끌리는 처녀였다. 반주를 해주며 가까워진데도 있겠지만 그것만도 아니였다. 또 그것이 부모에게서 좋은것만 골라담은 처녀의 인물이 산기슭 풀덤불속에 상큼하니 키를 솟구고 피어난 한뼘기의 나리꽃마냥 류달리 눈길을 끈때문도 아니였다. 자기의 노래가

나서자란 칠보명산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기를 바라는 처녀, 한뼘기의 꽃이 되어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로동의 성실한 땀을 바쳐 향촌을 빛내갈 소중한 꿈을 안은 처녀가 바로 청순이었으니 성복이 그 진정을 안 때부터라고 할수 있었다.

불쑥 나타난 성복을 보고 처녀가 놀라와했다.

《청순이를 동무하고싶어 왔어.》

《동무요?... 남들이 보면... 어서 가요. 산짐승을 쫓는 일때문에 들썩이나 앓아있는걸 보면 웃어요. 실리에도 맞지 않고.》

《팬찮아.》

성복이 고집했다.

《실리소린 하지두 마오. 난 로력자가 아니라 료양생이란 말이요.》

성복은 일부러 다락에 올라 구석에 놓인 팽과리를 팡 두드렸다.

《남들이 보면 어째서? 다보라지. 자, 산짐승들은 물러가구 사람들은 모여와 우릴 보시오.》

청순이 급해 어쩔줄 몰라했다.

《제발 소리치지 마세요.》

아무리 떠밀어도 가지 않으리라는것을 안 처녀는 태도를 바꾸었다.

《그럼 오늘은 함께 발경비를 서도록 하자요. 도중에 재미없다구 가면 안돼요.》

성복이 싱글거렸다. 도중이 뭐야, 처녀와 함께 라면 열, 백날이라도 싫지 않겠는데.

청순이 문득 눈을 동그랗게 하고서 맹랑한 소리를 했다. 《이 정신 좀봐.》 하더니 급한 일을 잊었노라며 잠간 다녀오겠다고 한다.

《자리를 뜨면 안돼요.》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청순이 재삼 당부를 했다.

처녀가 간 뒤 성복은 다락에 앉아 자주 골아래쪽을 더듬었다. 웬일인지 청순은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비로소 처녀가 별스레 자리를 뜨면 안된다고 다짐을 두던게 돌이켜졌다. 어쩐지 자기를 피해간것만 같았다. 맹랑한 생각에 입을 다쳤다. 바라고 온 처녀는 놓치고 빈 다락만 지키고 앉았으니 이번에도 그를 따라 산에갔다 겪은 꼴이 된것이다.

...엇그제 성복은 처녀를 따라 송이 캐러 산에 올랐다. 새벽에 깨여보니 처녀는 벌써 산으로 오른 뒤였다. 전날 함께 가자고 지긋게 성화를 먹이는 성복에게 대답을 앓더니 종내 혼자 가버린것이였다. 부랴부랴 깊은 산속으로 멀어져가는 노래소리를 따라 쫓아갔다.

고집스레 따라선 성복을 두고 처녀는 속이 상해 호—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뒤에 주의를 주었다.

《여긴 산이 험하고 골이 깊어 자칫 잘못하면 길잃기가 쉬워요.》

성복은 괜한 걱정을 한다고 웃었다. 아무려면

사내가 처녀보다 못할가.

성복의 빠기는듯 한 태도에 처녀가 눈길을 흐렸다.

《따라선걸 후회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정말 뿔도 따고 님도 보리라 해서 따라선 걸음이었으나 생각과는 달랐다. 처녀를 따라다니느라 먼 송이를 못 캐고 송이를 찾아다니느라 사람 잃고...

노래반주를 해주는 때에조차도 가까이 다가서는걸 경계하던 청순이 성복을 자주 가까이 불러세웠다.

그래도 성복은 송이버섯을 캐는 정신에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마구 껴질러다녔다. 심리가 참 이상도 했다. 조금만! 하고 움직여가서는 또다시 그런 미혹에 끌려 더 가게 되는것이 송이캐기였다.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횡재할수 있을것만 같은 유혹이 끈질기게 발목을 잡아끌기때문이다.

그렇게 가다 처녀와 아주 갈라지게 되었다. 성복은 당황해졌다. 더럭 겁이 나 목이 터져라 처녀를 불렀다.

《청순동무— 청순이—》

대답이 없었다. 휘넓은 산밭아래 낮게 떠도는 새벽안개속으로 성복의 고향소리만 맥없이 찾아들뿐이었다. 그런 뒤에 되돌아오는 메아리가 누군가 마지못해 말을 받는듯 한 웅얼거림처럼 들려왔다.

처녀는 처녀대로 속이 한줄이 되어 산을 헤맸다. 그렇게 찾다 혼자서는 안되리라 생각하고 료양소에 알렸다. 온 료양소가 펼쳐나 찾았다.

성복은 산중의 개울가에 앉아 너무도 배가 고파 뚝은 도토리를 씹다 자기를 찾는 소리를 들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쿡 솟구쳤다.

그때 먼저 달려온 소장이 그를 보고 엉엉 울고 있는걸 찾았노라고 해서 웃음이마리가 되었다.

《무턱 처녀뉘를 쫓아다니더니 버릇이 푹 떨어졌을테지. 반주이상 판 생각 품으면 안돼!》...

성복은 그날 다시는 못난짓을 하지 않는다고 다짐했으나 오늘 또 실수를 한것이다.

점심때도 많이 지나 뜻밖에도 근영이 발머리에 나타났다. 놀랍다는듯 눈을 껌뻍이며 느물거렸다.

《아하, 예가 도대굽인가. 난 분명 누에골루 알고왔는데. 내가 잘못 왔나?》

《고거 나보구 발경비를 서달라구 손이야 발이야 밟아 할수없이 이리걸 않나.》

성복의 핑계에 흥글한데가 있는 근영이 시치미를 따고 급한데를 자꾸 찢러댔다.

《어느쪽 말이 진실인지 알수가 있다. 그래도 청순인 동무가 경비를 서주겠다고 했다던데. 암만 둘러봐야 성복동무만 한 사람이 없다구 잔뜩 칭찬을 하면서... 그제 고마워 이 점심식사를 보낸다.》

물론 처녀가 미안한 마음때문에 식사를 지어보냈다는것을 성복이 모르지 않았다.

밥판을 터치니 정말 처녀의 성의가 여간이 아니었다. 밥속에 차돌박히듯 닭알 한알이 곱게 박히고 반찬판에는 이면수구이와 송이버섯반찬까지 담겨져있었는데 소박하긴 해도 여간 먹음직스럽지 않았다. 부쩍 구미가 동해 저도 모르게 꿀꺽 마른침을 삼키고 보니 속에 얹힌 야릇한불만이 대번 풀리는것 같았다.

닭알을 뿔아 근영의 손에 들려주려니 필쩍 뼉다.

《그걸 나누면 어떡해. 그래도 처녀가 생각해서 물어준건데. 내가 아무리 눈치가 없기로서니...》

성복은 기분이 좋았다.

식사뒤에 근영이 잇을번 했노라며 쪽지편지를 들려주었다. 로력이 긴장한데 들쭉이나 경비막에 있는게 잘된 일갈지 않아 콩가을에 갔노라며 오히려도 믿고 부탁한다는 청순의 편지였다.

얼리우는셈치고 응하지 않을수 없었다. 대신 근영이를 붙잡아동무할 생각이였다.

근영이 도리질했다.

《나 정말 시간이 없어. 어제도 배구장에 나가 시간을 때워, 낚시질때문에 또 만나질 해서 하루를 잃었는데...》

《여, 할일 다하구 죽은 사람 없대. 여기서 못하면 집에 가서 하구, 총각때 못하면 장가가서 하구... 여기에 일하러 온건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꼭 여기서 해야 될 일이여서 그래.》

《쳇, 누가 과업이라든 준것 같구만.》

《과업은 아니지만 여기 프락포르들에 꼭 해주고 갈려고 그래. 그래서 바빠하는거지.》

《료양생 차근영동무, 거 제발 바쁘다는 소린 그만두지. 혼자만 큰일하는것처럼.》

다시금 《농장프락포르나 끄는 주제에...》 하는 소리가 튀어나오는것을 놀려삼켰다.

근영이 가버린 뒤 생각해보려니 그가 하는 일을 시비하는 자신이 못나게 생각되어 성복은 스스로 얼굴을 붉혔다.

은연중 머리를 든 자각지심으로 나도 근영이처럼 좋은 일을 찾아서 할수 없을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때 성복에게 불쑥 떠오른것이 청순의 편지생각이였다. 사람을 대신하여 산짐승을 쫓는 다른 방법은 없을가. 그러면 낮경비는 물론 밤경비에 동원되는 로력들까지 모두 기본작업에 돌릴수 있으니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수 있지 않는가.

그날부터 성복은 그 문제를 풀어보자고 남모르는 고심을 했다. 하지만 점차 자기 능력으로는 힘들다는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약해지는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오늘도 처녀의 노래는 예대로 울렸다. 다만 그 소리가 멀리에서 아슴푸레 들려오는것이 여느날과 다를뿐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까운 뒤산더기 파원속에서 불러 노래의 구절구절 내용을 정확히 가려들음만치 똑똑히 들려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되어 멀리에서 들려오는지 그 까닭을 알수 없다.

성복은 처녀가 자기를 피하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곧 그럴수 없다고 생각했다. 어제까지도 반주를 해주는데 고맙다고 한 청순이었다.

성복은 처녀가 왜 장소를 바꾸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는지 풀길 없는 의문을 안고 서둘러 기타를 벗겨들었다. 조용히 사이문을 밀고나서며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옆자리의 근영은 아직도 푸푸 입바람을 불며 자고있었다. 머리맡에는 책이며 널쭉각이며 첼판이며 한 잡동사니들이 한구들 널려있었다. 간밤에 늦도록 널판과 첼판따위를 가지고 깎고 자르고 붙이고 하더니 무슨 장난감같은것을 조립해 한쪽에 밀어놓은채 끓어떨어진 근영이다. 연유를 절약할수 있는 가치있는 착상이라면서 종이를 갈아대며 며칠동안 이렇게도 그러보고 저렇게도 그러보며 궁싹거리더니 드디어 합리적인 구조와 치수를 타산해본다고 모형을 만들기 시작한것이였다.

아마 잠을 깨여 성복이 나서는걸 보면 무슨 말이든 한마디 능청스럽게 건넌 근영이다.

대문밖에서 료양생들의 숙소를 돌아보느라 마을을 한바퀴 돌던 소장이 성복의 인사를 받으며 물었다.

《근영이 그 동무 밤에 또 무리하게 책을 보지 않았소?》

《아... 아닙니다. 자기도 나처럼 체중을 늘룬다면서 잠만 잡니다.》

근영이 마음내켜 하는 일이니 좋게 말해주었다.

《그래, 농장을 도와 좋은 일을 해주겠다는건 좋은데 그것두 건강 다음이야.》

당장 대문을 밀고 들어서던 소장이 미덥지 않아하면서도 그대로 가버렸다.

성복은 노래소리를 따라 팔작기로 들어갔다. 처녀는 퍼그나 멀리 들어가있었다. 새벽이슬에 바지가랑이를 화락하니 적시며 들어오고보니 슬그머니 화가 났다. 파란 사출장화를 신은 청순이쪽에 서는 바지에 이슬 한방울 묻히지 않았다.

《오늘은 어떻게 된거야?》

청순이 가랑이에서 물이 줄줄 흐르는 성복의 주체를 보고 무척 미안해했다.

《미안해요. 이런때까지 오지 않아도 되겠는데... 난 이제껏 내 노래의 결함을 동무의 반주로 메꾸

려 했나봐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알고보니 근영이 뭐라 한마디 한때문이였다. 대뜸 짚이는것이 있었다. 그가 벌써 며칠전부터 성복에게 처녀가 부르는 노래를 두고 흥소리를 했기때문이였다.

《성복이, 맹목적으로 반주만 해주지 말고 노래를 제대루 부르게끔 처녀를 도와줘.》

《노래가 어드래서. 내 듣기엔 흠할데 없는 명창인데.》

《물론 잘 불러.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청순동무가 노래가 안고있는 사상감정을 반영하는데보다 그저 소리를 곱게 내는데 더 신경을 쓰는것 같애.》

주제넘은 소리! 소리의 아름다움속에 사상감정의 반영도 있는거다. 제가 뭐라고 일정하게나마 음악전문교육을 받은 날 혼시해.

근영이 고집을 썼다.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니까.》

성복은 근영의 말을 귀등으로 들어넘겼다. 근영이 자신이 인정한것처럼 기타의 화음 하나 짚지 못하는 음악의 문외한이 이러쿵저러쿵 남의 노래소리를 흠한다는게 과연 꼴수에 닿는 일인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줄 알았더니 근영이 정말 처녀에게 자기 소감을 직접 비친것이다.

성복은 청순의 얼굴이 밝지 못하는데 마음이 씩여졌다.

《가고오는 소리에 다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

《아니, 그가 옳게 말했어요.》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사람의 소리를 가지고... 뻘어. 자, 한번 멋지게 불러보오.》

성복은 가슴앞에 부여잡은 기타선을 손가락으로 드르릉— 멋스레 굽었다. 그러다 한음이 빠진데 깜짝 놀랐다.미션 하나가 없었다. 끊어진 형체도 없으니 분명 풀어낸것이였다. 알아보나마나 근영이 한짓이였다. 성복의 얼굴은 삽시에 퍼렇게 질려 경련을 일으킬듯 하였다.

근영이 어제 저녁 자기가 만든 모형에 강쇠줄이 필요하다면서 기타선을 먼저 쓰자고 했다. 어처구니가 없어 단마디로 잘라버렸다.

《뭘 그래? 래일 아침 상점에서 제격 사다 메워줘. 지금 당장 급해서 그래.》

그래도 성복이 양보를 앓자 섭섭하다며 하루밤이 무에 그리 급한지 자꾸 갑자르더니 종시 성복이 잠든 뒤 선을 풀어낸것이라.

성복은 씨근덕거리다 말없이 처녀곁을 뻗다.

약수터에서 돌아오던 로박사가 건승 인사를 하는 그의 얼굴빛에서 무엇을 감촉했는지 물었다.

《무슨 일인가? 언짢은 일이라도 있는가보지.》

《아... 아니, 아무것두 아닙니다.》

구학남박사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지 지나쳐가는 성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성복은 성난 황소마냥 호실문을 밀고 들어갔다. 아직도 자고있는 근영을 깨워 일으켰다. 눈도 바로 뜨지 못하고 쳐다보는 그의 무릎에 기타를 팡가쳤다. 《동무 정말, 이러기야?》

그때에야 근영은 성복이 으르렁거리는 까닭을 알고 미안한 소리를 했다.

《오늘부터 설계를 완성할 계획이었어. 그래서... 정말 미안해.》

성복은 쉬이 분을 삭이지 못했다. 새벽이슬에 폭 젖어가지고 헛걸음을 했으니 꽤심한 생각뿐이었다.

《애들 놀이감같은 제 물건 만드는데만 중요하구 남의 일은 일갈지 않다는거야?》

근영이 너무 급해 중언부언했다.

《그... 그게 아니야. 내가 성공하면 동무도 기뻐하리라 생각했어. 이것 봐. 이젠 됐어. 성공이란 말이야. 오늘래일 도면을 완성하구 동무의 도움을 받자고 했어. 좋은 일을 함께 하고싶었어.》

성복은 그만 할말을 잊어버렸다. 자기가 정말 그의 성공을 두고 기뻐할만큼 그를 관심해왔던가 생각해보았다. 그가 하는 일이 잘되기를 바랐을망정 도움을 준 일은 없었다. 아니, 전혀 관심해본적조차 없었다. 사실 근영이 오늘처럼 잘 흐르는 기악연주에 불협화음을 일으켜 흥겨운 장단을 깨는 것과 같은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그가 인형을 빚는 매미소리를 내는 상관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근영이가 자기 생활의 리듬을 파괴한 데 대해 참을수 없는 분노를 느꼈던 것이다. 근영이 사회와 집단을 위해, 고마운 조국을 위해 누가 시키지 않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데 도움을 줄 대신 작은 기타선 하나때문에 얼굴을 붉혔다. 성복은 자기의 용렬한 행동에 수치를 느껴 얼굴을 붉혔다. 성복은 이 자리에서 근영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 옳은지, 그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것이 옳은지조차 잘 가늠이 가지 않았다. 왕청같은 소리가 나갔다.

《잠을 깨워 미안해. 그러구 가공은 걱정말아.》

그때 누군가 성복의 어깨를 감싸잡았다. 어느사이에 들어왔는지 로박사가 가만히 그를 끌어당겼다. 밖으로 이끌려나오니 소장까지 마당에 보였다.

성복은 자기가 지나치게 흥분하여 소리를 높였다는것을 알았다.

《근영일 리해해주시고 고맙구만.》

로박사는 성복을 공원쪽으로 이끌며 조용히 말했다.

《성복인 언젠가 나에게 여기 와서 산재미, 바다재미 실컷 보구 가면 된다고 했지. 그래, 우린 여기에 일하러 오지 않았어. 근영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그는 자기가 만든 새 농기계의 시운전을 보장하다 허리를 상했어. 농장에서는 발명가인 그를 아껴 여기로 떠밀어보냈어. 농장 프락트로나 끌면

그만인 그가 왜 발명을 하고 대학공부를 하겠어?...》

성복은 내심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근영이 그가 발명가라니? 이제껏 농촌사람이라고 숙본 그가 자기보다 비할바없이 훌륭하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으로 만드는데는 한두사람의 힘만으로 안돼. 근영이나 성복이같은 젊은사람들이 다 나서야 해. 물론 힘든 일이야. 그렇다고 모두 그 일을 외면하면 우린 언제 가도 세상을 굶어보며 살수 없어. 나라의 혜택만 입고 보답을 모른다면 인간이 아니지. 그래서 성복이도 이곳에 와서 메짐승을 쫓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스스로 애쓰는거라고 생각해. 근데 배우지 않고선 칠년출이나 늙이구 방울을 매다는 식의 방법밖엔 생각 못해.》

성복이 청순에게 품고있는 생각을 말했더니 어느사이 그걸 로박사에게 옮긴 것이다. 부끄러웠다.

《오늘날엔 과학기술로 조국을 받드는것이 곧 보답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큰맘먹구 해보라구. 쉽지 않은 일인데. 내 생각엔 짐승을 쫓는데 소리파를 리용해보는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참고해보라구. 자, 여기 앉아 눕자히라구. 난 가겠어.》

로박사는 공원의자에 성복을 앉혀주고는 잠시 정어린 눈으로 지켜보다 숙소쪽으로 걸어갔다.

이번에는 기다린듯 료양소소장이 다가왔다. 무릅없이 옆자리에 눌러앉으며 투덕투덕 성복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은 친구들인데 싸우긴 왜 싸워. 나야 소장의 직분때문에 할수없이 소리를 치구 얼굴을 붉히지만 말이야. ... 내 다 알아. 근영동무가 농장을 도와주고 가겠다고 요즘도 밤을 꿰는걸. 생각같애선 엮고다니고픈 보배들인데. 내가 아무리 만류해도 어쩔수 없구만. 저 박사선생을 봐도 그렇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생일상을 받아안고 어떻게 편히 온탕치료나 받겠는가고 하면서 밤잠을 잊고 고심하는데... 우리가 옆에서 잘 도와드리자구. 자네두 좋은 친구야.》

소장은 말없이 자책에 잠긴 성복에게 눈을 끔쩍해보이고 자리를 일었다.

성복은 이제껏 평범하게 보아온 주위사람들과 자기가 누리는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가슴이 후터워오름을 느꼈다. 생산혁신자라는 집단의 평가에 만족하고 차례진 혜택을 응당한것으로 여겨 누리려고만 한 그였다. 그는 자신조차도 별로 느끼지 못한 자그마한 불편도 헤아려 료양지대로 따듯이 떠밀어준 집단과 동무들 생각도 했다.

누구라없이 고마운 생각이였다.

해질무렵 성복이네 일행은 양식장의 전마선을 타고 룡로로는 발붙이기 힘든 도래굽이로 나갔다. 이곳에 처음 와보는 구학남박사와 근영은 해칠보의 절묘한 경치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 이런, 성복동무가 아니었다면 이 좋은 경치를 영 못 볼번 했구만.》

사실 로박사네가 바다로 나온것은 성복의 덕이 아니라 소장의 노력때문이었다. 말로는 암만해도 로박사를 쉬울수 없다는것을 안 소장은 아예 잡도리를 달리했다. 바다가에 배까지 준비시켜놓고 아침부터 박사의 방에 틀고있었다.

《이제껏 박사선생님 체면을 봐서 양보만 해왔는데 이젠 나도 이겨야겠습니다. 소장으로 말입니다. 더는 미룬다는 소리를 마십시오. 오늘은 무조건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하 이런, 사정 좀 봐달라니까. 하루이틀이면 될것 같은데...》

로박사가 사정을 하는데 소장은 그의 무릎앞에 더 바짝 다가앉으며 도리질했다.

《내 이래봐두 검질기기가 소힘줄이상입니다. 도회지너자인 우리 처가 어떻게 여기 황진에 오게 됐는지 모르지요? 내 신발 댕컬레를 갈아대면서 다닌끝에 데려왔습니다. 우리 장인의 고집이 또 누구 다음이라면 섭섭해할 정도였는데 나한테만은 못견뎠습니다. 문돌쩌귀가 물러나게 되니까 나중에 손들고 하는 소리가 <이놈의 고집때문에 사위가 고생을 했지. 그래두 마음은 그렇지 않아. 사실 자넨 보내놓고는 다시 오지 않을가봐 겁이 났더라니까. > 이러지 않겠습니까.》

소장은 없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구학남박사와 씨름을 했다. 사람이 좋아무르기가 애호박속같다는 소리도 더러 들어오는 소장이 잡도리를 해도 단단히 한것이였다. 도시에서 농촌에 출가온 우리 시대 녀인들 일반이 그러하듯 그의 처 역시 오늘의 새 풍조로 된 《도시처녀 시집와요》의 선물을 타고이곳에 온 녀자였다.

《허허, 소장선생, 고집소린 하지도 마시오. 난 그저 시간이 귀해 그러는거지.》

《글쎄 바다에 나가 좋은 착상이 떠오를지 알게 됩니까.》

그렇게 한것을 밀고당기고 하더니 소장은 종내 로박사를 바다가에 밀어보냈다. 그래놓고는 미라한데가 있는지 배머리에까지 따라나와 거들어주며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괜히 억지를 부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하고 걱정했다.

그러자 로박사쪽에서 되려 언제 고집했더니 싫게 《왜, 생활재미두 봐야지. 생활을 모르구 사업만 사업이라 하는것두 잘된 일이 아니야. 물론 생활을 즐기지만 하면 안되지만 생활의 재미를 알아야 사업의욕도 커지고 성과도 큰 법이야.》하며

좋아했다.

《선생님, 제가 멋진 곳을찾아냈지요?》

로박사가 팔을 걷고 나서니 성복이쪽에서도 흥이 났다. 새 대륙을 발견한 탐험가마냥 우쭐해서 이곳 사람들의 안내로 알게 된것을 자기가 개척한듯이 자랑했다. 근영이 뒤에 떨어져 꾸물거리는 데 화가 나 그럼 눈뿌리 빠질 때까지 구경하라지 했다. 로박사만 이끌고 너래바위에 나섰다.

《이제부터 고기가 잘 물릴 시간입니다. 여긴 수심이 깊어 발치에 떨어두 10메터이상 들어가니 줄을 많이 풀어줘야 합니다.》

이것저것 일깨워주고 먼저 낚시를 던져넣었다. 낚시대를 무릎에 끼우고 불편한대로 손이 설어하는 로박사를 도왔다. 별안간 줄을 잡아채는 느낌과 함께 대가 무릎에서 한뼘이나 쑥 뿔어나갔다.

《에쿠! 벌써 물렸어요.》

묵직해진 줄을 당겨올리니 첫마수절이에 퍼그나 큰 참치가 걸려 퍼들쭈커렸다.

《저런, 솜씨가 괜치 않군!》

로박사도 늙은이답지 않게 덤벼쳤다. 저편에서 꾸물거리던 근영이도 달려왔다. 셋은 연방 고기를 낚아올렸다. 그런 뒤엔 성수가 나서 떠들었다. 어종도 다양하고 크기도 각각이였다. 이면수, 참치, 우레기, 횃대어, 열기...

구학남박사가 감개가 무량해서 말했다.

《료양이 좋긴 좋구만. 일생 낚시질이란 말도 모르고 살아온 내가 고기를 다 낚아보구.》

보래 이런 생활을 싫어할 사람이 없는듯 했다.

《이제부터라도 재미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성복은 자기가 돕겠노라고 했다.

《고맙긴 하지만... 그랬으면 어복 좋겠나만 나야 연구사가 아닌가. 아까운 시간을 망탕 그렇게만 보낼수 없지. 할일은 많은데 나이는 벌써 황혼기에 이르렀구만. ...》

어느새 해가 졌는지 바다위에 휘영청 둥근달이 떠올랐다. 희푸른 달빛이었지만 시서늘한 대기만 아니라면 해가 진것도 모르게 밝았다.

시간이 갈수록 낚아올리는 회수가 많아지는데 흥이 난 성복이와 근영이는 그만 돌아갈념도 잊었다. 로박사쪽에서 먼저 몸을 일으켰다. 자기는 이만 재미를 봤으면 만족하다면서 주섬주섬 낚시도구를 걸었다.

성복은 고기가 물리는 한 어느때까지고 자리를 뜨고싶지 않았으나 구학남박사쪽을 보고는 자기도 그만 낚시를 끌어올렸다. 근영이에게 이르니 손을 떼기가 아쉬운 모양 《조금만 기다려줘.》했다.

《고기가 한창 잘 무는데 왜 벌써 걸나?》

바람을 피해 바위흠타기에 앉은 로박사가 성복을 나무랐다.

《날 생각해서 그러는것 같은데 일없어. 난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느라 그러는거야. 그놈의 고기들이

자꾸 신경을 자극해서 뭘 좀 생각해볼수가 있어
야지. 그래서 걷고말았네.》

했으나 성복은 추운듯 쭈그리고앉은 로박사의
모습이 눈에 걸려 제 재미만 재미라고 할수 없었
다. 도구를 걷고 다래끼를 들어보니 여간 무겁지
않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흡족했다. 배전에 짐
을 들여다놓고 근영이쪽을 보니 아직 낚시대를
쳐든채로 서있다. 버럭 소리쳤다.

《왜 꾸물거려!》

울가망이 된 소리가 뜨직뜨직 날아왔다.

《낚시가 걸려서 그래.》

로박사가 근영이쪽으로 바빠 다가가며 일렀다.

《너무 덤비지 말라구. 술술 낚시대를 돌려보면
서… 그렇지. 안되나? 돌에 끼인가보군. 그럼 할수
없지. 줄을 잡아 지그시 당겨보라구.》

근영이 줄을 끌어올리는 모양을 보려니 별로
갑자른다.

《까짓거 버리라. 재미를 다 본 막판인데.》

《아니야. 돌에 끼였으면 벌써 끊어지고도 남겠
는데 뭔가끔직한게 걸려오르는것 같애.》

《웃기지 말아.》

《아니, 정말이야.》

열발이나 되는 줄을 인내성있게 끌어올리던 근
영이 별안간 다급한 소리를 질러댔다.

《선생님, 이… 이게 뭡니까?》

엇겨주춤 바다속을 들여다보던 구학남박사가
또 놀랜 소리를 냈다.

《이거 문어가 아닌가?!》

배전에 흥심없이 서있던 성복이 헤덤벼쳤다.

《가만, 조금만 기다려.》

크고작은 바위들을 성큼성큼 건너뛰었다. 그러
다 멈춰섰다. 바다가에 다니며 눈에 익힌게 밀천
이 되어 이런 때 무엇이 필요하다는것을 알았던
것이다. 다시 돌아와 지가리를 찾아들고 바빠 뛰
어갔다.

과연 문어 한마리가 수면에 떠올라 긴 다리들
을 흔드적거리고있었다. 몸을 뒤집어 활짝 핀 꽃
을 연상시켰는데 사방 늘어뜨린 다리를 흔들어대
는 통에 굉장히 커보였다.

다짜고짜 지가리를 들이미는 성복을 로박사가
황급히 막았다.

《가만! 덤비지 말라구.》

로박사가 웬일인지 오금까지 꺾고앉아 물속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자, 근영이, 천천히 줄을 당겨올리라구.》

《당장 끊어지겠는데.》

근영이 겁먹은 소리를 했다.

그래도 로박사는 그냥 올리라고 억지를 부렸
다.

《아, 심장이 그리 작아서야. 내 꼭 필요해서 그
러니 큰걸 생각해달라구.》

그때에야 성복이와 근영은 구학남박사가 단순

한 흥미때문에 그러는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근영이 용기를 냈다. 줄이 금시 튀어날듯이 팽
팽히 켜기우고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문어의
몸통이에서 긴 다리들이 제멋대로 허우적거렸다.

로박사가 그 모양을 진지한 눈길로 지켜보았
다.

《그렇지! 그래그래, 조금 더!》

그만에야 줄이 툭 끊어져나갔다.

근영이 너무 급해 허둥거렸다.

《아이쿠! 내 문어!》

근영이 물속으로 달아나려는 문어를 놓고 어부
작인데 그옆의 로박사는 무릎을 치며 좋아했다.

《좋아! 그거야, 그거!》

성복이 지가리로 달아나는 문어를 꺾어올렸다.

도래굽이에 환성이 터져올랐다. 성복이와 근영
이 세키로그램 실히 되는 문어를 놓고 벌쭉거릴
때 구학남박사는 수첩장에 무엇인가 적어넣으며
무엇이 그리 좋은지 저혼자 곁곁거렸다.

《정말 큰 소득이야. 근영인 문어를 잡고 난 막
힌 고리를 풀고… 이게 바로 생활의 재미고 사는
멋이지. 안 그런가? 돌아가면 소장선생께도 단단
히 인사를 해야겠어.》

성복은 로박사의 다래끼를 들쳐메며 깨우쳐지
는바가 있어 한마디 했다.

《저만 소득이 없어요.》

《욕심두, 그만큼 잡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랄게
있나?》

서글프게까지 들리는 성복의 소리에 로박사가
은근한 말로 위안했다.

《아니, 전 고기잡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껏 무의미하게 보냈다는 소립니다.》

《왜? 청순동무의 노래반주를 해준것만두 큰거
지. 이제 두고보오. 그가 꼭 입선하는걸… 그리구
내 보기엔 성복동무도 여기 칠보산에 와서 달라
졌소. 키가 컸다고 할가.》

다래끼가 무거워 조금 뒤에 떨어져 한쪽어깨를
잔뜩 삐고 따라오던 근영이 참견했다.

《이제 부속품가공을 성복동무가 다 말아야 하
는데 그 뭉이 대단하지요.》

《그래, 선반공의 솜씨를 보일 때가 왔구만.》

배는 도래굽이를 떠났다.

《정말 좋구만. 자, 노래나 부르라구.》

근영이 선창했다. 앞부분이 없는 후렴구였다.
그야말로 굳어진 입버릇인데 자기는 그 후렴구가
제일 좋다는것이였다.

성복이 역시 공감이었다. 그렇게 불러도 노래가
주는 감흥이 충분했기때문이었다.

성복이 노를 박으며 흥얼거리고 로박사도 석심
한 소리를 보냈다.

…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

소리는 비록 끊지 않아도 노래의 가락가락에는 자기들이 누리는 생활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만족이 진하게 비껴있었다.

6

누군가 조심스럽게 가슴을 흔들어 성복은 잠을 깨었다.

창유리로 해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잠에 깊이 들자면 창가림만으로는 안된다며 근영이 담요까지 쳐 암실처럼 만들어놓고 나갔는데 어느사이에 그것을 다 걸어놓았다.

청순의 아버지 전종해가 내려다보고있었다. 무척 미안스러운 표정이다. 단잠을 깨울 때는 분명 일이 있어 온것인데 말은 못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잠을 깨워 미안하네. 사실 우리 딸의 노래반주가 필요해서...》

오늘은 농장휴식일이다. 가을걷이전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는 휴식이라 농장에서는 배구와 같은 간단한 체육경기를 조직했다. 그것도 료양기간이모저모로 농장일을 도와준 료양생들과 함께 즐긴다고 하여 모두가 명절기분이었다. 여기에 유독 성복이만이 빠졌다. 며칠째 그는 근영이의 기술혁신가공품을 맡아 야간작업을 하고있는데 리일군들이 만류하는데도 가공일정이 너무 긴장하여 지난밤에도 가공작업을 했던것이다.

아마 거기서 처녀가 노래를 부르게 된 모양이다.

성복은 눈이 짙짙하고 머리가 무거워 세면장에 나가 푸닥푸닥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나서야 옷을 주어입었다. 《자, 머리가림도 바르고...》 옆에서 전종해가 벌스레 잔소리를 해가며 성복의 차림에 신경을 썼다.

공원에 나오니 성복이 예견했던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아침에 이곳 황진사람들과 료양생들의 행복한 생활을 화면에 담아 소개해주겠다고 평양에서 촬영가들이 도착했던것이다.

배구장을 중심으로 널린 농장원들과 료양생들이 흡사 꽃밭을 이룬것 같았다. 나무들사이로 언뜻언뜻 촬영기를 멘 사람들 몇이 오락가락하는데 그 뒤로는 조무래기들이 우르르 줄을 쳐서 물어다니고있었다.

공원입구에서 농장처녀 몇이 지나치는 성복을 두고 뭐라 소곤거렸다. 총각이니 의례 처녀들의 화제거리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의 선반가공솜씨가 대단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더 그러는 것이었다.

며칠새 그의 몸값이 쑥 올라갔다. 근영이 머리를 싸매고 도면을 완성하느라 밤샘을 할 때엔 그 밖에 없는듯이 말하던 구학남박사까지 인식이 달

라져 《재간둥이를 몰라왔군.》했다.

그렇만도 했다. 선반기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하던 가공품을 성복이 가공해냈던것이다. 성복이로서는 전문설비의 도움이 없이 선반기만 가지고 하려니 갑절 품을 들여야했고 머리를 써야 했다. 대신 평가는 그에게 고스란히 꽃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농장일을 도와준다고 리일군들 관심 또한 대단했다.

그뿐인가. 뭐니뭐니해도 청순이 살갑게 나오는데 제일 반가웠다. 이제껏 기타반주덕을 크게 입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가까이 다가서지 못해 몸살을 앓는 성복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간격을 두던 처녀였다. 그간 옆에서까지 눈치를 알아 뚝뚝한 소리들이 돌아가는데도 당자인 청순이쪽에 서만은 모르쇠를 하고 인형처럼 말뚫한 눈으로 웬일이나 해서 말없이 속이 탔던 성복이었다. 그런 처녀가 일변해 작업장에까지 찾아왔다.

지난밤에는 농마로 만든 국수까지 들고나왔다. 농장전반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 밤시간을 리용하는 성복이 수고한다며 당비서가 가져다주라고 했다는것이였다. 그 씹농마국수가 정말 별맛이였다. 그런데 오늘 새벽 일을 마치고 들어온 성복을 찾아와 로박사가 귀뜸해주는 말이 처녀가 어머니에게 성화를 먹여 누른것이라고 했다. 요긴하게 쓸데가 있어 깊숙이 껴둔것을 꺼냈다는 소리에 성복은 가슴이 뭉클했다.

성복은 이제 와서 낚시질이니, 밤청대니 하는 재미를 보지 못해도 좋았다. 재미재미해도 사람들의 관심속에 받들려 사는 재미만 한게 없다는것을 재삼 느꼈다. 근영에게 뒤지긴 했어도 이제부터라도 대학공부를 하고 발명도 하리라 했다. 당장은 못해도 이제 공장에 돌아가면 꼭 소리파로 메집승을 쫓는 기구를 창안해서 처녀에게 보내줄 생각이였다. 그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성복은 기어이 성공하리라 결심했다.

지나치는 곳마다에서 사람들이 다정히 인사를 보냈다. 말 몇마디 건네는 축들도 있었고 눈인사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

엇저녁 야간작업에 나설 때까지만 해도 이 흥겨운 놀이판에서 빠지게 되는것으로 하여 끈끈히 매달리던 아쉬움이였으나 지금은 기꺼운 마음뿐이었다. 자기도 무엇인가 바쳤다는 스스로의 자부가가슴을 부풀게 했고 또 그를 떳떳하게 만들었다.

부지중 근영이가 한 말이 떠올랐다. 어떻게 되어 발명을 하게 되였는가하는 성복의 물음에 그는 《우린 자기 말은 일, 시키는 일에 만족하면 안된다고 생각해. 그건 그저 산다는 의미로 밖엔 안되니까. 공민이면 누구나 이 땅에 자기의 창조물을 남겨야 한다고 봐. 그것이 비록 사소한것일지라도 말이야. 그게 바로 애국이라고 생각했어. 또

값있는 인생이고...》하고 말했다.

그때 성복은 근영의 이야기가 로박사의 말과 꼭같은데 놀랐다. 그 말의 의미가 새삼스레 가슴에 마쳐왔다.

이제는 배구와 윗놀이, 장기를 비롯한 겨루기경기들이 끝난 뒤였다.

곧 오락회가 벌어졌다. 록음기가 쿵쾅거리고 노래가 울리고 춤가락이 펼쳐졌다. 촬영가들이 부지런히 위치를 바뀌어가며 여러 장면들을 찍었다. 노상 웃고있는것을 보니 계획한 일이 잘되어 흡족한 모양이었다.

제일 이채로운것은 역시 청순의 독창이었다.

리에서는 다른 종목들이 놀리우는것을 고려해 그의 노래를 제일 마감순서로 정했다. 하늘을 날아예는 종다리마냥 노랑치마에 빨간 고름을 단 반희장저고리를 차려입은 청순이 나서고 그뒤로 기타를 멘 성복이 따르는데 《히야!》하는 탄성이 터져올랐다.

전종해가 불만한 눈으로 촬영가들쪽을 흘려보았다. 욕심같아선 딸의 모습을 한 장면도 놓치지 말고 다 찍어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이 불만 한것, 찍을만 한것을 다 찍었다고 생각하는 모양 지금 촬영을 하지 않았기때문이었다.

옆에서 소장이 언짢은 형의 속을 모르고다가와 흥튼 소리를 했다.

《형님, 어떻습니까? 천상배필같은게...》

《어떻긴, 남의 등지에 들어 볼장을 다 보고 달아나버리는 빠꾸기같은게 아직...》

정신이 판데 가있는지라 형이 눈은 딸쪽에 박고 통명스레 대꾸했다.

《아니, 형님, 그럼 제집마당에 굴러들어온 호박을 차던지시려우?》

리의 딸부자라는 사람이 곁에서 그 소리를 새겨듣고 깨끼었다.

《그 빠꾸기가 싫으면 내 집 마당으로 쫓아주.》

전종해가 흘금 돌아보고 중얼거렸다.

《글쎄...》

《왜 싫수?》

캐여묻는 소리에 애매한 소리를 했다.

《제 먹긴 싫구 남 주긴 아깝구...》

주변에서 웃음을 참느라 입을 가리고 키득거렸다.

청순의 노래를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방심한탓에 순간을 놓친 촬영가들이 너무 아쉬워 다시 시작해달라고 사정했던것이다.

노래가 울렸다.

...

천리마 달리며 변영하는 내 나라

우리 모두 화목하게 살아가는 곳

...

모두가 숨죽은듯 해졌다. 사람들은 물론 소슬한 가을바람에 술렁거리던 나무잎새들마저 삼가 숙연해지는데 했다. 주위뿐아니라 노래가 울려가는 어데까지고 그 절절한 서정의 세계에 폭 젖어드는듯 싶었다.

전종해의 입이 귀밑까지 췌졌다. 딸의 노래와 함께 성복의 기타반주 또한 기막혔다. 동생의 손을 꼭 감싸잡고 감동해서 말했다.

《그래그래! 정말 멋있네. 동생, 사실 저런 짝을 구하기두 쉽지 않지?》

《그렇잖구요.》

《그런데 우리 청순이 세상에 없는 이 무릉도원을 떠나자고 할가?》

《그러게나 말입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올랐다.

근영이 성복이와 처너쪽으로 다가오며 주먹을 흔들었다.

《정말 잘했어! 기막혀!》

오락회가 끝난 뒤 사진들을 찍었다.

《어느걸 배경으로 할가?》

서로가 여기가 어떻니, 저기가 좋겠다거니 하는 속에 근영이 약속터로 가는쪽 산허리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한자의 크기가 집채만 하게 만들어세운 표어가 붙어있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였다.

홀림체로 약간 비껴쓴 글들이 흡사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며 흘러가는 농악무대령을 연상케 했다. 보기만 해도 저절로 흥겨움이 살아나는 글체였다.

모두의 눈길이 약속한듯 그쪽으로 향해졌다. 이 순간 웬일인지 삽시에 주위가 조용해졌다. 서로가 말없이 글을 읽었다. 이제껏 레사롭게 보아온 글이었고 노래였다.

하건만 그 노래의 가락가락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가. 세상에 다시 없는 자랑높은 내 조국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노래의 가락가락을 이루어 그리도 궁지에 넘치고 자부높이 울리는것 아니라. 하여 이 고마운 조국에 바치는 우리 삶의 노래도 그토록 진정에 넘치고 열렬한것이거늘!

근영이 또 버릇대로 흥얼거렸다. 성복이도 로박사도 아니,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그 흥얼거림을 들었고 맘속으로 따라불렀다.

김홍균

대안의 발자국

태천 안변 원산 희천...
하나 둘 발전소마다 떠나보낸
발전기들을 그려보면
마치 대안이 걸어온 발자국처럼
내 눈앞에 어려온다

흘러간 년대마다 새겨진 발자국
삼수와 희천발전소로 다시 이어져
전기를 일구는 발전기의 동음소리
조국강산에 메아리쳐
내 가슴에 울려오는듯싶구나

수령님 대안땅에 남기신 그 자욱따라
장군님 꽃피우신 CNC 화의 보폭따라
인류과학의 최첨단을 향해 질주하는
대안의 발자국

그 발자국소리 들으며
장군님 찾아오신 그날에

여기 오니 힘이 난다고 대단하다고
걸어온 자국자국마다
조국의 번영위한 위훈으로 빛내주신
아버이 그 사랑 그 믿음이어

장군님 따르며 열과 빛을 내는 그 발자국
수도의 거리와 창가마다 웃음을 주고
선경마을 집집마다 노래를 주며
이 땅우에 빛을 뿌리는 별로 새겨지려니

아 대안의 발자국
가는 길 어려워도 서지 말고 달리자
장군님 쥐여주신 최첨단의 봉화들고
세기를 이끌며 이 땅에 남기자
선군조국의 발자국이여

심재훈

비료변은 쌀변

남흥에 비료 가지러 간 자동차를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며
해저무는 벌을 뜯음을 안하는 분조원들

우리 식으로 만들었다는 비료
보고싶은 생각들만 새록새록
읍으로 뻗은 동구길은
심평 좋게 누워만 있으니

논물관리공아바이
그만에야 움쭉 일어섰네
마중가야지 장군님 보내주신 귀한 비료
앉아서야 외람되게 어찌 받으랴

히이히이 동구길을 걷던 아바이걸음
그만에야 반달음 되였네
이때라 오리재고개에서 자동차소리
온다 비료차가 온다
마주 달려가는 아바이

글쎄 젊은이들도 못 따를
그런 힘 어디서 솟구쳤는지
적재함에 훌쩍 뛰어올라
비료 한줌 움켜드네 볼에 대여보네

—이게 정말
우리 식으로 만든 비료란 말인가

아 변이 나는 내 나라에
날에 날마다 변이 나누나
비료변이 났으니 쌀변도 나리라

아무렴 우리 장군님 보내주신 주체비료
포전마다 듬뿍듬뿍 뿌려야지
땅이 소리치게 됐지 배미마다 쌀이 넘치여
우리네 열두삼천리밭이 꺼지게 됐지

박상민

평양의 밤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밤늦도록 밀물처럼 그들 먹이 차오르기만 하는 마음속흥분을 좀처럼 가라앉힐수 없었다.

며칠째 나와 함께 평양의 황홀한 야경을 돌아보며 연방 감탄을 터치던 어느 한 서유럽나라의 건축가.

오래도록 차를 세우고 인민대학습당쪽에서 강 건너 주체사상탑의 봉화가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우리 평양의 밤하늘을 이윽히 바라보던 그가 불현듯 나의 손을 힘있게 더위잡으며 소리높이 웨치던 격정의 말마디들이 그냥 나의 가슴을 광광 울려주기때문이라. ...

《정말 좋은 밤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평양의 밤입니다. 내 세상에 유명하다는 도시들의 야경은 거의다 보아왔지만 인류의 밝은 미래를 내다볼수 있는 밤은 오직 여기 평양의 밤뿐입니다.》

끝없이 크게크게 증폭되어 울리는 이 말!

아, 인류의 밝은 미래를 내다볼수 있는 밤!

나의 눈앞으로 어느새 희한한 평양의 불장식세계가 끝간데없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평양대극장과 국립연극극장의 품위있는 불장식이며 대동강에 등실 뜬 무지개런듯 대동교와 옥류교의 칠색령롱한 불장식들, 수많은 고층살림집들의 특색있는 불꽃바다...

평양산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평양제1백화점, 과학자려관, 창광원 등 이름있는 건축물들로부터 자그마한 건물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밤모습을 희한하게 개변한 평양의 불세계...

네온, 레드배합에 의한 불장식의 조형화, 예술화를 훌륭히 실현하여 종전보다 훨씬 폭이 넓고 깊이가 있으면서도 변화무쌍하고 경쾌한 느낌을 안겨주는 평양의 오늘의 야경은 정녕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잠들줄 모르는 평양의 밤, 평양의 희한한 불빛을 이 마음속에 더욱 파스히 안아볼수록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 쉬임없이 헤쳐가시는 선군장정의 그 길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을 야전차불빛이 눈앞에 삼삼히 어려온다.

불장식에 사용할 색깔 하나도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미감에 맞게 선택하도록 구체적이고도 세심한 지도를 주시여 최상의 수준으로 완성하여주시는 위대한 스승의 현명하고도 자애로운 그 품이 못건디게 그리워진다. ...

이 땅우에 인류에게 덮쳐드는 자연의 어둠을 밝히려 전등과 도시의 불장식이 생겨난지도 어언 백수십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그 불빛이 정녕 인류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었던가?

밤의 장막이 덮쳐들기 바쁘게 거리마다에서 네

온등불빛은 명멸했건만 요지경속같은 그 불빛아래서 인류는 과연 무엇을 보아왔던가?

물과 불처럼, 낮과 밤처럼 명명백백히 갈라진 부익부, 빈익빈의 세계를 보아왔으며 그속에서 견잡을수없이 타락해가는 인류의 넋만을 쓰라리게 보아왔다.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부화방탕과 패륜패덕이 란무하고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는 염세와 비애의 한숨소리만을 들어왔다.

그러나 평양의 불밝은 밤은 인류의 그 모든 어둠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낮은 낮대로 인민대중의 보람찬 생활이 활기와 량만에 차넘쳐 흘러가고 밤이면 밤대로 인간의 삶에 끝없는 정열과 약동을 안겨주는 평양의 이밤!

보면 볼수록 황홀한 평양의 불장식들은 진정한 인간이, 자주적인 인류가 누려야 할 밤의 참된 정서와 의미를 취할듯이 한껏 안겨주고있다.

아울러 더할나위없이 특색있고 이채로운 평양의 밤 불장식풍경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누리려 하는 강성대국의 문명이 어떤 것인가를 온세상에 소리높이 노래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따라 선군의 한길로 곧바로 달려갈 우리 인민이 이제 더 우뚝 오르게 될 승리의 령마루를 것처럼 눈부시게 비쳐주고있는것이다. ...

그렇다!

진정 우리 평양의 야경, 선명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불빛은 그대로 장군님 인민에게 안겨주신 승리와 량만, 희망의 불빛이며 대를 이어 더욱 빛내갈 사랑과 행복, 신념의 불빛이다.

나의 눈앞으로는 평양의 불장식빛발에 휩싸여 더욱 밝게, 더욱 눈부시게 펼쳐져가는 온 나라 곳곳이 한쪽의 그림처럼 툭툭히도 보여왔다.

더더욱 부강번영할 내 조국의 래일이 대낮처럼 환하게 보여왔다. ...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어제켰다.

불나래를 한껏 펼친 천리마가 쏜살같이 날고있었다.

네굽을 모두어 안고 질풍같이 밤을 박차며 더 높이, 더 빨리!

아, 나는 순결하게, 정갈하게 아름다운 평양의 한밤에서 진정 인류의 리상이 활짝 꽃피날 래일의 한낮을, 해빛찬란한 미래의 한낮을 보았다. ...

세계류행의 도시에서 산다는, 서유럽나라의 그 건축가는 비로소 진실을 보았던것이였다. 정의와 략관을 새겨안았던것이였다.

시인의 심장이 불라면 시대의 서정은 뜨겁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의 심장이 불라올라 생활에 대한 정서적 체험이 깊어지고 사색의 세계가 비상히 높아져야 시문학에서 끊임없는 변혁을 일으키고 명시, 명가사 풍년을 안아올수있다.》

생각할수록 벅찬 환희의 순간들이, 우리들의 가슴을 세차게 들먹이게 하는 경사들이 주체 99(2010)년 온 한해를 빛나게 장식하며 우리들의 눈앞을 흘러왔다.

얼마나 뜻깊은 지난 한해였던가.

지난해 우리 시인들은 시 《우리 수령님 축복하신다》(김만영 작, 《조선문학》잡지 11호), 시 《추대》(김남호 작, 같은 호), 시 《우리에게 당이 있다!》(리연희 작, 같은 호) 등의 작품들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민족의 뚫어오르는 흥분과 더 밝고 창창한 미래를 안아보는 감격을 열정적으로 힘껏 토로하고 있다.

시들에서 넘쳐나는 강렬한 열정과 걱정애 넘친 정서적토로는 시인들의 심장에서 솟구치며 타오르는 뜨거운 피줄기이고 선군시대가 온 우주에 대고 소리높이 부르는 거창한 시대찬가이다.

시들에서 정서적열정은 매우 높은 세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심장에 더운 열기를 더해주고있으며 그 발견적인 폭과 넓이는 우리 시문학의 감화력을 더욱 높여주고있다.

높은 열정과 힘찬 기백이 차넘치고 깊은 체험과 정서적발견이 느껴지는 시들의 서정세계는 우리들로 하여금 주체99(2010)년 시문학의 성과를 긍지높이 돌이켜보게 한다.

시 《우리 수령님 축복하신다》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

지심을 뚫고
마침내 용암이 솟구쳤는가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며
일제히 높이 드는 붉은 대표층
터치는 만세소리 만세소리!

...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게된 감격과 기쁨은 하늘의 높이에나 땅의 넓이에도 비길수 없는 커다란 긍지였고 영광이었다. 또 그것은 위대한 시대가 우리 민족에게 안겨준 뜨거운 축복이였으며 선군조선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약속이였다. 그러기에 시인은 그 붉은 대표층은 대표들만이 아니라 백두의 설한봉과 전화의 불길속을 헤쳐온 항일의 로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조국의 한치 땅을 목숨으로 지켜선 천리방선의 병사들과 강성대국건설에 산악같이 일떠선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이 나라 천만군민이, 이 땅의 선군세월이 높이 들었다고 격정에 넘쳐 토로하고 있다.

시의 글줄마다에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가, 민족의 높뛰는 숨결이 그대로 숨배여있고 그이가 계심으로 하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야만한다는 불굴의 확신이 힘차게 나래치고있다. 우리 수령님 축복속에, 만민의 끝없는 칭송과 흠모속에서 김정일장군 만세의 메아리가 힘차게 울려퍼진다는 시의 강렬한 서정세계는 시인의 높뛰는 심장박동을 싣고 시대를 후덥게 끓이며 온 우주를 진동시킨다.

시 《추대》 역시 높뛰는 열정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게 된 군대와 인민의 무한한 감격과 기쁨을 뜨거운 시대적서정으로 뽐아올리고있다. 앞의 시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여 더욱 밝게 빛날 민족의 긍지와 기쁨을 노래하였다면 이 시에서는 우리 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갈 민족의 맹세, 시대의 맹세가 격조높이 토로되고있다.

...

우리 장군님 한평생 걸으시는
열화같은 애국애민의 그 자욱
만나주신 천만병사 용사가 되고
품어안으신 천만인민 애국자되여
이 땅우에 주렁지우는 천만복

더욱 푸르러지는 산밭이 말한다
더욱 기름져가는 들이 노래한다

더욱 환해지는 인민의 모습이 웨친다
—우리는 어제보다 더 높이 더 충직하게
김정일동지를 받들리라!

...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령수로 모시여 우리 군대, 인민이 이룩할수 있었던 그 모든 승리와 영광들이 오늘의 시대에 말해주는 진리가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갖은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조선혁명을 승리의 밝은 길로 이끌어오신분, 모든것을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바치시며 머나먼 혁명의 길에서 쪽잡과 쫓기밥의 눈물겨운 전설도 남기시며 낮과 밤을 모르신분, 정녕 민족의 태양이시고 불세출의 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었기에 우리는 민족최강의 국력이 역년에 뻗친 선군조선에 두메와 별방 할것없이 그림같은 선경의 거리와 마을을 일떠세울수 있었다고...

진정 그이를 따름은 승리와 영광의 길이요, 그의 령도를 떠나서는 곧 파멸과 망국이라는 시대의 진리를 심장에 새기고 뼈에 새겨온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하여 시인은 시대의 절절한 념원을 담아, 시대의 맹세를 담아 우리의 **김정일**동지는 인민의 내 나라를 더욱 빛내주고 우리의 푸른 하늘을 더 푸르게 펼쳐주셨을뿐아니라 인민의 축원을 한몸에 지니신 **김일성**조선의 무궁한 미래이며 우리의 영원한 령도자이시라고 격정에 넘쳐 토로하고있다.

시에서 높뛰는 힘찬 열정, 그것은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흥분 그리고 그 양양된 감정을 확 터뜨릴 때의 끝없는 환희와 기쁨인것으로 하여 우리의 심장도 힘차게 울려준다.

시인의 불타는 심장이 발산하는 뜨거운 열을 받아 토로되는 시의 서정은 시 《우리에게 당이 있다!》의 구절구절에서도 격조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시에서는 어린시절 엄마의 품을 찾듯 때없이 찾고 부르게 되는 조선로동당의 한 성원이 되어 오늘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게 되는 커다란 기쁨과 감격을 뜨거운 시대적서정으로 웅심깊게 노래하고있다.

작품에서는 당이 안겨준 붉은 당원증, 바로 그 커다란 믿음이 있었기에 폭풍에도 나래가 꺾이지 않는 수리개가 되었고 천만시련도 웃으며 헤치며 래일을 향해 신심드높이 달려가는 신념의 강자가 된 서정적주인공의 강렬한 정서적체험세계를 통하여 승리와 영광의 표대인 우리 당은 곧 어릴적 엄마의 품보다 더 따스하고 자애로우며

한없이 위대한 품이라고 노래하고있다.

이것은 그대로 당은 곧 우리 장군님이시고 우리 장군님은 위대한 우리 당이라는 시의 정서적주장을 터치기 위한 서정적주인공의 불타는 심장의 맥박으로 되어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

아, 위대한 우리 당

김정일동지

그이를 우리러 뜨거운 환희의 가슴들

궁지와 자부로 높뛰는 이 심장

온 누리를 향해웨치여라

—우리에게 당이 있다!

우리에게 위대한 장군님이 계신다!

승화된 시적열정속에서 체험된 시대적진리,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당,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라는 확신이 격조높이 노래되고있다.

그렇다. 당은 곧 우리 장군님이시다. 오직 승리와 영광만을 알고 오직 전진과 공격만을 알며 무한한 인민사랑과 이 세상 가장 광휘로운 빛발과 예지로 사회주의강성대국에로의 밝은 앞날을 비치여주는 우리 당은 바로 이 땅의 선군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이것이 붉은 대표증과 함께 전체 인민이 심장으로 높이 든 우리의 신념이고 시대의 철리이다.

시에서는 이러한 체험이 정서적으로 고조된 시적열정속에서 승화되는 서정의 물결을 타고 발견적으로 노래되고있다.

높뛰는 심장과 불타는 열정으로 시대의 기쁨, 선군시대의 크나큰 궁지를 노래한 작품들은 천만 군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며주며 주체99(2010)년의 시문단을 빛나게 장식하고있다.

우리의 시인들은 이외에도 지난해에 다양한 주제의 시작품들을 창작하여 자기들의 높뛰는 숨결과 불타는 시대적열정을 잘 보여주고있다.

시대의 맥박이 느껴지고 시대정신이 내려치는 작품들이 다가오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더 많은 명작창작으로 맞이하기 위한 우리 시인들의 불타는 열정과 높뛰는 심장의 고동소리를 반영하여 왕성하게 창작되었다.

우선 시 《우리에게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신다》(차승수 작, 1호), 시 《유정한 뼈꼭새소리》, 《개울물소리...》(리덕진작, 3호), 시 《금수산기념궁전의 고요》(김윤걸 작, 7호) 등 위대성주체의 시작품들이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창작됨으로써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위인상을 잘 노래하고있

다.

특히 시 《금수산기념궁전의 고요》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내면심리세계를 정서적인 체험으로 개방하여 보여주면서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있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충정과 그리움의 세계를 철학적으로 정서있게 해명하고 있다. 위인의 내면세계의 개방과 그에 대한 체험 세계로 하여 독자들은 어버이장군님의 고매한 위인상을 뜨겁게 절감한다.

이밖에 위대성주제의 시작품들이 시인들의 높은 정치적식견과 철학적인 사색속에서 시대적으로 의의있게 노래되고있다.

다음으로 지난해에 사회주의애국주의주제의 작품들이 왕성하게 창작되어 강성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한것은 시문단의 성과로 된다.

시 《퇴성은 하늘에서 울지 않았다》(정동찬 작, 2호), 시초 《강성대국의 가을을 여기서 보라!》(류명호, 최주원 작, 2호), 시 《조국은 어디서 제일 잘 보이는가》(김춘호 작, 2호), 시 《초소의 봄비》(리영일 작, 4호), 시 《청춘과 사랑과 바다》(김형준 작, 6호), 련시 《어머니에 대한 생각》(최남순 작, 7호) 등의 작품들에서 진한 정서와 독특한 발견으로 어머니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의의있게 노래하고있다.

시 《조국은 어디서 제일 잘 보이는가》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

진정 조국은
어디서 제일잘 보이는가
오, 나는 말하고싶구나
나지막한 언덕의 작은 초소
조국의 수호자들이 사는 이 전호라고

조국을 진정으로 가슴에 안고사는 병사—조국의 수호자가 서있는 전호가에서 조국의 모습이 제일 잘 보인다는 서정적주인공의 웨침은 참으로 철학적이고 발견적이다.

조국은 하얗어 한명의 병사가 한눈에 담기엔 너무도 벅차다. 그러나 조국을 안고사는 마음이 어디보다도 더 뜨겁게 피어나고 조국을 사랑하는 심장이 어데서보다 더 불타는 그곳, 전호가에 서있는 서정적주인공—병사는 어린시절 그렇게도 가고싶고 보고싶던 조국땅을 가슴으로 안아보는 것이다. 이것은 한 병사뿐아니라 조국의 천리방선 초소를 지켜선 병사들의 감정에 대한 시적일반화이다. 정서적인 체험과 형상적인 발견속에서 선군

시대 병사들의 가슴속 열정이 철학적으로 뜨겁게 노래되고있다.

시 《청춘과 사랑과 바다》 역시 정서적인 체험과 독특한 발견으로 내 조국의 아름다움을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다.

시에서는 질은 서정세계속에서 그려지는 처녀와 총각의 사랑의 약속을 통하여 더욱 풍만해질 조국의 미래, 모든것이 흥하게 될 사회주의강성대국의 휘황한 래일을 특색있게 노래하고있다. 작품의 기본형상세계는 이 땅우에 환희로운 래일을 꾸려가자는 처녀와 총각의 사랑과 약속의 세계이다.

얼마나 좋은가. 선군시대에 넘쳐나는 우리 청춘들의 사랑은...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실현하는 길에서 청춘의 사랑과 약속을 맺어가는 우리 선군시대 청년들의 고상한 인생관이 잘 노래되고있다. 하기에 시에서는 아름다운 청춘들이 꾸려가는 내 조국은 《청춘의 리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이며 《하늘의 별마저 풍년》드는 《주렁진 가을》의 바다이며 두 심장이 함께 설레이며 고동칠 청춘의 바다라고 노래하고있다.

정녕 오늘의 선군시대에 와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 청춘들이 펼쳐여가는 풍요한 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끝없이 사품쳐갈 사랑의 바다, 청춘의 위훈의 활무대로 전변되었다.

바로 이것이 시에서 노래되는 기본사상이며 시인이 독특한 체험속에서 찾아낸 정서적발견이다.

이밖에도 지난해에 창작된 많은 시들이 사회주의애국주의 주제작품으로서의 사명에 맞게 아름다운 형상과 독특한 발견 그리고 깊이있는 정서적체험속에서 오늘의 시대를 뜨겁게 노래함으로써 시대적인 열정으로 심장을 끓이는 시인들의 불타는 창작적열의를 충분히 느낄수 있게 하고있다.

지난해에 우리 시인들은 계급교양주제의 시작품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계급적원썹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높은 시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시대에 높뛰는 시대정신을 민감하게 반영하고있다.

작품들에서는 계급적원썹들에 대한 증오의 서정을 세차게 뿜어올림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계급적각성을 더 높이 불러일으키고있다.

시 《시로 보내는 통고문》(한광춘 작, 7호), 시 《난파선 <리명박> 호》(한승길 작, 7호)에서 시인들은 풍자시의 사명에 맞게 풍자성을 높이면서 시의 사상을 강조하고있다. 하여 민족의 역적 리

명박놈의 추악상을 생동한 형상으로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시 《불을 토하는 상처》(문동식 작, 8호)에서 일제가 100년전에 강도적으로 날조한 《한일합병조약》의 역사적죄행에 대한 단죄를 통하여 일제야말로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이며 우리가 언젠가는 꼭 무자비한 복수를 안겨야 할 야수들의 무리라는것을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다.

이 시들에서는 원수들에게 무자비한 증오의 철추를 내리는 시인들의 역센 모습이 느껴져 독자들에게 계급적각성을 강하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좋은 경험을 남기고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창작된 시들에서 시대를 느끼고 감수하는 시인들의 강렬한 열정에 의하여 다양한 주제의 시들이 높은 형상세계를 펼쳐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시대를 심장으로 느끼지 못하는 작품들이 일부 있다.

그런 작품들은 레외없이 현실에 대한 체험이 없고 오늘의 시대를 심장으로 감수하지못한 시인들이 손쉽게 써내는 탁상문학의 산물의 아무것도

아니다.

더우기 지난해 사회주의애국주의주제의 일부 시들에서는 시인의 창조적발견과 뭉이 느껴지지 않는 경향을 드러내놓음으로써 시문학의 감화력을 제대로 높이지 못하는 현상도 발로시키고있다.

이와 함께 혁명전통주제, 계급교양주제의 시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지 못한것도 지난해의 시문학 창작에서 찾아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함은 있지만 지난해 창작된 대부분의 시들에서는 심장을 끓이고 시대를 열정적으로 감수하는 시인들의 드높은 창작적열의가 느껴지는것으로 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모든 시인들은 언제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시대의 서정을 펴나간다는 자세와 립장으로 새해에도 선군시문학의 화원을 더 아름답게 장식하여야 할것이다.

김봉민

병사의 모습

박성일

산과 산사이에
또 하나 언제라는 산을 앓히며
높아가는 언제우에서
병사의 군복은 땀에 젖고 열정에 마른다

대줄같은 장마비도
령하 30도의 눈사태도
후더운 애국의 마음으로 막아내며
만년기념비 이 땅에 세우거니

이렇게 솟은 언제
이렇게 일떠세운 창조물 몇몇이던가
수호자의 영예로
창조자의 기쁨으로
이 땅을 락원으로 변모시킨 병사

아득히 솟아
희끗희끗한 언제를 보아도
소금꽃 핀 병사들의 어깨같아
아 내 쓰다듬는 언제여
또 하나 병사들의 심장에서 솟아난
언제의 산악이여

가사

희천의 달밤

건설의 불꽃바다 펼쳐진 이 산중
병사들 쌓는 언제 비치는 밝은 달아
조국의 대기념비 희천에 높이 세우는
병사들의 그 위훈을 새겨안고 떠있구나

장군님 만나뵈운 병사들 그 영광
너도야 담아실고 축등이 되었느냐
장군님 믿음안고 희천속도 창조한
대고조의 영웅들을 축복하며 떠있구나

물새들 날아에는 발전소 호수에
네 모습 아름답게 비쳐볼 밝은 달아
장군님 바쳐오신 그 헌신 길이 전하며
강성대국 지붕우에 천년만년 떠있으리

리영철

그가 가는 길

1

기관구쪽에서 기관차의 기적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에 역구내식당의 구석구석을 가까스로 비치던 천정의 외줄기전등이 몸을 떨었다.

홍식은 창가로 다가갔다. 밖은 캄캄했다. 봄비가 부드러운 가락으로 깨어진 창유리를 조심스레 두드리고있었다.

《그래, 결심이 섰나?》

뒤에서 울리는 하오끼의 말에 홍식은 찰나 잔등으로 차거운 땀이 지나가는듯 한 감을 느꼈다. 애써 몸을 돌리며 천천히 도리머리를 저었다.

《갑자기 군수령차를 끌라고 하니 갈피를 잡을 수가 없군요.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린 방금 승무를 마치고 돌아와 아직 기관차의 정비도 못했는데...》

구장 하오끼의 발뒤축같은 턱이 끄덕끄덕했다.

난쟁이인 그가 상관판은 어방없이 크다. 아마 저울로 달아보면 몸집보다 머리가 더 무거울것 같다.

하오끼의 버들잎같은 두눈이 더욱 가늘어졌다.

《그러지 말게. 기관차의 정비야 밤중으로 하면 되지 않나. 열차는 매일 출발하니까.》

순대토막같은 손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건 자네에 대한 우리 기관구의 믿음의 표시야. 잘하면 이번 기회에 커다란 무공을 세울수도 있어. 절호의 기회지.》

홍식은 속으로 코방귀를 끼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은 조선사람기관사인 자기를 검토해보려는 놈들의 속심이 뻔히 들여다보였던것이다.

얼마전 정확히 말하면 1945년 5월 9일 파쑈도 이칠란드가 패했다는 소식은 기관구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온 세계를 단숨에 먹어치울듯이 것처럼 기세등등하던 히틀러군대가 장마철의 흠담벽처럼 무너졌으니 그럴만도 했다. 일본도 얼마 못 가 망하리라느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하루이틀사이에 총공격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기관구에 짹 퍼졌다. 일본인들은 기가 풀썩 죽었고 조선사람들은 벌써 조선이 해방되기라도 한듯이 활기를 띠었다.

그런데 며칠전 그 활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겼다. 기관구에 조선주둔군사령부 특별대표인 쟁이찌가 나타났던것이다. 불길한 징조였다. 지난날 동만의 유격근거지 《토벌》과 만주지구의 《공산비적》숙청에서 《혁혁한 전과》를 세웠다고 자랑하는 그놈은 사람들속에서 포악성과 잔인성으로 소문이 나있었다.

얼굴도 신발바닥처럼 길다란것이 사람이라기보다 거세한 수말같이 처음보는 사람도 머리칼이 오싹 일어섰다. 거기에 언제인가 유격대총알에 맞아 한쪽 이마살이 찌그러졌다는데 그래서 어찌다 옷을 때에도 상관이 돌아갈발에서 마구 자란 감자알모양이 되곤 하였다.

아니나다를까 쟁이찌는 북쪽에 위치한 방이어서 아직도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음침한 기관구의 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조선총독부》의 이른바 《총동원강령요강》이라느것을 발표하였다. 거기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국내의 인적, 물적자원을 깡그리 동원할데 대하여 씌여져있었다.

패망에 직면한 일제의 단말마적인 발악이었다.

이어 그놈은 기관구안의 모든 기관차들이 임의의 시각에 군수물자를 수송할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고 오금을 박았다. 이에 불복하는자는 리유여하를 불문하고 전시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니 기관구를 책임진 하오끼가 바빠할만도 하였다.

분명 이놈은 쟁이찌와 무슨 썩덕공론을하였을것이다.

몇시간전에 홍식은 한 일본인기관사로부터 《토벌대》놈들을 실은 군수령차가 매일 14시에 출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었다. 자기가 그 열차를 끌고가게 되었다는것을 안 그놈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정신없이 술을 퍼먹고나서 이렇게 지껄이였었다.

《홍식군, 난 이젠 끝장이네. 이제 두고보게, 나뿐이 아니라 여기서 떠난 모든 군수령차들이 목적지에 가당기도 전에 차레차레로 어느 철교에 구겨박힐걸세. 자네도 전국 도처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호응할 항쟁세력들이 짹 깔렸다는걸 잘 알지? 무사할수가 없어. 빨찌산과 맞서겠다는 《토벌대》를 그들이 가만 놔둘것 같은가.》

홍식은 즉시 이 정보를 조직에 통보하였다. 그는 이곳 서흥지구 지하조직의 성원이었다. 그들은 그 열차를 검란교에서 폭파해버릴 계획을 세웠다.

검란교는 기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곳을 폭파장소로 정한것은 여기 경계망이 삼엄한 조건에서 군수령차를 폭파하는 한편 적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혁명적대사변을 눈앞에 둔 지금 혁명력량을 무사히 보존하기 위한데 있었다. 폭파조는 이미 출발했다.

그런데 구장이 갑자기 홍식에게 그 군수령차를

끌고가라고 하는것이다.

홍식의 머리는 착잡했다.

왜 기관사를 바꾸려고 할까? 그 쪽발이기관사가 자기 기관차를 고장나게 하였거나 무슨 오그랑수를 썼을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른 기관사들도 있지 않는가.

지금까지 이놈들은 군수렬차의 수송을 그에게 맡긴적이 없었다. 조선사람이기때문에 믿을수가 없다는것이다. 어떤 음흉한 흉계가 숨어있는것이 분명했다.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군수렬차의 운행에 그 어떤 위험을 예감하고 《토벌대》의 수송을 달리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홍식은 하오끼의 요구에 선뜻 응할수가 없었다. 그의 머리에서는 두개의 모순된 감정이 엉켜돌아가고있었다.

《토벌대》놈들을 살려보내서는 안된다는 자각과 함께 지금껏 그토록 바라던 조국해방의 그날을 못 볼수도 있다는 서운함이 서로 승벽내기를 하고있는것이다.

조직에 알려서도 안된다. 그렇게 되면 자기를 살리려고 철다리폭파를 중지시킬수도 있는것이다.

갑자기 창문으로 역구내의 소음이 어지럽게 들려왔다. 호각소리, 화차들이 서로서로 부딪치는 소리... 아마 어느 렬차가 들어오는 모양이다.

스산한 저녁이었다.

홍식은 안주머니에서 회증시계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무서운가?》

침묵을 깨뜨리며 재차 하오끼가 물었다. 버들잎같은 두눈에서 제법 동자가 반짝거린다.

그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기관차를 정비하여야 하겠기에...》

그의 말을 제나름으로 이해하였는지 구장은 다시 물었다.

《혹시 속이 뜨끔한건 아닌가?》

찌르는듯 한 눈길이 그의 몸에 박혔다.

홍식은 의아한 표정으로 구장을 바라보았다.

《자네도 반도인이 아닌가. 혹시 반일항쟁조직의 한 성원인지도 모르지.》

하오끼의 말에 그는 바짝 긴장해졌다. 이놈이 자기를 이 으스스한 곳으로 끌고온것이 우연한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오끼는 기관구의 우두머리로서 자기에게 군수렬차의 운행을 명령할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뒤끝방에서 이 말을 할 때에는 제탄의 속심이 있는것이 분명하다.

홍식은 태연히 얼굴빛을 흐트리지 않고 생각을 굴리었다.

아니다. 원래 이놈은 한개 기관구를 책임지고 있다고 거들먹거리기는 하지만 저 커다란 머리통속에는 오직 자기 생각만 가득차있는 비렬한이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것을 보면 제법 로련한 탐정같다.

저놈이 그런 궁냥을 했을리가 없다. 분명 갱이찌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을것이다.

그리고보면 하오끼를 뒤에서 조종하는것이 갱이찌놈이 틀림없다.

《갱이찌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러자 하오끼는 두손바닥을 내보이며 당황해하였다.

《노여워말라구. 그저 해본 소리이니까.》

《구장님도 나를 믿지 못합니까? 한두해도 아니고 지금껏...》

그러자 하오끼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무렴, 자네야 내가 잘 알지. 자네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군수렬차의 수송을 맡기려는것이 아닌가?》

하오끼의 실눈이 저으기 누그러졌다. 그러더니 랑패를 본듯 두툼한 입술을 메기처럼 비죽하니 내밀었다. 몇번 입을 다시고나서 알만 하다는듯 발뒤축같은 턱을 또다시 끄덕끄덕했다.

《좋아, 밤중으로 기관차정비를 하면서 잘 생각해보라구. 난 자네를 믿네.》

홍식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그놈은 두눈에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아마 제놈들의 타산이 옳았다고 생각하는것 같았다.

홍식은 밖에 나섰다.

기관구앞에 있는 버락을 맞아 허리가 부러진 한그루 나무가 새잎이 돋은 앙상한 팔로 어둠속을 맥없이 가리키는 모양을 하고있었다.

홍식은 자기자신을 휩싼 불안감을 털어버릴듯 머리를 흔들고나서 걸음을 옮겼다.

2

조수인 춘섭이와 함께 기관차의 정비를 끝낸 홍식은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비는 이미 멎었다. 물에 씻겨 환해진듯 한 둥근 달이 형클어진 구름조각들과 숨박꼭질을 하면서 그 어딘가로 달음박질을 하고있었다.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선 그는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방안에서 내비치는 불빛에 어룡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던것이다.

저쪽 구석에서 복슬개가 반가워 꿈꿨다가 움직이지 않는 자기 주인을 올려다보며 왜 그러고 있느냐고 묻는듯이 꼬리로 찰싹찰싹 소리를 냈다.

한자리에 서있던 홍식은 목덜미에 선뜻한것이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들었다.

어슴푸레한 달빛아래 덕대를 따라 줄줄이 뻗어간 새순이 돋은 포도넝쿨이 보였다.

며칠전에 아버지가 전정가위로 다듬어주는것을 보았는데 벌써 아지마다 손톱만 한 이파리들이

돌아왔다. 거기 어느 가지에 맺혔던 물방울이 떨어진 모양이었다.

이제 저 녀굴들이 한껏 뻗어 거기에 포도송이들이 매달려 주렁주렁 탐스럽게 무르익을 때쯤이면 조국이 해방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기는 래일 《토벌대》놈들을 실은 열차를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짜르르해졌다. 다시 집마당에 들어서지 못할수도 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 심중의 안타까움을 그 누구에게도 터놓을수가 없었다.

그가 가야 하는 그 길은 조직에도, 아버지나 처자에게도 터놓을수 없는 길이었다.

환한 불빛에 내비치는 아버지의 구부러든 잔등을 이윽도록 바라보는 홍식의 마음은 쓰렸다.

조선사람으로서 그가 기관사로까지 된데는 아버지의 도움이 컸다. 아버지는 군에 하나밖에 없는 병원을 운영하고있었는데 기관구장장을 비롯한 왜놈들에게 술한 퇴물을 먹이면서 그를 기관사양성소에 보냈다.

《너는 비록 왜놈의 철도정복을 입었지만 조선사람이다. 조선사람기관사가 되어라.》

홍식이 기관사가 되어 어깨에 별을 달고 나타났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쪽발이들에게 먹히운것은 문명하지 못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루빨리 개화하여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좌우명으로 삼고있는 아버지였다.

그가 첫 승무를 하는 날 아침 아버지는 이렇게 물었다.

《오늘 어느 구간을 달리느냐?》

《평부선이예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기관차를 몰고 역구내를 벗어났을 때 홍식은 건능길초소 한쪽에 서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기의 아들이 기관차를 몰아가는 모습을 보고싶어 아마 아버지는 저렇게 기다리고 서있었을것이다.

일하기 어머니를 여의고 자란 홍식은 이날처럼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가슴가득히 느껴본적은 없었다.

홍식은 길게 기적변을 당겼다. 소리높이 울리는 기적소리는 기관차에서가 아니라 그의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고마움의 인사였다.

그러나 왜놈의 세상에서 아버지의 말대로 살기는 조련치 않았다. 기관구에서 기관사는 모두 왜놈들이었는데 조선사람기관사는 유독 그 하나였다. 같은 기관사라고 하여도 조선사람이라는 단 하나의 리유로 그는 천대와 멸시를 받았고 항상 굴욕감을 느끼며 살아야 했다.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왜놈들에게서 받은 수치와 모욕으로 속이 꿈틀거릴 때가 많

았다.

그러나 하소연할데가 없었다. 그때 그는 아무리 재간과 기술이 있다고 하여도 제 나라가 없으면 상가집개만도 못한 처지가 되고만다는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만약 그에게 잊지 못할 1937년 6월 그날의 인생전환기가 없었더라면 지금쯤은 분명 타락하여 그 어느 시궁창에 구겨박혔을지 모른다.

그후 그는 조직의 지도를 받으며 성스러운 반일애국성전에 나설수 있었다.

조직의 한 성원으로 활동하면서야 홍식은 주변의 탄광, 광산들만이 아니라 전국도처에 반일지하조직들이 무수히 무어져 활발히 움직이고있다는것을 알았다. 조국해방의 대사변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그 조직들은 무장까지 갖추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맞추어 일제히 항쟁봉기를 일으킬 준비까지 되어있었다. 그는 조직이 준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자기도 조국해방위업에 한몫 하고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부푸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

부엌문이 열리는 소리에 홍식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환한 불빛이 그에게로 확 비쳐들었다.

그 한복판에 서있는 안해가 보였다. 마당에서 남편을 띄여보자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바빠 다가왔다.

《왜 이렇게 서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마 그 무엇인가를 눈치챈 모양이다. 룩감이 빠른 안해였다.

그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안해는 그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었다.

《어서 방안에 들어가보세요.》

홍식은 의아해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님이 성나셨어요.》

《?》

이번에는 안해가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러면서 살며시 남편의 등을 떠밀었다.

방안에 들어선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 재털이에 담배꽂조가 수두룩했던것이다. 웬간해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아버지였다.

《게 좀 앉아라.》

아버지가 진중한 기색으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의 몸에서 포르말린냄새가 진하게 났다. 아마 오늘도 환자를 수술한 모양이었다.

그는 조심스레 방바닥에 앉았다.

부엌에서 늦은 저녁상을 차리는 달그락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퇴근길에 하오끼를 만났다.》

《예?》

홍식의 두눈이 초점을 잃고 허둥거렸다. 그놈이 무슨 말을 하였을가. 자기에게서 씨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아버지를 자극시킨것이 분명했다.

한마디로 선손을 쓴셈이다.

《래일 군수렬차를 물고간다는게 사실이나?》

《예.》

《어쩌면 네가 그럴수 있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방바닥에 놓인 커다란 두손이 알릴듯말듯 떨었다.

《난 지금껏 네가 조선사람의 넋을 잃지 않고 사는줄로 알고있었다.》

부엌에서 달그락소리가 났었다.

《언제인가 네자신이 나에게 말했었지. 우리 나라를 구원하여주실분은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 한분이시라고, 그분은 우리 조선인민의 민족의 태양이시라고...》

《그렇습니다.》

엉거주춤 일어서는 아버지의 두손이 눈에 뜨이게 부들부들 떨렸다.

《그걸 잊지 않고있는 네가 우리 김일성장군님 부대를 《토벌》 하겠다는 왜놈들을 실은 렬차를 끌고가길 수락했던 말이나?》

홍식은 할말이 없었다.

거친 숨소리.

그는 아버지앞에 머리를 수그렸다.

끝내 참지 못한 아버지의 손이 홍식의 얼굴에 날아들었다.

《덜된 녀석.》

쟁가당, 부엌에서 그릇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움쭉 일어났다. 옷방문닫기는 요란한 소리에 아래방의 전등이 흔들렸다.

어느새 방안에 뛰어들어온 안해가 남편의 어깨를 와락 붙들었다.

《그건 거짓말이지요, 맞지요?》

홍식은 머리를 들었다. 앞이 뿌옇다.

《어서 아버지께 아니라고 말하세요. 왜 말 못해요? 왜, 왜...》

간절한 기대를 품은 안해의 눈이 그를 지켜보며 파들파들 떨고있었다.

그러나 홍식은 말이 없었다. 드디어 그의 두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 순간에 왜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자신도 알수 없었으나 홍식은 그 어떤 물리해를 받아도 자기는 아무것도 말할수 없다는것만은 알고있었다.

연약한 안해의 두손에 쥐여 장난감처럼 흔들려우는 홍식의 온몸은 지금 한껏 행복속에 도취되어있었다.

(아버지, 깨우쳐주어 고맙습니다. 전 잠시나마 자기자신을 먼저 생각했었습니다. 꼭 아버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는 그 길이 아버지도 안해도 그리고 조선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야 하는 그러한 궁지높은 참된 길임을 지금 이 순간 굳게 확신했다. 그는 결심했다.

그 다음날.

홍식은 또다시 기관차의 창밖으로 상반신을 내밀고 사방을 휘둘러보았다.

역구내는 조용하였다. 《토벌대》놈들을 실고 가야 할 열량의 유개화차가 아직도 대기선에 텅 빈 채로 서있었다. 정각 14시다.

비록 하오끼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군수렬차가 이 시간에 출발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지금 조직성원들은 검탄교에 폭약을 설치해놓고 《토벌대》놈들을 실은 렬차가 오기를 기다릴것이다. 그런데...

적들이 군수렬차의 출발시간을 변경시킨것이 분명했다. 지금 하오끼는 쟁이찌와 함께 무슨 꿍꿍이를 하고있을것이다.

오늘 아침이었다.

홍식은 하오끼를 찾아갔다.

《자, 렬차운행표를 주시오.》

하오끼는 축 늘어진 불을 손가락으로 굽었다.

《자네가 그렇게나울줄 난 알았다니까.》

이렇게 말하며 헤벌쭉 웃었으나 간사한 두눈은 그가 속에 없는 말을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기관차에서 출발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게. 떠나기 전에 렬차운행표를 주지.》

실눈에 이름 못할 야릇한표정이 어린것을 홍식은 보았다. ...

그는 앞을 바라보았다. 태양빛에 반사되어서인지 길게 뻗은 두줄기 철길이 붉게 보였다.

갈림길앞에 서있는 전철기가 보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홍식은 자기가 전철기의 갈림길앞에 서있는것처럼 느껴졌다.

《하나 물어도 좋아요?》

화실에 석탄을 퍼넣던 춘섭이 하는 말이였다.

홍식은 그를 바라보았다.

《형님이 어쩌면 그럴수 있어요?》

자기가 것처럼 믿고 따르던 홍식이가 《토벌대》놈들을 실은 렬차를 끌고가겠다고 나선것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원래 춘섭은 왜놈기관사실에서 조수로 있었다.

어느 하루 몰래 기관차를 몰아보았다고 하여 왜놈들은 그를 류치장에 가두고 반주검이 되도록 때렸다. 3일만에 놓여나온 그를 홍식은 집에 데려다 치료해주고 몸이 회복되자 자기 기관차에 조수로 태웠다.

춘섭의 희망은 기관사가 되는것이였다. 왜놈기관사에게 죽도록 매를 맞고서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있다.

이제 조국이 해방되면 그도 얼마든지 기관사가 될수 있을것이다. 일제놈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이땅에서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수 없다.

언제인가 그는 홍식에게 이렇게 물었었다.
《형님, 조국이 해방되면 나도 형님처럼 기관사가 될 수 있을가요?》

《그럼.》

《야, 그날이 빨리 왔으면...》

...

홍식의 침묵을 제나름으로 리해한 춘섭이 신경질적으로 손에 쥐고있던 괄갑을 석탄무지에 콕 박으며 투덜거렸다.

《형님은 지금 자기가 어떤 길을 가고있는지 알고있어요? 막힘선낭떠러지로 가고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는 막힘선이라는 말이 제일 무서운 단어처럼 생각되는 모양이었다. 하긴 기관차가 막힘선에 들어서면 끝장이니까.

불쑥 홍식의 머리에 번쩍하는것이 있었다.

전철기의 표식판, 갈림길, 막힘선...

필요한 차갈이때와 열차를 대피시킬 때에만 쓰는 막힘선이 이제 그가 달려야 할 본선철길에서 옆으로 뻗어있다.

홍식은 재빨리 머리속에서 생각을 굴렸다.

14시로 정해졌던 열차출발시간은 분명 달라졌다. 아직까지도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고있는것을 보니 놈들은 우리 조직의 검탄교 폭파를 미리 알고있든지 아니면 무슨 불길한 일이 일어날가보아 간특한 수를 쓰고있는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홍식은 달라진 정황을 조직에 알리지 못하는 조건에서 자기자신이 임무를 맡아나서야 한다는것을 절감했다.

이제는 열차를 막힘선으로 끌고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일은 혼자서는 하지 못한다. 누구든 전철기를 막힘선쪽으로 제껴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일을 누구에게?...

기관차주위는 철저히 봉쇄되어있다. 그러나 협조자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야 한다.

홍식은 모험을 하기로 결심했다.

《춘섭이, 주수기를 막으라구!》

《예?》

춘섭의 두눈이 둥그래졌다.

《보이라의 증기도 뽑으라구.》

《아니, 그럼 기관차를...》

괄갑이 그의 두손에서 미끄러졌다. 춘섭은 얼이 빠져 자기의 기관사를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다.

주수기는 보이라관에 물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주수기를 막고 보이라관의 증기를 뽑아버리면 관들이 가열되면서 화실의 배꼽(기관차의 안전부분)이 녹는다. 그러면 다다. 기관차가 죽는것이다.

홍식은 일어나 얼떠름해 서있는 춘섭을 밀어버리고 자기가 송풍기의 변을 막았다. 그리고 주수

기변을 발로 콕 눌렀다.

그가 보이라변의 손잡이를 비틀자 썩— 하며 뜨거운 증기가 기관차의 량옆으로 쏟아져나왔다.

급작스러운 변화에 압력계의 바늘이 바르르 떨더니 급기야 아래로 고개를 푹 떨구었다. 기관차가 고삐매인 말처럼 쟁충 뛰여오르는듯싶더니 선 자리에서 동체를 부르르 떨었다.

《왜 그래요? 어찌자고...》

춘섭의 말에 홍식은 긴장해진 얼굴에 한껏 미소를 지었다.

《저놈들을 고스란히 살려보낼수야 없잖아?》

그리고는 아직도 얼떠름해 서있는 춘섭에게 소리쳤다.

《빨리 젖은 가마니를 가져와.》

괄갑을 쥐며 홍식이 하는 말이였다. ...

잠시후 기관차주변에 모여든 왜놈들이 밑에서 무엇이라고 웅웅거렸다.

기관실에 갱이찌와 하오끼가 올랐다.

《뭐야?》

그놈들의 낮찍에 살기가 뻗쳤다. 당장 떠나야 할 기관차에 이상이 생겼으니 그럴만도 했다.

갱이찌는 위엄을 보이느라 일부러 옆에 찬 군도를 요란스레 철컹거렸다.

《화실의 보이라관이 터져서...》

춘섭이 떠듬거렸다.

그때야야 놈들은 열려진 화실속에 들어간 조선사람기관사를 알아보았다. 그안을 들여다보는 하오끼와 갱이찌의 얼굴에 공포심이 어렸다.

불속에 들어간 홍식은 그야말로 불사신처럼 보였다. 텅, 텅, 뜨거운 열기가 확확 뿔어져나오는 화실속에서 울리는 마치질소리가 공명되어 들렸다.

놈들의 두다리가 눈에 띄게 후들거렸다. 아마 그들은 이런 광경을 생전 처음으로 목격하였을것이다.

이윽하여 수리를 끝낸 홍식이 화실에서 기어나왔다. 그의 형체는 말이 아니였다. 뒤집어졌던 가마니는 말짱 재가 되어 바닥에 부실부실 떨어졌다.

그래도 홍식은 화상당한 얼굴에 웃음을 지었다.

《다 정상입니다.》

그리고는 비칠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때까지도 갱이찌는 영문을 알수 없는듯 기관사를 멀거니 바라보기만 하였다. 화실에 들어갔던 사람이 제발로 걸어 나온것이 놀랍기만 한 모양이였다.

하오끼가 그놈의 귀에 대고 사연을 설명했다.

《그러니 기관차를 살리려고?...》

그제서야 헤벌쭙 웃으며 의자에 기대인 홍식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러면서 엄지손가락을 내보였다.

《당신이나 이거다, 이거. 아주 좋아.》
 하오끼가 실눈에 살살 아침을 흘리며 한마디 하였다.
 《저 빨리 병원으로 실어가야...》
 갱이씨의 말상이 꼳꼳해졌다.
 《아니다. 그 누구도 절대로 역박으로는 나갈수 없다. 당장 의사를 여기로 불러오라.》
 그놈의 두눈에 음흉한 빛이 번쩍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20시에는 이 기관사가 기관차를 제대로 몰수 있게 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라, 알겠는가?》
 20시!
 정신이 혼미해지는 속에서도 홍식은 이 말을 새겨들었다. 그의 마음은 평온해졌다.

4

...
 홍식의 기관차가 하늘을 날고있다. 해방의 기쁨을 안고 거리와 마을들로 하얗게 펼쳐나온 사람들이 기관차를 보자 환성을 지르며 손을 흔들었다.
 우리 나라 글자로 《기관사》라고 쓴 완장을 낀 그도 사람들에게 손을 저어주었다.
 얼마나 바라보고바라던 조국해방인가.
 환희에 넘쳐 기관차를 몰아가던 홍식의 눈길이 한곳에서 멈추어섰다. 모여선 사람들속에서 아버지를 본것이었다.
 《아버지, 여기예요, 여기.》
 그러나 머리우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듯 아버지는 사람들과 그냥 춤을 추며 돌아간다.
 홍식은 안타까와 기관차를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였으나 가감변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
 《어떤가?》
 주변에서 울리는 말소리에 홍식은 정신을 차렸다.
 《이제 인차 깨여날거요, 주사를 놓았으니...》
 목소리가 귀에 익다.
 《당신이나 훌륭한 아들을 두었다. 그는 기관차를 살리려고 저 화실속에도 서슴없이 뛰어든...》
 《음...》 그는 눈을 떴다.
 버들잎같은 하오끼의 실눈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옆에 아버지가 서있었다.
 《정신이나 차렸는가?》
 하오끼의 넘적한 상판에 기뻐하는 기색이 어렸다.
 그놈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섰다.
 《아들은 이제 우리 토벌대와 함께 출전한다. 그러니 치료를 잘하라.》
 발디디개를 내리는 소리.
 홍식은 아버지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차거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 길을 끝내 가겠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무거웠다. 홍식은 아버지가 이 순간이 지나면 자기곁에서 영영 떠나가버리며 원쑤보다 더 무서운 사이가 되어버리려고 이미 결심했다는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그 말속에 믿음과 배반, 사랑과 혐오 그리고 기대와 경멸 등이 다 담겨져있었다.
 시선을 돌려 철길쪽을 바라보았다.
 하오끼가 기관차옆에 서있는 《토벌대》놈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나서 저쪽으로 걸어가는것이 보였다.
 아마 감시조직을 하는것 같았다. 홍식이 군수령차의 출발시간을 알았으니 비밀이 새어나갈가봐 겁이 나는 모양이었다.
 홍식은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았다.
 아들에 대한 실망의 빛이 력력한 아버지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러나 아버지를 바라보는 홍식은 어쩔지 기뻐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다.
 결국한 마음을 지닌 아버지는 나의 결심을 리해하고 도와나설것이다.)
 홍식은 결심을 내리고 아버지에게 말머리를 떼었다.
 《아버지, 제가 가는 길은 반역이 아니라 애국의 길입니다.》
 《?》
 아버지의 짙은 눈썹이 치켜올라간채 움쭉 굳어졌다.
 《저는 지금까지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싸워왔습니다.》
 《뭐라구?》
 그의 말소리는 낮았으나 아버지와 춘섭은 마치 기관실에 천둥이 친듯이 놀랐다.
 화실속에서 무엇이 타는지 요란한 소리가 났다.
 《그, 그게 정말이냐?》
 잠시후 아버지가 떠듬거리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자세히, 자세히 말해봐라.》
 기관구구내는 소란스러웠다.
 칙폭거리는 소리, 쇠두드리는 소리, 금속 부딪치는 아츠러운 소리...
 열선으로 기관차가 철길을 쿵쿵 두드리며 지나갔다.
 《아버지는 제가 37년 여름 보천보전투소식을 들려주던 때를 기억하시지요?》
 홍식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자기자신이 영원한 추억으로 심장깊이 간직하고있는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때 홍식은 해산쪽으로 기관차를 몰고갔었다.
 백두산지구에서 찍어내는 통나무들을 화차에 실어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기관차가 덜컥 고장

이 났다. 기관차를 수리선에 넣고나니 며칠 시간이 있었다. 그는 보천보시가에 있는 려인숙에 머물렀다.

그날이 바로 6월 4일이였다.

밤 10시, 보천보가 벌컥 뒤집혀졌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시가를 습격하였던것이다.

녹거리려인숙에서 잠이 들자 말가하던 홍식은 거리로 튀어나왔다. 보천보의 밤하늘은 붉게 물들여져있었다. 경찰관주재소가 습격받고 면사무소, 농사시험장을 비롯한 왜놈들이 동지를 틀고있던 건물들이 불타고있었다.

혼잡을 이룬 사람들의 물결속에 섞여있던 그는 거기에서 조선사람모두가 전설적영웅으로 떠받들고있는 **김일성장군**님의 모습을 직접 뵈왔고 그의 연설도 들었다.

그때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활활 불타고있는 왜놈들의 건물들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불길을 보라.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도 살아있다. 각계층 우리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하자!—

말마디마다에 힘과 정열이 솟구치는 그의 연설을 들으며 홍식은 온몸의 피가 끓어넘치는것을 느꼈다.

아! **김일성장군**님!

저분이 바로 우리 민족이 그토록 숭배하여마지 않는, 경향각지에 소문이 자자한 청년장군이시구나.

홍식은 끓어오르는 감격과 환희로 들먹이는 심장을 도무지 억누를수가 없었다.

가슴이 시원히 열리는감을 느꼈고 온몸이 무한한 환희로 두둥실 하늘가에 떠오르는것 같았다.

이제는 우리 조선민족이 살아났구나.

왜놈들의 발 밑에 억눌려 무지렁이같은 삶을 가까스로 이어가던 우리 인민이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홍식은 자기자신도 새롭게 태어나는것만 같았다.

저도 모르는새에 홍식의 두볼로 뜨거운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가자. **김일성장군**님 유격대를 따라가자.)

잠시후 조선인민혁명군에 탄원하는 수많은 청년들속에 홍식도 끼여있었다. 류다른 그의 옷차림을 두고 옆의 청년들이 서로 수군거리였다. 그때 홍식은 자기가 입고있는 왜놈의 철도정복을 갈가리 찢어버리고싶었다.

이때 한 유격대원이 조용히 그를 불렀다. 그들은 시가지의 나지막한 둔덕에 나란히 앉았다.

별이 총총한 밤이었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그의 처지, 집안형편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난 그 유격대원은 홍식에게 참으로 잊지 못할 이야

기를 들려주었다.

《…저 별을 보오. **김일성장군**님은 바로 조선민족모두의 희망의 별이시오. 그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저 별을 마음속에 안고 살 때 그 삶은 영원히 빛을 뿌리게 되는거요.》

그때 그는 홍식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작성하시였다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들려주었다. …

홍식의 말은 끝났으나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거울진 손바닥으로 아들의 손등을 몇번이고 쓸어보았다.

《그러니 네가 **김일성장군**님을 직접 뵈왔단 말이지?》

《예.》

아버지는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쪽하늘에서 불덩어리같은 태양이 이글이글 불타고있었다. 그 어마어마한 빛발에 온 누리가 붉게 물들여졌다.

홍식은 회중시계를 들여다보았다. 20시까지의 얼마 남지 않았다.

《아버지,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그는 기관차발판우에서 주변동정을 살피고있는 춘섭을 결눈질해보고나서 말을 이었다.

《조직성원들은 모두 검탄교에 나가있습니다. 이 일을 대신할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절 좀 도와주십시오.

20시에 열차가 출발하면 전철기를 막힘선으로…》

《뭐라구?》

아버지가 텐검을 하며 말허리를 잘랐다.

《아니, 그럼 내가 너를?...》

홍식은 아버지의 손을 꼭 그러쥐고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부탁입니다.》

《해방의 날이 이제는 눈앞에 왔는데...》 아버지의 말에 홍식은 목이 메였다. 하지만 자기를 다잡고서 다시 말을 떼었다.

《아버지, 제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전 그 길이 제가 우리 장군님께서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조국해방위업은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두광야에서 피어린 혈전의 길을 걸으시며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걸 막아보려고 왜놈들은 지금 최후발악을 하고있어요. 그이의 전사인 제가 어찌 이것을 보고만있을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가려는것입니다.》

《장군님의 전사라!...》

아버지는 뜨거움에 젖어 되뇌었다.

《네가 그렇듯 큰뜻을 품고 사는줄 이 애비도 다 몰랐구나.

옳다. 강물의 흐름은 막을수 없듯이 **김일성장군**

님께로 쏠리는 민심은 반드시 이 땅에 조국해방의 그날을 안아올게다.

네가 결심한 그 길이 옳다고 생각했으면 주저 말고 가거라.》

《아버지!》

둘은 서로 손을 맞잡았다.

다시 아버지는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올해 집의 포도가 평창히 달릴것 같다. 익으면 무척 달게다. 돌아와서 맛을 봐야지.》

《그럼요, 꼭 돌아오겠습니다.》

서로 잡은 아버지와 아들의 손은 뜨거웠다.

5

홍식의 기관차 《미가하 628》호는 이미 출발선에 서있었다. 푸—푸—거리며 어둠이 깔린 철길위에 뻗치고 서있는 열차는 흡사 주로를 달리려고 나선 시커먼 말을 련상시켰다.

바람 한점 없다. 기관차의 앞에 쏘한 일장기가 기발대에 돌돌 말려 목을 매단 사람처럼 축 늘어져있다.

역구내에 하나, 둘 전등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기관차앞에서 전철기신호등들이 뿌연 빛으로 간신히 이쪽을 비치고있었다.

그옆에 《토벌대》놈들이 말뚝처럼 서있었다. 인원을 더 보충하였는지 전철기주변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누런 군복을 입은 놈들이 우글우글하였다.

기관차의 뒤에 달린 유개화차들에서는 이미 뻗곡이 오른 《토벌대》놈들이 제마끔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그 목청들이 각이한 피성에 가까왔다.

홍식은 그 소리가 저승길을 재촉하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하긴 저놈들도 이 길이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을것이다.

그는 그 악청에 대고 코웃음을 쳤다.

기관차쪽으로 한무리의 왜놈들이 다가왔다.

홍식은 그가운데서 거드름을 피우며 오는 갱이찌를 알아보았다. 그옆에 하오끼도 보였다. 그놈들은 기관차옆에 다가와 멈춰섰다.

《하오끼, 너는 이번 열차운행을 무사고로 보정할 무거운 책임을 지고있다는것을 명심하라.》

갱이찌의 말에 하오끼가 차렷자세를 취했다.

《멸사봉공하겠습니다.》

몇걸음 옮기던 갱이찌가 다시 돌아섰다. 기관실을 올려다보고나서 지껄었다.

《잘 살피라.》

《알겠습니다.》

하오끼가 기관차에 올랐다. 출발을 앞둔 기관차의 압력계, 수면계 등을 제 눈으로 살펴보고나서 어깨를 으쓱하였다.

《내가 이번 승무를 책임지게 됐다.》

홍식은 하오끼를 바라보았다. 어느때는 왜놈장교가 기관차에 오르곤 하였던것이다. 그의 마음을 알아차린듯 하오끼는 실눈을 쪼프렸다.

《왜, 놀라운가?》

그놈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기관사맞은켄 조수자리에 태연히 걸터앉았다.

《자 홍식군, 이제는 자기를 드러내지. 난 이미 너의 정체를 알고있다.》

하오끼의 버들잎같은 두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어느새 빼든 권총을 그에게 내밀었다.

《어서 말해. 이 열차를 어디서 전복하게 되었는가?》

홍식의 얼굴에 근엄한 표정이 어렸다.

《그렇게 믿지 못하면서 왜 나를 기관차에 태웠는가. 네놈들이 몰것이지.》

하오끼는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기관차는 네가 몰아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러나 명심해. 조금이라도 달리 행동하면 감장콩알을 먹을줄 알라.》

하오끼는 실눈을 더 쪼프리며 홍식의 눈치를 살피었다.

이때 기관차앞에 서있는 출발신호기가 들렸다.

파란 불이 보였다.

하오끼의 얼굴이 해쓱하니 질렸다.

《홍식군, 피차 눈가리고 아웅하기는 그만두자. 이제 조선은 우리 일본으로부터 해방될것이다.

당신도 그날이 보고싶겠지? 그러니 너도 살고 나도 살자.》

홍식의 얼굴에 비웃음이 어렸다. 흥, 네놈이 말하라고 하는것이 그것이였구나.

군수열차가 뒤집혀질것은 뻔하고 그렇게 되면 기관구장장의 목도 무사치 못할것이다. 그럴바에는 기관사를 협박하여 무사고운행을 하려고 마음먹은것이다. 정말 유치한 쪽발이의 사고방식이였다.

《증기 13, 물 7부... 떠날 준비 끝.》

춘섭의 말이 끝나자 홍식은 기적을 올렸다.

《출발.》

그는 가감변을 당겼다. 그러자 기관차는 갑자기 그 무엇에 떠박질리우기라도 한것처럼 몸을 흠뻑했다. 그러더니 량옆으로 허연 증기를 내뿜으며 성큼 앞으로 걸음을 내짚었다.

홍식에게서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한 하오끼 역시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거나말거나 홍식은 태연히 기관차를 몰았다.

《토벌대》놈들을 가득 실은 유개화차들도 코를 꿰인 망아지들처럼 제마끔 기우뚱거리면서 기관차를 따라섰다. 눈앞의 전철기들이 어느새 그의

결을 스쳤다.

지금 홍식은 온몸이 눈이되어 어둠속에서 막힘선으로 갈라지는 전철기의 신호등만을 찾았다.

그의 마음을 알았는지 기관차도 거침없이 앞으로 내달리었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 그래야...

가감변을 잡은 손에 지그시 힘을 주며 홍식은 중얼거렸다. 어느덧 저 멀리에서 깜박이는 신호등이 보였다.

그런데 그에게 비쳐진 신호등의 빛은 누런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었다. 표식등의 빛이 누런색이어야 철길이 막힘선으로 향해진것이다.

순간 홍식은 온몸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내리는듯 한 느낌이 들었다. 눈앞의 모든것이 빙글빙글 돌았다. 다시 한번 앞을 살폈다.

전철기옆에 서있는 《토벌대》가 보였다. 그가 기관차쪽으로 돌아섰다. 기관차의 밝은 전조등속에 비쳐진것은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아—아버지!

그때야야 홍식은 아버지가 막힘선으로 가는 철길을 직접 열어놓았다는것을 알아차렸다. 놈들을 속이느라고 전철기의 췌를 뽑아버린것이 분명했다.

아버지가 기관차를 보며 환히 웃었다. 같길은 녀려말고 힘껏 달리라는 뜻이었다.

홍식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기적변을 당겼다.

기관차는 아버지가 열어놓은 철길우로 이제는 무서운 속도로 질주했다.

렬차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홍식의 움직임만을 경계하는 눈초리로 지켜보던 하오끼가 마음의 탕개를 늦추었는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들었다.

춘섭이 날래게 팍삽으로 이글거리는 화실에서 불덩이를 퍼담아 그놈에게 내밀었다. 담배불을 불이려던 하오끼가 텐겹을 하여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일어났다. 춘섭이 그놈의 무릎에 불덩이를 떨어뜨렸던것이다.

《빠가야로.》

그놈은 다짜고짜로 주먹을 쳐들었다. 춘섭이 날래게 몸을 피하자 하오끼는 허양 화실문짝을 들이받았다. 춘섭은 옆에 있는 지레대로 그놈의 대갈통을 내리쳤다. 옥—신음소리를 내지르며 하오끼는 바닥에 머리를 틀어박았다. 춘섭은 채차 그놈의 꿈무늬를 발길로 힘껏 내질렀다. 쏜살같이 달리는 렬차밖의 캄캄한 어둠이 기다렸던듯 그놈을 삼켜버렸다.

춘섭은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홍식에게 보이며 장한듯이 빙싹거렸다.

홍식은 온몸의 힘을 깡그리 동원하여 가감변을

더욱 힘있게 잡아당겼다.

기관차는 최대속력으로 달렸다. 속도계의 바늘이 더 오를데가 없다는듯이 끝점에서 춤을 추었다.

시원한 바람이 창밖으로 머리를 내민 홍식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느덧 못벌들이 총총하였다. 유난히 반짝이는 북두칠성이 눈에 띄었다.

보천보에서 항일유격대원으로부터 혁명의 심오한 진리를 새겨안던 잊을수 없는 그날에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별이다. 그 별이 지금 그가 가는 길을 축복하여주는듯 반짝반짝 빛을 뿌리고 있다.

저 별이 있는 곳에 우리 장군님께서 계신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최대속력으로 그이의 곁으로 달려가고있다. 넓고넓은 우주광야가 그를 반겨맞는다.

가슴 벅찬 환희를 한몸에 받아안은듯 한 느낌에 그는 저도 모르게 행복의 무아경에 빠져들었다.

《형님.》

춘섭이 소리쳤다. 이제는 뛰어내리자는것이였다.

홍식이는 춘섭이를 향해 소리쳤다.

《먼저 뛰어내려.》

《아니예요. 형님, 같이 뛰어내리자요.》

춘섭이가 다가와 홍식의 팔소매를 잡았다.

《에익, 뭘해? 빨리 뛰어내려.》

홍식은 다짜고짜로 춘섭을 떠밀고 문쪽으로 갔다. 그리고는 어둠속을 향해 힘껏 밀쳐버렸다.

《형님!—》

피타게 부르짖는 춘섭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멀어졌다.

어느덧 기관차의 전조등에 시커먼 색으로 X표식을 한 막힘표가 보였다.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아가리를 썩 벌리고 마주오는 렬차를 노려보는것 같았다.

그제서야 홍식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그 무엇도 이 렬차를 멈춰세울수 없다. 크나큰 흥분으로 하여 그의 가슴은 세차게 뿔뿔하였다. 다시 한번 가감변을 당기고나서 그는 일어섰다.

홍식은 기관차의 창문턱을 걸어차며 캄캄한 어둠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와 때를 같이 하여 막힘선낭떠러지에서 요란한 폭음이 울리더니 불길이 치솟았다. 그 불길속으로 련이어 유개화차들이 벼랑턱을 넘어가는 뱀처럼 거침없이 빨려들어갔다.

거기에서는 주변의 어둠을 짓누르며 붉은 화광이 오래도록 누리를 밝히고있었다.

김달수

용해공은 바다와 이야기하네

드디어 첫 주체철 붉은 쇠물
남비가 넘치게 뿜아낸
가슴 터질듯 한 환희를 안고
바다여 이 저녁
내 너의 가슴으로 달려나왔노라

밤이나 낮이나
이 쇠물소식 기다리는 안해를 두고
아빠야 언제면 주체철이 나오나
손가락을 쏴아보는 딸애를 두고
너에게로 먼저 달려온 이 용해공을
드넓은 너의 품에 뜨거이 안아다오

진정할길 없는 이 걱정을
너와 먼저 나누고싶구나
눈뿌리 아득히 지평선끝까지
주체철 불노을 불비단이 늘어진
네앞에서 이 가슴속 사연펼치고싶구나

지금도 너는 간직하고있으리
년간계획 앞당겨 완수한 저녁
쇠물노을 비껴안은 네 가슴에서
기증기운전공쳐녀와 첫사랑 속삭이며
밤깊도록 백사장에 찍어간

이 용해공의 자욱자욱을

정녕 너는 지금도 간직하고있으리
준엄했던 고난의 그 세월
짙짙 쇠물을 쏟던 어제날 그리워
너의 가슴에 달려나와
황황 가슴치던 이 용해공의 눈물도

하지만 바다여 용해공 나의 바다여
우리의 석탄으로 끓인 쇠물
남의것이 없는 주체철쇠물로
너의 하늘높이 붉게 타는 밤노을
영원히 꺼지지 않으리란것을
네앞에 맹세하나니

아버이장군님께 드리는
이 용해공의 불타는 선서처럼
장엄한 불노을로
온 세상이 다 보게 만리창공에 새겨다오
김철의 주체철쇠물노을은 영원하리라고

최승덕

분조장 옥이야

분조장 옥이야

이러다간 청년분조원 우리가 뒤떨어지겠다
우리앞에 거름바리가 너의 할아버지 바리구나
눈보라를 호기있게 받아넘기는 황소를 물고
이 새벽도 거름실고 별로 나가누나

이제는 나이도 많은데 쉬라고 권하면
쌀이 모자라 조국이 허리띠를 더 조이고
우리 장군님 험한 길 헤치셨다고
눈물에 젖어 말하군 하시더니
새벽문 먼저 열고 들로 나가시누나

열두바닥 거름을 다 실어내시느라
힘드셨건만 저 보아라
걸음새는 젊은이처럼 호기차구나
홍얼이는 코노래 십년나이 덜어내누나

올해는 강성대국건설의 뜻깊은 해인데
이제 다시 나라의 쌀독을 뚫게 한다면
이 땅에 농민은 무엇에 필요하냐고
공동사설 구절구절 읽어가며
어제 밤에도 너에게 말을 했다지
그 마음에 눈도 쌀처럼 내리는듯싶구나

정말 머리가 숙어진다
나라를 받드는 마음엔 나이가 없구나
논두렁을 베고 눈을 감는 한이 있어도
기어이 강성대국 쌀독을 채우려는 그 마음
청년분조원 우리 가슴에 불을 다누나

정초의 맵짠추위도 날려보내는
할아버지의 씩씩한 모습 보아라

서른바리나 실어낸 거름더미도
이제 겨우 마수거리라 할아버지 웃으니
청년분조 우리 체면 무엇이 되겠니

새해의 첫아침에 조여맨 신들메
한해가 다 간대도 풀지를 말자
강성대국 그날의 큰 잔치상을
이 세상이 부러웁게 차려야 할
우리는 땅의 주인 농민이 아니냐

분조장 옥이야 우리도 달려가자
올해의 한걸음한걸음을 조국의 존엄을 걸고
벌이 꺼지게 거름을 듬뿍 내고
쌀은 사회주의라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고향땅에 빛내가자

우광복

농민의 마음

계절을 이어가며 흘러가는
날과 날들에
이 마음속엔
이삭처럼 무겁게 드리운
생각이 있나니

농사가 잘되면 제일 기뻐하시는
장군님 생각
우리 사는 새집도 남먼저 찾으시여
뜨락에 자라는 과일나무도
일일이 헤아려주시는분
이땅엔 이제 태여날
농민의 자식이름도 지어주신
사랑의 전설도 있어라

이 땅 그 어딜 가시여도
우리 농민들의 집에
문득 기별도 없이 들리시는분이어서
하루일 끝낸 저녁이면
달 기우는 동구밖을 오래오래 바라보며
이 가슴속에 그리움이 곡식처럼 자라는
아버이장군님 생각

한해 두해
땀으로 이 땅을 걸구며
이 마음속에 싹트고 자라는 소원은
언제면 이 땅에 나를 아낌없이 바쳐
하늘높이 난알산을 쌓을수 있을가
언제면 그 언제면
장군님의 농민된 도리를 다할수 있을가

그때문에
오, 그때문에
들에는 종다리노래가 끊고

파릇파릇 돌아나는 새싹이 고와
이 땅에 정을 붙이고 사는 우리여라
이랑이랑마다에
정과 땀을 묻는 우리여라

우리 장군님 가시는 곳마다
달리는 야전차차창가에
알알이 영근 이삭들이 주렁주렁 그림처럼 비끼여
이제는 농사일을 마음 놓는다고
기쁘시여 그리도 기쁘시여
온 들이 환하게 웃으실 그날을 위해
이 땅에 아낌없이 바쳐가는
농민의 이 순정 이 랑심

자강도사람들처럼
김철과 남흥, 홍남과 대계도사람들처럼
강성대국으로 내달리는 저 대오속에
이 어깨가 부르트도록
무거이 쌀짐을 지고 들어서야 할
이 땅의 주인이거니

우리 장군님
그처럼 바라시고 념원하시는 리상
쌀이 넘쳐나는 나라
쌀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로
내 조국을 부강케 할
강성대국의 진정한 주인—
조선로동당기에 새겨진 낫을
억세게 틀어쥔
나는 농민이다

전성호

특색있는 구성으로 느껴지는것은...

《조선인민군군사우편 제198—3117(人)에서 복무하는 리철경동무의 어머니가 옳습니까?》

이것이 7개 절로 되어있는 단편소설 《병사의 어머니》 [림봉철 작, 《조선문학》 잡지 주체99(2010)년 7호]의 첫 서두이며 1절내용의 전부이다.

작품의 시작이 독특하고도 흥미있다. 호기심이 부쩍 솟구쳐 눈을 대니 어느새 단숨에 읽히워 지고 가슴속에 차오르는 감동 또한 크다.

무엇인가 새롭고 독특하게, 구래의연한 형상창조의 도식을 대담하게 박차고 참신하면서도 기름진 그리고 생동하고 회화적인 형상화폭을 펼쳐려는 작가의 시도가 엿보이며 소설의 구성작업에 기울인 그의 고심어린 노력이 느껴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의 구성은 주선을 굵고 뚜렷하게 그어나가면서도 시공간적으로 겹놓인 지선이 주선을 중심으로 하여 튼튼히 맞물리게 되어야 한다.》

분명 새맛이 난다. 그 새맛은 바로 특색있는 구성에서 오고있다.

특색있는 구성으로 느껴지는것은 무엇보다도 소설의 사건전개과정이다.

소설은 멀리 귀도의 섬초소군인들의 생활에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이른새벽 풍랑세찬 바다길을 헤치며 사랑의 자옥을 새기고 그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불편마저 일일이 헤아려주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이 나라 병사들의 위대한 어머니이시라는 심오한 사상적해명을 주고있다.

소설형상화폭의 중심에는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계신다.

소설의 사상이 우와 같이 밝혀지는 조건에서 기성의 관례를 따르다면 웅당 소설에는 처음부터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선이 있어야 했을것이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처음부터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선이 펼쳐지지 않는다.

소설에서는 병사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아들 철경이의 초소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두개의 지선들을 먼저 전개해나가다가 소설의 중간부분에 와서야 위대한 장군님께서 귀도의 군인들과 철경이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는 뜨거운 사랑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로 펼쳐지는 소설의 주선을 굵직하게 들어앉히였다.

소설은 평범한 한 병사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면서 그와 그의 아들 철경이에 대한 생활묘사에 많은 지면이 집중되면서도 소설의 마

감에 와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품모형상에 그 모든것들이 철저히 복종되고 이바지되도록 하였다.

소설의 사건전개에서 특이하고 매력적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선을 처음부터 주지 않았지만 그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품모에 대한 정서적감동을 매우 크고 충격적으로 줄수 있도록 펼쳐진다는것이다.

그 타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소설이 병사의 어머니와 그의 아들에 대한 지선들을 병행시켜 전개해나가다가 그것들이 주선으로 굵직하게 합쳐지게 할수 있는 초점적인 이야기를 잘 정하고있기때문이다.

그 이야기가 바로 텔레비존편집물 《병사의 고향소식》에 대한 내용이다.

작품의 첫시작도 바로 텔레비존편집물 《병사의 고향소식》의 한 대목으로서 기자가 어머니에게 묻는 말로써 시작되고있다. 작가는 《병사의 고향소식》이라는 텔레비존편집물에 대한 이야기에 형상의 초점을 맞추면서 병사의 어머니의 사건선과 아들 철경이의 사건선,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선을 땀시있게 맞물려나가고있다.

소설의 앞부분에서도 바로 어머니가 《병사의 고향소식》에 출연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방목지에서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가면서 그의 회상속에 어머니가 분계연선마을에 시집온 후 일찍 남편을 잃고 아들 철경이를 남편의 뒤를 이을 총대감으로 키워 내세운 생활묘사로 이어지게 하였다. 한편 아들 철경이의 이야기도 바로 《병사의 고향소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개되였다.

남편없이 키운 외아들 철경이를 섬초소에 세운 후 그에게 고향소식을 전해주는 텔레비존화면앞에 나서는 어머니의 기쁨은 얼마나 큰것인가. 그러나 철경이는 그토록 보고싶은 어머니의 모습을, 그것도 활매등관의 혁신자로 소개되는 어머니의 긍지높은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텔레비존방영이 있다는것을 알았지만 고난의 행군시기 룻지와 멀리 떨어진 섬이다보니 전기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발동기에 쓸 연유를 휘딱하려다가 철경이와 그의 포장이 순번의 식당근무를 서게 되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지만 기쁨의 편지도 쓰고, 어렵고 부족했지만 너무도 랑만적이고 유쾌한 섬초소군인들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형상화폭에 비껴들기도 한다.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병사의 고향소식》에 대한 사건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인간적품모를 밝히는데서도 큰 몫을 맡아안고

이바지되고있다. 귀도의 군인들의 생활실태와 형편을 료해한 총참모부 장령 최정목의 보고자료에 들어있는 섬의 전기사정문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섬초소의 병사들이 전기가 부족하여 《병사의 고향소식》에 나오는 어머니의 얼굴을 못 보았다는 그 점에 누구보다, 무엇보다 가슴이 아프시었다. 하기에 자신께서 직접 철경이의 어머니를 만나 병사의 고향소식을 귀도의 애어린 병사에게 전해주시실 마음을 가지시었고 그 결심으로 하여 파도 사나운 귀도를 찾으시었다. 시급히 전기문제를 풀어주시고 자신보다 병사들의 얼굴을 더 많이 찍어 분장마을의 어머니에게 보내주도록 해주신 한량없는 사랑, 은정어린 조치...

보는바와 같이 《병사의 고향소식》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돌리지면서 그를 매개물로 하여 병사의 어머니와 아들의 혈육의 정이 이어지고 그 혈육의 정을 초월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인간사랑의 고매한 품모가 더욱 뚜렷이 부각되게 되었다.

소설은 이렇게 지선들을 먼저 전개하면서 그것들이 초점적인 하나의 사건을 축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위인적품모에 대한 이야기의 주선에 조화롭게 묶여지도록 하는 독특한 구성조치를 취하고있다.

소설은 이에 알맞게 사건전개수법도 전도와 회상, 뒤집기 그리고 함축과 비약의 수법 등 다양한 방법들을 조화롭게 어울려 씬으로써 형상전반이

상식

기억력을 높이자면

기억이란 지난날 자기가 겪은 일들이 뇌에 반영되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람이 흔히 나이들면 기억력이 나빠지기마련이지만 좋은 기억력을 계속 유지할수 없는것은 아니다.

기억력을 개선하거나 높이기 위해서는

① 주의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대뇌피질에 공고한 기억흔적을 남기자면 기억하고저 하는것외의 잡생각을 없애고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② 흥미를 가져야 한다.

흥미를 느끼지 않는 일들은 그냥 스쳐지나가버리고말며 기억에 남지 않는법이다.

기억하고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흥미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리적으로 리해를 해야 한다.

리해는 기억의 기초로 된다. 원리적으로 리해하지 않고 억지로 외우기만 해서는 기억이 오래가지 못한다.

④ 기억을 반복해야 한다.

립체감이 나고 굴곡과 탄력이 있게 펼쳐지도록 하였다.

구성조직에서 특색있는것은 소설의 첫시작과 끝을 매우 독특하고 인상적으로 하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소설의 첫시작은 《조선인민군 군사우편 제198—3117(시)에서 복무하는 리철경 동무의 어머니가 옹습니까?》라는 텔레비존방송기자의 말로 되었고 마감은 《조선인민군 군사우편 제198—3117(시)에서 복무하는 아들 철경이에게...》라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 단락으로 인용되어있다.

잘막하면서도 많은 의미가 집약되어있는 시작과 끝대목들로써 소설에 대한 흥미도 느낄수 있게 하고 소설형상의 속도감도 느껴지게 한다.

물론 작품에는 일부 부족점도 있다.

하지만 소설은 단편소설창작에서 구성조직의 보다 독특하고 새로운 면모를 개척하는데서 좋은 경험을 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올해에도 작가가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작품창작에 남다른 자기의 창작적열정과 지혜를 바쳐가리라는 기대를 우리는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

전이련

한번 기억된 문제들을 다시 머리에서 되새겨 생각에 떠오르게 하군 해야만 기억이 공고해진다.

⑤ 읽기, 생각, 보기, 듣기 등을 결합하여야 한다. 사유, 언어, 시각, 청각 등이 다 동원될 때 기억이 공고한것으로 된다.

⑥ 여러가지 기억수단을 리용해야 한다.

특징기억, 음성기억, 회고기억, 취미기억, 도표 또는 그림기억, 요강기억, 카드기억 등을 다 동원시킬 때에 기억은 확고한것으로 된다.

⑦ 최적기억시간을 리용해야 한다.

기억이 제일 잘되는 시간은 오전 9~11시, 오후 3~4시, 저녁 7~10시이다.

⑧ 나이가 들어도 머리쓰는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⑨ 영양섭취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특히 물고기류, 고기, 콩, 동물의 간, 닭알 등이 좋다.

충분한 영양, 합리적인 휴식, 적극적인 몸단련, 량만적인 정서활동, 규칙적인 정신노동 등은 다 기억력을 높이는 주요조건으로 된다.

나는 고난의 나날에 아버지로 되었다!

대견스럽다
이 아버지의 작지 않은 손집도
승벽내며 저저마다 앗아들고
어머니의 일손을 덜고 싶어 애쓰는
나의 두 아들과 딸

열여섯살!
변성기에 이르러 목소리도 결결해진
말이의 어깨우에 세월을 얹어보니
몽클 젖어드는 마음
세월은 벌써 이렇게 흘렀구나

민족의 어버이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안고 설날을 맞던 해
온 나라 인민에게 친필서한을 보내시고
우리 장군님 다박술초소를 찾으신 해에
생의 고고성을 터친 만아들
그날부터 조국은 얼마나 다난한 길을 왔던가

우리 장군님 선군의 보검으로 헤쳐오신
고난의 행군 강행군길
준엄한 나날에 둘째가 태어나고
귀여운 딸이 태어나고...
오, 나는 고난의 그 나날에 아버지로 되었다

자식들의 맑은 눈동자에
파거로만 남을수 없는 그 세월이 다 비낀듯
그늘없는 그 모습들을 다시 굽어보니
흐뭇하구나 이 마음
교생은 이기면 이렇듯 공지로운것인가

비행사 땅크병에 간호원까지 있어
안성맞춤이라고
온 집안이 웃고 이웃들이 웃을때면
뽀로통해지는 딸
비행사는 제가 된다고 떼쓰는 바람에
즐겁게 떨기지는 웃음소리 웃음꽃...
씩씩하고 활기찬 자식들 모습
강성대국대문앞에서 그 모습 굽어보며
속연히 품는 생각
감사의 인사를 받아다오 조국이며
고난의 행군길을
락원의 행군길로 이어놓은 조국이며!

그대를 믿었기에
세 자식을 낳아키우지 않았던가
가슴저미는 아픔도 곤난도
반드시 가서지리라 앞날을 믿었기에
세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로 될수 있었던...

그대를 믿었기에 선군의 길 따랐기에
후대들의 희망찬 앞날을 위하여
일터로 향한 걸음 비척인적 없었다
틀어진 붓을 멈춘적 없었다
세 아이의 부모된 자각은
타끓는 열정되어 이 가슴 더웁혔거니

이제는 더 없으리
아이들 손에 들려줄것 모자라
가슴에 맺히던 안타까움
배끓은 철부지들 눈동자앞에
눈물이 핑 돌던 그런 순간들이

온 마을의 부러움 받으며
아침마다 나란히 학교로 가는
활기찬 아이들을 바라우며
가슴가득 안아보는 뿌듯한 공지며

천만가지 리상이 현실로 꽃피는
오늘을 당겨 용용히 살아온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참전자
선군조국의 래일을 굳이 믿어
아들딸을 총대감들로 키워가는
그것이 기쁨이고 보람인 나의 삶

더 행복한 생활을 이 땅에서 마중하고저
오늘을 바쁘게 살며
미래위해 할일이 갑절로 많은
나는 이 나라의 공민이며 아버지

어엿이 자라거라 아들들아 딸아
영웅이 된 너희들을 앞세우고
온 나라가 보라고 가슴펴고 나설 때
나는 말하리
아, 나는 고난의 나날에 아버지로 되었다!

윤정길

나의 앞날

1

따사론 봄별이 한껏 무르녹는 4월말이었다. 그 날은 은애가 석암농장 7반 3분조 농장원이 되어 첫 출근을 하는 날이어서 이른아침부터 한호실 언니들과 함께 작업복을 다려입는다, 장화를 닦아 신는다, 밥팩을 썬다 하며 부산을 피웠다.

이때 푹푹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살머시 문을 열어보니 좀 작을사 한 키에 다부진 몸집과 혈색좋은 얼굴을 가진 청년이 한쪽어깨에 통같은것이 들어있는 배낭을 걸메고 서있었다.

은애는 그가 한분조에 속해있는 합숙생인 변철민임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등에 진 저 배낭은 무얼까? 밥팩이 저렇게 크지는 않을텐데... 하고 속생각을 하는데 철민이가 그것을 텅텅 두드렸다.

《은애동무두 이런 물배낭을 준비하라구. 아무래도 분조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니 나와 함께 웅당말는게 옳지 뭐.》

은애는 영문을 몰라 별같은 눈을 깜빡거렸다.

엇저녁 작업반에서 분조원들과 인사를 나눌 때 분조장한테서 매일 점심밥팩을 준비하라는 말은 들었어도 물배낭을 준비하라는 말은 못들었던 것이다.

《오— 동문 처음이어서 잘 모를수 있지. 저기 간석지벌에 나가면 먹는물이 제일 귀하거던. 여기서 단물을 물통에 넣어가지고 나가야 해종일 갈증을 건딜수 있다 그 말이요.》

그제야 깨도가 되었으나 은애는 선뜻 움직이지 못했다. 집에 있을 땐 수도꼭지만 살짝 틀면 팔팔 쏟아지던 흔하디흔한 물을 여기선 벌에까지 지고 다녀야 한단 말인가, 오기 전부터 사람들이 말하던것처럼 여기 간석지벌에서의 생활이 결코 험치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까짓 물보장 쯤이야 하는 생각에 은애는 얼른 부엌에 들어가 댕터터썹 돼보이는 비닐통에 찰랑찰랑 맑은 물을 담아 배낭에 넣어 등에 지었다. 처음이어서 그런지 은애한테는 가볍게 느껴졌다.

그들은 들판으로 시원하게 뻗어간 길에 들어섰다. 여러가지 무늬의 조개껍질들이 다문다문 박혀있는 길을 따라 걸느라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즐거워졌다.

저 멀리 바다쪽에서 이 고장 특유의 해감내가 물씬 풍겨오고 배고동소리도 은은하게 울려왔다.

산골에서는 이맘때 동산꼭대기에나 겨우 걸터앉았을 해가 여기서는 동녘하늘가에 한발이나 떠올라 병글병글 웃고있었다.

가슴이 탁 트이도록 드넓게 펼쳐진 논벌너머로 수평선마냥 뻗어간 수십리제방이 아침안개속에서 신기루마냥 바라보였다. 그 너머에서 출렁거릴 바다의 파도소리가 귀전에 들려오는듯싶었다.

옆이 조용하길래 돌아보니 철민은 자그마한 책을 열심히 들여다보며 걸고있었다.

《무슨 책을 정신없이 읽어요?》

《응, 간석지토양에 대한 책이야. 농업전문학교 시절에 결심했던 염기세척제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는거요.》

은애는 듣느니 처음이어서 《염기세척제를요?》하고 되물었다.

《그래. 여기 간석지벌에서 새로 부치는 땅들은 몇년은 걸려야 웅근소출을 낼수 있거던. 그건 전적으로 염기의 피해때문이지. 그래서 난 첫해부터 옥백미가 광광 쏟아질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능 높은 염기세척제를 연구해내자는거요. 그러구 우리 대계도간석지에는 한개 군의 부침땅면적과 맞먹는 새땅이 생겨났기때문에 로력이 많이 요구되는데 난 모든 농사일을 기계화하자는거요. 가령 벼수직과파종기 같은것을 만들면 파종에 드는 술한 로력을 절약할수가 있지.》

금방 터지려는 꽃망울처럼 발그스름하고 오동통한 은애의 얼굴에 야릇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대단한 공상가로구나. 붕 뜬것 같애...)

은애는 물배낭을 추스르고나서 떠지던 발걸음에 힘을 주었다.

그들은 10리쯤 걸어 분조포전막에 이르렀다.

자그마한 부엌과 널찍한 방 한칸으로 되어있는 포전막은 비록 자그마하나 산뜻하고 알뜰하게 꾸려져있었다.

물배낭을 벗어놓은 은애는 이마의 땀을 씻으며 검은 비계덩어리처럼 기름이 철철 흐르는 분조포전들을 정찬 눈길로 바라보았다. 여기저기 싹터열게 내배여있는 소금기와 송송 뿜어져있는 갈계구멍들이 보일뿐 손톱눈만 한 돌 하나도 찾아볼수 없었다. 그야말로 옥실이 절로 나 등에라도 떠지고 가고싶은 땅이었다.

이윽고 분조원들이 모두 포전막에 모여들었다.

키가 크고 몸집도 우람찬 공승남분조장이 작업조직을 했다.

은애는 이곳 토배기이며 분조의 좌상적인 조창근아바이와 40대의 녀인인 림덕화와 한조가 되어 논두렁가래질을 하게 되었다.

창근아바이가 장부를 잡고 은애와 덕화는 줄을 당겼다. 이런 일을 해보지 못한 은애인지라 시작부터 서툴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가래날이 제멋

대로 후툴거리고 흙밥이 제자리에 떨어지지 못했다. 그때마다 창근아바이가 가래질을 멈추고 하나하나 묘리를 가르쳐주곤 했다. 림덕화도 적극적으로 요령을 대주었다.

은애네 가래조는 다른 조들에 비해 껍 굵게 전진했다. 자기때문이라는 생각에 은애의 얼굴은 발강게 상기되고 잔등에서는 진땀까지 돌았다.

오전 휴식시간이 되어 포전막에 모여든 분조원들이 물통을 기울이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애도 물을 먹고싶었지만 가래줄을 제대로 당기지 못해 일자리를 내지 못한 죄스러움때문에 한켠 구석에 오도카니 앉은채 창문으로 자루 긴 가래삽이 푹 꽂혀있는 논두렁만 바라보았다.

《은애 왜 가만 앉아있나? 어서 여기 와 물을 마시라구.》

창근아바이가 손짓해서야 은애는 조심히 일어나 물통걸로 다가갔다. 림덕화가 얼른 맑은 물을 한고뿌 쏟아서 그의 손에 들려주었다. 그걸 꼭 마시니 것처럼 맛있는 물이 세상에 없는듯싶어도 한고뿌 마셨다.

분조원들이 어느새 은애를 화제에 끌어들었다. 《아버진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 무슨 처장을 한다면서?》

《어쨌든 옹해요. 도시에서 나서자란 처녀가 여기 간석지농장으로 온다는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오자마자 오늘 아침엔 물통까지 지고 나왔다니 까요.》

《그래서 이자 먹은 물이 것처럼 달았던 모양이군.》

《그럼요. 새사람이 지고 나왔으니 새맛이 날수 밖에요.》

《호호호...》

오직 철민이와 분조장만이 여기에 끼우지 않고 있었다. 철민은 수곳이 앉아 책을 읽고있었고 분조장은 묵묵히 무슨 생각엔가 잠겨있었다.

은애는 그런 분조장이 어려워났다. 첫날부터 일을 제대로 제끼지 못하고있는 자기를 마음속으로 저울에 달아보고있는것처럼 느껴졌기때문이었다.

작업시간이 되자 은애는 제일먼저 포전막에서 나와 논두렁으로 향했다. 아까보다 더 열성적으로 가래줄을 잡아당겼으나 서툰 솜씨는 여전했다. 하여 저녁작업종화시간에 은애네 가래조는 제일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수그리고있는 은애의 등을 두드려주며 창근아바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일없다. 아무럼 첫술에 배부르겠나. 열성만 잃지 않으면된다.》

《그래. 나두 첼맨 여기 일이 영 손에 붙질 않아 거부기 한가지였던다. 그러나 이제 한해가 지나고 두해가 가느라면 은애두 펄펄 날게 돼.》

림덕화도 덩달아 맛장구를 쳤다. 그 말을 들으니 은애는 다소 마음이 놓이는것 같았다. 이렇게 생소한 간석지농장에서의 첫 하루가 지나갔다.

2

싱그런 공기가 가득차흐르는 이른새벽이었다.

합숙마당에서 은애가 비닐자루같은것을 어깨에 메고 닭모이 뿌리듯 휘휘 손을 내젓고있었다. 그때마다 희끄무레한 모래가 마당에 네모방정하게 그어놓은 금안에 떨어져내리곤했다. 비닐자루안의 모래를 다 뿌리면 마당비로 그것을 깨끗이 쓸어 모아 또 반복하곤 했다.

부엌에서 밥짓던 취사원어머니가 창밖을 내다보며 느슨한 미소를 짓고있었다.

은애는 지금 벼씨뿌리는 방법을 미리 숙련하는 중이었다. 그새 농사일이 서둘러 고심해온 그는 다음번 영농공정인 벼씨뿌리기에서는 남에게 짝지지 않으리라 속으로 별렀다. 그러자면 그 일을 숙련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째째이 연습을 해보고있는것이였다. ...

드디어 벼씨뿌리기가 시작되였다. 백마—철산물길을 따라 굽이쳐온 맑고 푸른 생명수가 논배미마다에 팔팔 흘러들고 프락프락들이 통탕통탕 용을 쓰며 썰레를 치고있었다. 그뒤를 이어 여기 간석지농장에서의 기본씨불임방법인 수직파를 하느라 온 벌이 뿔어번졌다.

은애도 매일 비닐자루를 어깨에 메고 하얀 실꼬트머리처럼 짝이 튼 벼씨들을 뿌리곤 했다.

그새 숙련을 한 덕에 그만하면 웬간하게 제 말은 배미들을 제끼곤 했다.

그러던 어느날 오후였다.

또 한배미를 말아가지고 기운차게 벼씨를 뿌려가던 은애는 별스레 감탕속으로 왼발이 짝옥 빠져드는 바람에 기겁하여 다리를 당겼다. 그러자 이번에는 오른발이 쑥 빠져들었다. 다시 오른발을 뽑으려고 하면 왼발이 빠져들고... 무릎까지 걸어들린 바지가랭이가 어쩔새없이 걸죽한 감탕물에 젖기 시작했다.

《어마나, 이걸 어찌나!》

당황한 나머지 두발을 동시에 뽑으려는 순간 감탕물이 우로 분수처럼 솟구쳐올라 은애의 얼굴이며 작업복 곳곳에 들썩워졌다. 옆배미에서 일하던 철민이가 먼저 이 광경을 발견하고 찹병찹병 다가왔다. 귀염성스럽게 생긴 은애의 귀방울이 발강게 달아올랐다. 어쩔바를 몰라하던 그는 철민이가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어서야 겨우 발을 뽑을 수가 있었다.

저으기 기분이 상한 은애는 내치듯 논두렁에 씨앗주머니를 벗어놓고 저쪽수로 향해 채우쳐갔다. 조잘대며 흐르는 맑은 물로 얼굴을 씻고 작업복을 손수건으로 문대던 그는 소달구지를 세워

놓은 큰길가에서 씨앗가마니를 메고오는 분조장과 눈길이 딱 마주쳤다.

은애는 한순간 당황해났으나 이런것쯤이야 분조장도 리해하겠지 하는 생각에 옷에 묻은 감탕을 흔적도 없이 박박 닦고서야 그 자리를 떴다. 그러다나니 20분남짓한 시간이 흘러갔다.

헌데 심상히 여겼던 그 일을 분조장이 저녁작업종화시간에 딱 끄집어낼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그는 오후에 은애가 20분이상이나 시간을 보낸 것을 지적하고나서 이렇게 무뚝뚝하게 덧붙였다.

《사람은 얼굴보다 먼저 일이고와야 해.》

그 소리는 마치 은애가 일에 몸을 적시기 싫어하며 툭툭 터는 처녀라고 까밝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분조원들의 눈길이 일제히 그한테로 쏠렸다.

은애는 그만 몸돌바를 몰라하다가 활짝 붉어지는 얼굴을 두손바닥에 묻고말았다. 분조장이 차마 그렇게 말할줄은 몰랐던것이다. 생각할수록 그야속해나고 인정머리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총화가 끝나자 은애는 방금 분조원들앞에서 당한 망신이 속에서 내려가지 않아 제일 마지막에야 포전막을 떴다. 머리를 꼭 숙이고 타박타박 걷고있는데 앞에 누군가가 우뚝 서있었다. 변철민이었다.

《인상이 왜 그래?》

《...》

《분조장한테서 욕먹어 그러지? 사실 나두 아까 은애동무가 너무 오래 지체한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뭘 그다지 공해서 그래. 잘못이야 고치면 되는거지.》

은애는 고개를 숙인채 침묵만 지켰다.

《참, 우리 뭘 좀 해보지 않겠어?》

그제야 은애는 호기심어린 눈길을 들어 철민을 쳐다보았다.

《갈게잡이를 하잔 말이야.》

《갈게잡이요?》

《응, 내 좀 연구해본 요리가 있는데 그걸 한번 만들어보는게 어때?》

《요리를 다 연구해요? 호호... 그렇다면 어디 한번 해보지요.》

귀맛이 부쩍 동한 은애는 제 먼저 팔을 걷어올렸다. 철민은 포전막으로 획 뛰어가더니 그물주머니를 가지고 되돌아왔다.

둘은 어느새 모든것을 잊고 갈게잡이에 정신이 팔렸다. 녹두알같은 눈알을 빼들고 발바르르 기여달아나는 갈게들을 쫓느라 경충경충 뛰기도 하고 집게발에 손가락이 물려 《아가야...》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여기는 갈게들의 왕국이어서 잠간동안에 그물주머니안에 그놈들을 가득 잡아넣을수 있었다. 은애와 철민은 와슬렁소리가 나는 그물주머니를 맞들고 마을로 향했다.

《대체 이걸로 무슨 요리를 만든다는거예요?》

《그건 아직 비밀이야.》

합숙에 이르니 마당에서 오리먹이를 주던 취사원어머니가 무슨 장난질을 하다가 제일 꼴찌에야 밥먹으러 오는가고 지청구를 했다.

철민이가 비위살종게 대꾸했다.

《어머니, 우린 새 요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먹겠으니 부엌이나 좀 빌려주세요.》

부엌에 들어선 철민은 갈게들을 깨끗이 씻어 절구에 넣고 와작와작 짓이기기 시작했다.

한절구를 다 찼으면 그것을 가제천에 발아내곤 했다. 그렇게 발은 물들을 가마에 넣고 알맞추 끓이니 이상하게도 두부처럼 엉키는것이 아닌가.

그것을 퍼서 양념을 치고 맛을 보던 은애도 취사원어머니도 다같이 환성을 올렸다. 그 맛이 참 별맛이었던것이다.

《이걸 무슨 요리라고 할가요?》

《글쎄...》

《〈갈게순두부〉라고 하는게 어때요?》

《그게 좋겠어, 하하하.》

《호호호.》

철민이와 은애는 그 갈게순두부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다. 은애는 연방 맛있다고 하면서 곱배기까지 했다.

식사를 끝내고 부엌문을 나서던 은애의 귀전에 문득 안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보라구 철민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나?》

《실은... 저 은애동무가 오늘 분조장한테서 말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분전환을 시켜주느라구...》 웬일인지 속이 몽클해났다. 호실에 들어온 은애는 깎아놓은 사람처럼 앉아있었다. 오늘 있는 일이 돌이켜지면서 앞으로는 매사에 심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것이였다. 그러나 생각이 결코 쉽게 실천되는것은 아니였다.

...어느덧 씨불입은 끝나고 마치 땅속에서 푸른 빛이 점점이 솟아오르는듯 하더니 드넓은 간석지벌은 그 한빛으로 완연하게 물들었다. 그우로 목, 부리, 다리가 류별나게 길고 날개 또한 평장히 큰 두루미와 왁새들이 너울너울 떠다니고 마을앞의 논배미와 물도랑들에는 흰오리가 한벌 덮여 풍치를 이채롭게 장식하고있었다. 그리고 별로 나가는 큰길 량옆의 수로쪽에는 벌써 남재기란 풀이 무성하게 우거졌다.

푸른 들 어디서나 모보식으로 불이 붙었다.

사람의 손이 기계가 아닌 이상 벼씨를 아무리 잘 뿌린다고 해도 간격을 꼭꼭 맞추어 골고루 뿌릴수는 없는것이다. 게다가 여기는 바람쫓는 날이 별로 없는 고장이어서 갓 싹터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애어린 벼모들이 센 바람에 밀리어 군데군데 빈자리들이 생기는것도 어쩔수 없는 일로 되고있었다.

그날 아침도 은애는 전날 모보식으로 하여 아직도 빠근한 다리를 끌고 맨 나중에야 들로 나갔다. 등에 진 물배낭이 천근만근으로 무거워났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땐 겁적하게 느껴지던것이...

포전막에 들어선 은애는 벽에 기대앉아 눈을 꼭 감았다. 온몸이 나른한것이 움직이기 싫었다.

그는 요즘 갓 일을 시작했을 때의 랑만과 열정이 점점 식어드는듯 한 느낌을 받고있었다. 하루종일 감탕물속에 빠져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하는 일, 허리가 당장 끊어져나가는듯 하고 다리가 빠근해났다. 그러느라 별의별 생각이 다나군 했다. 저 멀리 도시에 있는 정든 고향집과 사랑하는 부모님들, 깨끗하고 화려한 거리들과 웃음소리높은 공원, 유원지들, 다정한 이웃들과 추억많은 동창생들... 밤이면 허리와 팔다리가 못 견디게 쑤서와 인차 잠들지 못하고 꿈꿨음을소리를 내군 했다.

아침에 거울을 들여다보다가는 저도 모르게 와 뜰 놀라며 자기 눈을 의심하기도 했다. 가무스레한 얼굴, 훌쩍 꺼져든 볼, 부르튼 입술과 줄아든듯 한 몸... 이러다가 여기서 꽤 견디여내겠는지 자신이 못미더워나기도 했다.

지금도 은애는 그 생각을 하느라 분조장이 작업조직을 끝낸줄도 몰랐다. 《은애동무》하고 철민이가 찾아서야 화뜰 놀라 눈을 떴다.

은애는 이날 아침따라 별스레 차거운 물속에 들어서기가 끔찍해났다. 그러나 분조원들은 그런 것쯤은 대수롭지 않은듯 성큼성큼 논판에 들어서서 일을 시작한다. 할수없이 은애도 한배미를 말아 모보식을 해나가며 호 한숨을 내그었다. 나도 언제든 저들처럼 될수 있을까? 아니, 그런 날이 오기는 올가? 작업이 시작되어 뒤시간쯤 흐르자 별안간 바다쪽에서 뽀얀 안개발이 일어났다. 그것에 휩싸여 섬이며 제방쪽들이 희미하게 보여왔다. 얼마후에는 구름이 끼면서 청청 맑던 하늘이 흐릿해졌다. 찬기운을 머금은 바람이 울씨년스럽게 불어왔다.

은애는 목덜미가 오싹해나고 물속에 잠근 손발이 시려나는것을 느끼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분조원들의 말에 의하면 서해를 옆에 끼고있는 이곳 날씨란 참 변덕스럽게 짝이 없다고 한다. 방금전까지 해가 쨍쨍 났다가도 캄캄 흐리어 준비를 퍼붓는가 하면 바람 한줄기 없이 잔잔하다가도 광풍을 일으키며 미친듯이 불어댄다는것이다. 늦은 봄에 폭설이 내리고 이른 가을에 우박이 떨어지는 때도 있다고 한다.

파연 줌 있어 보슬보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많은 내리지 않으면서도 속옷을 적시고 뼈속까지 적시는 고약한 비였다. 차라리 콧 퍼부었으면 포전막에라도 들어가있으련만...

그러나 누구 하나 작업장을 떠나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어 시원하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포유하게 흥겨운 민요가락을 뽑아 넘기는 사람도 있었다.

은애는 몸이 떨려나 견딜수가 없었다. 게다가 허리까지 아파났다. 그렇다고 말은 배미를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작업장을 뜰수는 없었다. 은애는 빨리 일을 다그쳐 끝내기 위해 모든걸 참고 부지런히 손발을 놀렸다. 웬일인지 허전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열댓미터 떨어진 곳의 몇군데가 웬 비여있는것이 아닌가. 합치면 반평정도 될것 같았다.

빨리 끝낼 생각에 경황없이 덤벼치다나니 그곳을 그냥 지나쳐왔던것이다. 그곳으로 되돌아가야겠으나 다리에 무거운 쇠덩이가 매달린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저 한시바삐 따뜻한 아래목에 눕고싶은 생각만이 머리속에 썩숯듯 솟아오를뿐이었다.

(에라, 모르겠다. 그까짓 반평정도의 땅이 빈다고 이처럼 넓고넓은 땅의 수확에서 자리가 생길가?...)

은애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쓰면서 계속 앞으로 나갔다. 남먼저 보식을 끝내고 포전막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 반평정도의 빈땅이 논고를 돌아보던 창근아바이의 눈에 걸려들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바이는 제격 삽을 놓고 논배미에 들어섰다. 마침 자기 배미를 다 끝내고 이쪽으로 오던 림덕화도 그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팔을 걷어올렸다.

그들은 함께 모보식을 하고서야 포전막으로 돌아왔다.

창근아바이는 그냥 스칠수 없다는듯 은애를 불러앉혔다.

《... 난 은애가 그럴줄은 정말 몰랐다. 비록 얼마 넓지는 않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그 한치 땅에도 간석지건설자들의 땀이 스며있다는걸 네가 모른단 말이냐. 땅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는 사람은 여기 간석지농장에서 일할 자격이 없느니라. ...》

엄엄하게 울리는 그 말은 예리한 칼끝처럼 은애의 흥벽을 찔렀다. 림덕화도 은애를 꾸짖었다.

《난 은애가 도시를 떠나 간석지로 왔길래 의지가 강한 처녀로만 생각했구나. 그런데 요만 한 난관도 이기지 못해 그 귀한 땅을 버리고 도망을 치다니? 앞으로 진짜 이 땅의 주인이 될수 있겠는지 의심이 가는구나. ...》

은애는 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싶은 심정이였다. 창근아바이와 덕화아주머니한테서까지 말을 듣다니?... 그래도 그들은 지금껏 은애를 여러모로 깊이 이해해주었고 잘 도와주었었다. 이런 사람들한테서까지 팽대를 받고보니 은애는 눈앞이 캄캄하고 자신이 외롭고 쓸쓸하게만 여겨지는 것이였다.

달빛도 밝은 간석지 이밤 백리제방 바라보니
구슬땀 흘린 청춘의 보람 가슴에 넘쳐나네

그날 밤 기타반주에 맞추어 호실언니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였다. 그 노래처럼 밖에는 환한 달빛이 흐르고있었다. 그전같으면 창가에 다가선채 달구경을 하면서 그 정서깊은 노래를 조용히 따라불렀을 은애였건만 오늘 밤은 아무런 흥심도 없었다. 자리에 누워서도 잠 못들고 뒤치락거리기만 했다.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만 돌이켜지면서 정신이 새록새록 맑아졌던것이다. 어쩐지 자신이 원망스러워났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 원예사가 되려던 꿈과 결심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이곳에 오지부터 않았을것이며 오늘과 같은 일을 당하지도 않았을것이다. 지금쯤이면 사람들의 물결이 그칠새없는 도소재지의 아름다운 공원에서 꽃과 나무를 가꾸고있을것이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추억속에 잠겨들었다.

...그것은 산과 들이 연록색으로 물들어가던 몇해전 봄날이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3호방조제마감막이전투가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대계도간석지건설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조직했다.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마련한 지원물자를 들고나왔던 은애는 내친김에 그곳에 한번 가보고싶은 호기심과 충동을 누를수 없었다. 간석지 막는것을 기록영화나 텔레비전화면에서나 보아왔지 아직 한번도 직접 본적이 없었기때문이었다.

그는 지원물자 실는것을 도와주다가 살그머니 뺄스안에 숨었다. 뺄스가 퍼그나 달린 후에야 딸을 발견한 아버지는 성을 냈으나 이내 머리를 끄덕거렸다.

《차라리 잘됐다. 도시에서만 살아온 네가 바다바람을 맞아볼 필요가 있지. 좋은 체험이 될게다.》

모내기가 시작된 벌 한가운데로 난 도로를 따라 경쾌하게 달리던 뺄스는 어느덧 다사구에 들어섰다. 언제면 바다가 보일까 하고 줄곧 차창밖을 바라보던 은애는 저도 모르게 《야!》하고 환성을 올렸다. 드디어 흰 물결이 반짝이는 바다가 나타났던것이다. 푸른 바다 한가운데를 꿰질러 섬과 섬들을 련결하며 직선으로 뻗어간 제방이 바라보였다. 그우로 섬없이 오가는 자동차들은 마치 작은 점이 움직이는것처럼 얼려거렸다.

쿵, 쿵쿵 발파소리가 귀전을 메우며 울려왔다. 그 모든것을 보는 은애의 가슴은 후드득 널뛰듯 했다.

제방우에 올라선 뺄스는 어느 사이에 마감막이

전투가 벌어지는 3호방조제 한가운데 벗어섰다.

뺄스에서 내려서자 비릿한 소금내를 머금은 세찬 바다바람이 은애를 휩싸안았다. 은애는 탄세상에라도 온것처럼 놀라운 눈길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여기저기에서 펄럭이는 붉은기발들, 방송차에서 울려나오는 힘찬 노래소리, 힘찬 글씨들이 살아움직이는듯싶은 대형속보판들, 자동차들의 경적소리, 돌 쏟아지는 소리, 호각소리, 웨침소리...

그리고 끝간데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쉬임없이 밀려와 제방을치는 세찬 파도, 마감막이구간으로 거센 소리를 지르며 빠져나가는 무시무시한 물의 흐름... 그것을 보느라니 발밑이 당장 꺼져내려 바다속에 빠져드는듯 한 환각이 오고 눈앞이 어질어질해났다.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한번에 2억 5 000만톤에 달하는 거대한 량의 바다물이 하루에 두번 이곳을 나들며 집채같은 바위도 모래알처럼 휩쓸어간다는것이였다.

건설자들이 굵다란 쇠줄로 엮은 쇠그물자루를 제방끝에 세워져있는 설치틀에 설치한다. 자동차가 그자루안에 와그르르 돌을 쏟아넣는다. 돌이 다 차자 아구리를 엮어매고 신호에 따라 걸개턱을 함마로 쳐서 벗긴다. 그러면 수십톤중량의 쇠그물돌자루가 통채로 떨어져 바다물속에 침범 처박힌다.

《또 한개 떨어진다!》

건설자들의 기쁨에 넘친 웃음소리, 정말 장쾌한 광경이였다. 그것이 바로 간석지건설자들이 생각해낸 룡상쇠그물돌자루투석기공법이라는것이였다.

이쪽과 저쪽 량면 제방에서 엇바뀌어 연방 돌자루들이 떨어져내린다. 어찌나 많은 돌이 들어가는지 돌자루들이 연방 떨어지는데도 은애에게는 밀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보였다. 하긴 제방이 한메터 전진하는데 돌이 4 000립방메터씩이나 들어간다니 더 말해 무엇하랴. 그 많은 돌을 실어나르기 위해 자동차운전사들은 하루평균 550리씩 달린다고 한다. 그래도 돌이 모자란다는것이다.

어찌나 많은 돌을 캐냈는지 섬들은 낮아져 거의 수평이 되었다고 한다.

어느덧 썰물이 지고 간석지땅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은애는 《야!》하고 또다시 환성을 질렀다.

한쪽은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푸른 바다, 다른쪽은 거무스레한 기름진 땅, 련련히 뻗어간 산발들도 아득하니 바라보였다.

은애는 두손을 가슴앞에 모두어친채 이윽도록 그 땅을, 그 풍경을 흘린듯이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곁에 다가와 물었다.

《어떠냐, 간석지가 멋있지?》

《정말 멋있어요.》

《이제 여기에 버바다가 설레이게 되면 그땐 아마 더 멋있을거다.》

《야, 정말 그래요.》

《은애야, 이 땅을 그저 하나의 풍경으로만 보아서 안된다.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항일전의 그 나날에 간석지를 막아 조국의 대지를 넓혀가실 구상을 무르익히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아버이수령님의 그 구상을 이 땅에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던 나날에 이 땅우에 펼쳐진 새땅이다. 이 땅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사는 사람이 진짜애국자가 될수 있다. …》

그날 아버지는 간석지에 대하여, 간석지벌의 전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날의 충격이 은애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아버지의 이야기가 귀전에서 떠나지 않았다.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자 은애는 여기 간석지벌로 탄원할것을 결심하였다.

결심은 했으나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곳에 가서 내가 꽤 건디여낼수 있을까? 농사일이란 해본적이 없는 내가 아닌가?...

은애는 망설이던 끝에 자기의 결심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처음엔 놀라더니 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어머니도 처음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으나 은애의 결심이 확고한것임을 알고는 찬성하고말았다.

학교의 선생님들도 동무들도 훌륭한 결심을 했다고 칭찬해주었다. 물론 우리를 표시하는 동무들도 있었다.

《네 결심이 훌륭하다는건 나도 알아. 하지만 생활은 우리가 책상에서 그려보던것과는 다르다는걸 알아야 해. 너야 원래 원예사를 꿈꾸어오지 않았니. 중도에 포기할 결심이면 애당초 하지 않는것만 못하지. ... 그러니 잘 생각해봐!》

한책상에서 공부해온따친구 최명심의 말이였다.

은애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내가 정말 어떤것에 현혹되어 너무 쉽게 결심을 내린것이 아닌가. ... 그럴수록 그날에 본 그 간석지땅이 자꾸만 눈앞에 밟혀왔다. 아니, 이제 결심을 바꾸고 그 땅을버린다면 난 한생 후회속에 살게 될거야. ... 하여 은애는 부모들과 전체 학교의 따뜻한 배려움을 받으며 여기 석암간석지농장으로 왔던것이 다. ...

그런데 처음과는 달리 점점 의욕이 식어들고 또 사람들의 말밥에까지 오르다나니 자연히 자신이 원망스러워나는것이였다.

내가 너무 쉽게 결심하고 여기로 온건 아닐까?...

이런 고민속을 헤매느라 그는 밤새 변변히 자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부석부석한 얼굴로 일어난 은애는 여전히 수심에 잠겨 일어나갈차비를 했다.

똑똑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매일 아침 변함없이 철민이가 찾는 소리였다. 오늘 아침은 웬일인지 그 소리가 외로운 산중에서 인기척소리를 듣는것처럼 반가웠다.

은애는 그한테 이상한 기미를 보이고싶지 않아 냉큼 물배낭을 지고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나란히 논벌로 향했다.

어제 늦게까지 비가 와서인지 길은 질적질적했다. 얼마 못 가서 시커먼 감탕이 장화에 무겁게 달라붙었다. 철민이가 시끄러운지 밭을 탕 구르며 투덜거렸다. 《이제부턴 비가 자주 올텐데 이놈의 길도 더욱 완성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밭바닥에 먹지도 못할 감탕죽을 논 한배미만큼씩이나 달고 다녀야 하거던.》

《아니, 어떻게요?》

《돌과 모래를 깔고 포장도로를 해야 한다 그말이요. 그리구 뺄스까지 척 타고 출퇴근을 하면 좀 좋겠어.》

《호호호, 동문 역시 공사가예요, 공사가!》

《아니, 며칠전에 분조장이 하던 말을 못 들었어? 올해농사를 짓구나선 이 길을 보수한다고. 이렇게 한가지씩 해나가느라면 그 어떤 공사도 모두 현실로 이루어지는거지. 문제는 앞날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고 락천적으로 살며 일하는거야.》

은애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철민을 다시 쳐다보았다. 처음엔 그가 씨박히지 않고 들뜬 사람처럼 보였지만 차츰 날이 감에 따라 진실하게 느껴지는것은 무엇때문일까? 지난해에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한 철민은 옹근 한개 군의 부침땅면적과 맞먹는 이 대계도간석지를 하루빨리 진짜 한개 군으로 만들 꿈을 안고 이곳으로 왔다고 했다. 얼마나 크고 소중한 리상과 포부가 그의 가슴속에 간직되어있는것인가!

철민이 문득 심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구 내 은애동무한테 한가지 말하고싶은것은 어제일을 가지고 창근아바이와 덕화아주머니를 나뻘 생각해선 안된다는거요.》

《난... 나뻘 생각하는게 없어요.》

《그렇다면 좋구, 사실 그들은 다 이 간석지땅이 귀중해서 그랬던거요. 창근아바이만 놓고봐도 그의 할아버지는 해방전 썰물때마다 꺼명게 드러나 군 하는 이 간석지땅이 하도 탐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동쪽막이를 하다가 그만 밀물에 잠겨 목숨을 잃고말았지. 창근아바이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할아버지의 소원을 풀어주셨다고 말끝마다 외우면서 이 땅을 알심있게 가꾸어 한알의 낱알이라도 더 내기 위해 애쓰고있거던. 그런 아바이니 은애의 전날행동을 두고 가슴아파할수밖에... 덕화아주머니도 마찬가지야. 그의 교향은 산간벽지인 천산군에서도 제일 골깊은 곳에 자리잡고있어.

언젠가 내가 어떻게 되어 바람세찬 이 바다가마
 을로 시집왔는가고 물었더니 <벼짚볼로 짓는 흰쌀
 밥에 망둥이 구워먹는데라구 해서 왔지 뭐.> 하고
 웃으며 대답하더군. 하지만 실은 이 간석지땅이
 고향처럼 정들고 소중하여 그도 이곳으로 왔다고
 난 생각해. ... 사실말해서 우리 농장은 간석지가
 개간되면서 새로 생긴 농장이다보니 여러곳에서
 온 사람들이 많지. 그들모두가 여기에 왜 왔겠어.
 우리 장군님께서 넓혀주신 새 조국땅을 더 잘 가
 꾸어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려는 한마음을 안
 고온것이거던. ...》

숨죽인채 듣고있던 은애의 얼굴이 점점 달아올
 랐다.

김매기가 시작된지 삼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
 다.

분조장이 작업조직을 하고나서 며칠간의 생각
 끝에 굳혔다는 자기의 결심을 말했다. 그것은 분
 조포전구역에서 조금 떨어져있는 묵은땅을 개간
 하는 일이었다. 올해 씨불입은 이미 끝났지만 이
 제부터라도 부지런히 물을 대어 짚기를 씻어내면
 다음해엔 첫 파종을 할수 있다는것이 분조장의
 견해였다. 그의 말에 대다수가 찬성을 표시했지만
 일부 분조원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면서도 말없이 앞장서는 분조장의 뒤를 모두
 가 따라나선 결과 그 두정보의 묵은땅을 개간하
 는 일이 짹짹이 벌어지게 되었다. 물도랑을 채고
 논두렁을 짓고 갈이를 하고... 갈이는 트랙토르가
 들어설수 없기때문에 삽과 팽이로 푸지다싶이 했
 다.

해종일 김매기를 하고나서 저녁에 또 이 일을
 하자니 은애는 힘에 부쳐 견딜수가 없었다. 그는
 점점 분조장의 처사가 불만스러워났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다음해에 부칠 땅인데 지금
 부터 사서 고생할건 뭐란 말인가? 은애한테는 분
 조장이 지나치게 일욕심을 부리면서 분조원들을
 혹사시키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물론 그
 는 제대군인으로서 하면 한다는 배짱이 있고 내
 밀력도 센 분조장으로 알려져있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너무 인정이 없다는 생각으로 은애
 는 이 일을 할 때마다 맥살이 탁 풀리곤 하였다.

그날 저녁도 당장 땅속으로 잣아드는데 한 무
 거운 몸을 겨우 가누며 삽질을 하고있는데 저쪽
 에서 창군아바이가 불쑥 철민이한테 소리쳤다.

《여보게 철민이, 언제부터 연구한다던 그 염기
 세척제가 어떻게 됐나?》

《예, 요즘 첨가제를 얻어다가 실험을 해보고 있
 는데 잘 안됩니다.》

《음, 새것을 만들어낸다는게 떡먹듯 쉬울라구.

좌우간 그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럼요. 그것만 성공하면 이 땅에서도 첫해부
 터 웅근 소출을 낼수 있을거예요. 그리구 앞으로
 아직 묵고있는 땅들도 몽땅 개간하여 첫해부터
 높은 소출을 낸다면 우리 철민인 틀림없이 박사
 가 될거란 말이예요.》

림덕화가 환히 웃으며 이렇게 결들자 분조원들
 도 거끔내기로 철민이가 앞으로 꼭 큰일을 할거
 라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은애한테는 그 소리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시바삐 합숙으로 돌아가 눕고싶은 간절
 한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늦어서야 합숙에 돌아오
 니 뜻밖에도 아버지가 기다리고있었다.

《아, 아버지!》

은애는 너무 반가와 아버지의 팔에 동동 매달
 렸다. 집 떠나 몇달만에 그리운 혈육과 상봉하는것
 인가. 눈물이 쿵 솟구치는 바람에 은애는 눈을 습
 벅거렸다. 아버지도 이름할수 없는 애잡잘한 심경
 에 잠겨 그새 펴 변한듯싶은 딸의 모습을 꼼꼼히
 뜯어보는것이였다. 한동안 회포를 나눈 뒤 은애가
 물었다.

《우정 예까지 오셨어요?》

《아니다. 갑자기 영천읍에 출장을 일이 생겨 왔
 다가 네가 보고싶어 잠깐 들렀다.》

《나두 아버지가 보고싶었어요. 어머니 잘있어
 요?》

《응, 매일 네 걱정뿐이다. 밥이랑 제대로 먹는
 지, 앓지는 않는지. ...나와 마주앉으면 너에 대한
 말부터 꺼내곤 한단다. 그래, 넌 어떻게 지내느
 나? 일이 힘들지?》

은애는 대답대신 고개를 수그리고 꺼칠해진 손
 가락끝으로 장판바닥만 긁었다.

《힘들게다. 어떤 때는 자신에 대한 원망감도 생
 길거구. 하지만 이겨내야 한다. 한번 결심품고 나
 선 길에서 쉽게 물러선다면 그게 무슨 청춘이겠
 니. 헌데 매일 이렇게 늦어지느냐?》

은애는 주저하다가 요즘 저녁 늦도록 하고있는
 일을 숨김없이 터놓았다.

《음, 그러니 보통 힘들지 않겠구나. 그럴수록
 마음을 든든히 먹고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 강철
 도 불속에서 단련된다지 않니. 너 혹시 그 일을
 맡기한 분조장에 대해 고까운 생각을 품고있는건
 아니냐?》

《...》

《섭섭하구나. 그래도 이 아버지네가 여기로 떠
 나올 때 장군님의 뜻을 따를줄 아는 장한 딸을
 두었다는 생각으로 기뻐었다. 그런데...》

왜 분조장이 그 일을 맡기하고 분조원들모두가

따라나섰는지, 그걸 알아야 한다. 그건 바로 이 땅의 래일을 위해서가 아니겠니. 오늘은 비록 고생스러워도 더 좋은 래일이 반드시 이 땅에 꽃핀다는, 그 래일을 자기자신의 힘으로 당겨와야 한다는 신념때문이 아니겠느냐.

은애야, 사람한테 그런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 래야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고 행복한 앞날을 당겨올수 있는거란다. ...》

아버지는 시간이 바쁘다고 하면서 인차 돌아섰다. 은애는 멀리까지 따라나가 배려주었다. 아버지, 이 딸을 용서해주세요. 오늘의 자그마한 고난 앞에서 자신을 이겨내지 못한 이 딸을...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4

삼복철도 지나 아침저녁 선기가 나더니 자연의 빛은 어느덧 온 간석지벌을 누런빛으로 채색하여 놓았다. 간석지벌의 진짜멋, 진짜풍경은 이 가을에 있는것만 같았다. 끝간데없이 아득히 펼쳐진 벼바다, 쉬임없이 일렁이는 황금의 파도, 그우로 훨훨 날아에는 두루미떼...

벼를 베나가던 은애는 잠시 허리를 펴고 흐뭇한 그 풍경을 홀린듯이 바라보았다. 무엇이래 이름할수 없는 감정이 가슴뿌듯하게 차오른다. 바로 오늘의 풍요한 가을을 위해, 오늘의 이기쁨을 위해 봄내, 여름내 땀흘리며 애써온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 멋에 농민들은 자기를 바쳐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새삼스럽게 갈마들었다.

스르륵, 스르륵... 은애는 열심히 낫을 휘둘러댔다.

낫날이 번뜩일 때마다 벼대들이 척척 나가넘어지며 팔에 묵직하니 안겨든다. 어찌나 벼가 잘 뻗는지 몇줄 베지도 않았는데 인차 단이 차군 했다.

벼알들 또한 어찌나 잘 여물었는지 찰싹찰싹 불을 칠 때마다 열열해나군 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어 마지막단을 공공 묶어 무겁게 일으켜세우던 그는 갑자기 뒤로 한발자국 물러났다. 서너메터앞의 약간 후미진 곳에서 무엇인가 푸들쩍거리며 벼대들을 흔들어놓았던것이다.

은애는 옆배미에서 일손을 떼고있는 철민을 소리쳐 찾았다. 철민은 이런 일이 있을줄 알았다는 듯 그물주머니를 들고 넉넉넉큼 뛰어왔다.

《자, 이걸 잡고 아구리를 벌리라구.》

그 그물주머니안에는 벌써 몇마리의 물고기가 들어있었다. 철민은 후미진 곳에 두손을 쑥 들이밀더니 《이크, 큰놈이 걸렸는걸!》하면서 살찐 물

고기들을 연방 건져냈다. 팔뚝만 한 망둥어며 손바닥만 한 붕어, 엇가락같은 미꾸라지들이 그물주머니안에 연방 덧쌓이며 폴떡거렸다.

초여름에 물고를 통해 빨려들어온 물고기들이 이렇게 큰것이였다.

《히야, 오늘 점심엔 생선국을 푸짐히 먹게 됐구나. 기름이 첩첩 흐르는 흰쌀에 이렇게 살찐 생선까지 나니 우리네 간석지벌은 얼씨구 절씨구 정말 좋구나!》

철민은 묵직한 고기그물주머니를 든채 분조원들이 보는 앞에서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다.

그바람에 흐하흐하 즐거운 웃음소리가 터져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가는줄 모르게 또 며칠이 지났다.

벼베는 솜씨가 아직은 서툴렀지만 은애는 이를 악물고 부지런히 벼를 베나갔다.

아버지가 왔다간 다음부터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디느라 애를 쓰고있었다. 정말 다시는 누구한테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싶지 않았고 또 일에서도 뒤떨어지고싶지 않았던것이다.

오늘도 그는 몹시 힘든데다가 몸에 열이 나는 것같은 감까지 들었으나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별로 나왔다. 그러다 잠깐 허리를 펴는 순간 갑자기 어지럼증이 나고 빈혈이 생기는것을 느끼며 모재비로 쓰러지고말았다.

눈앞에서 별찌들이 일었다. 누군가가 급히 자기를 둘러업는듯 한 희미한 감각속에 그는 뒤따라 정신마저 잃고말았다. 그가 정신을 차린곳은 호실이 아니라 어느 낯설은 집이였다.

힘들게 눈을 뜬 그의 망막에 근심어린 눈길로 자기를 내려다보는 할머니의 주름깊은 얼굴이 비쳐들었다. 잠시후에야 그 할머니가 분조장의 어머니이며 자기가 누워있는 집이 분조장의 집임을 알아보았다. 그러니 분조장이 자기를 업고 십리나 되는 길을 달려 여기로 온것이 분명했다.

은애는 일어나려고 모지름을 썼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머리며 뼈마디들이 쿡쿡 쏘고 온몸은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랐다.

할머니가 기겁하여 은애를 도로 제자리에 붙잡아 눕혔다.

《아니, 안되네. 의사가 주사를 놓고 가면서 며칠 안정하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구 했네. 그러구 아까 우리 해동이 아버지가 임잘 업구와서 제집 보다는 못하겠지만 합숙보다는 나을테니 꼭 우리 집에서 치료를 시켜야 한다구 했네.》

(!...)

은애는 더 어찌지 못하고 할머니의 손에 몸을 맡기고말았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지만 병세는

별로 차도가 없었다. 그는 헛소리까지 치면서 무섭게 앞섰다. 새벽녘에야 술곳이 잠든 은애는 저도 모르게 꿈세계에 빠져들었다.

…스산한 찬바람이 이리저리 휩쓰는 간석지벌에서 희고 아름다운 새 한마리가 맑고 푸른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다.

《가지 마, 가지 말라는데두…》

간석지벌이 두팔을 주켜들고 안타까이 소리쳤으나 그 새는 땅에 내려오지 않고 더 높이 날아오른다. 그리고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계속 훨훨 날아가더니 어느 황홀한 도시의 고층살림집 베란다에 내려앉는다.

창문이 열리며 반가움에 젖은 목소리가 튀어나온다.

《은애야!》

《내 딸아!》

그 희고 아름다운 새는 바로 은애였던 것이었다.

...

《아버지! 엄마!…》

이렇게 소리치며 번쩍 눈을 뜬 은애는 머리맡에 앉아있는 분조장을 보았다.

일어나려는 은애를 제지시키고난 분조장은 파끈파끈한 미음을 손가락에 펴서 조갈든 은애의 입가로 가져왔다.

《자, 어서 먹으라구. 그래야 빨리 일어날수 있어. 솔직히 난 처음엔 은애를 미타하게 여겼드랬는데 지내보니 내 생각이 짧았어. 은애 꼭 이 간석지벌의 참된 주인이 될거야.》

은애는 그만 흑 하고 흐느끼고말았다. 인정이란 꼬물만치도 없다고 생각해온 분조장한테 이런 뜨거운데가 있는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분조장동지… 이제 그만하고… 눈을 좀 붙이세요.》

《난 일없다. 자, 어서 입을 벌리라는데…》

분조장은 끝내 은애의 입에 미음 한그릇을 다 떠넣어주고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저녁부터 분조원들까지 떨쳐나 병문안을 왔다. 분조에 은애가 없으니 텅 빈 집같다느니, 이제는 하루라도 은애를 못 보면 살 재미가 없다느니 하면서 여러가지 귀한 약들과 닭곰, 미꾸라지죽과 같은 몸보신에 좋은 음식들도 가지고왔다.

철민은 분조의 가을걷이소식을 이야기하며 동무해주다가 맨 나중에는 합숙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때마다 은애는 고양이손도 빌려 써야 할 때에 누워있는 자신이 안타깝기만 했다.

이렇게 나흘이 지난 날 오후였다. 벽에 기대어

앉아 창밖으로 눈길을 주던 은애는 마을의 로인들이 웅성거리며 들판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은애는 이상하여 할머니한테 물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저녁에 우박이 내린다는 통보가 왔다누나. 그런데 아직 벼도 다 베어놓치지 못하고 동가리도 다 치지 못했으니 그걸 도와주러 나간단다. 은애가만있거라.》

할머니도 말을 끝내기 바쁘게 들판으로 반달음을 놓았다.

…우박?! 우박이 내린단 말이지. 직접 체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은애는 가을우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분조원들한테 들어서 잘 알고있었다. 어느해 벼가울이 갓 시작했을 때 뜻하지 않던 우박이 내려 무수확을 내다싶이 하였다는 그 이야기…

은애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정신이 펄쩍 들면서 온몸을 앞으로 떠미는듯 한 강한 충동을 받았다. 이려고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그는 부랴부랴 작업복을 꺼입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몇걸음 가지 못한채 주춤 굳어졌다. 아직도 빈혈이 오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던 것이다.

그는 담장모서리를 짚고 선채 들판으로 뻗은 길을 바라보았다. 그전에는 손에 잡힐듯 하던 그 십여리길이 오늘은 백리, 천리로 멀어보였다.

은애의 눈앞에는 잇달아 분조원들의 모습이 다가들었다. 분조장이며 창근아바이, 덕화아주머니 그리고 철민동무… 이제는 한집안식구들처럼 정든 그들, 우박으로부터 귀중한 벼를 지켜내기 위해 힘겨운 전투를 벌리고있을 분조원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고 한스러웠다.

아니, 가야 해. 쓰러져도 그들곁으로 가야 해. 은애는 이발을 옥물고 한발자국, 두발자국 억척스럽게 발을 옮겨놓았다. 한시간반쯤 신고를 해서야 그는 분조포전에 이를수 있었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화락하니 젖어있었다.

분조포전은 불도가니처럼 끓고있었다. 벼를 베는 사람, 벼단을 나르는 사람, 동가리를 치는 사람들이 저마다 큰소리로 웨쳐대며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은애도 그들속에 뛰어들었다.

온 들판이 놀랍게 그리고 반갑게 또 그리고 장하게 그를 껴안았다. …

후닥후닥… 포전막 지붕을 들부시는듯 한 우박소리는 한동안 그칠줄 몰랐다. 사정이란 꼬물만치도 모르는 무시무시한 자연의 횡포였다.

하지만 분조원들은 배포유한 표정으로 분조포전들을 바라보며 즐겁게 웃고 떠들고있었다.

면도질한것처럼 반반하고 뿔뿔해진 논배미

들, 남재기와 갈대로 만든 고깔모자까지 탐탁하게
씩은 덩치 큰 동가리들이 저녁 어스름속에 희미
하게 보여온다.

이때 분조장이 감개무량한 눈길로 좌중을 둘러
보며 의미있게 한마디 했다.

《모두들 오늘 정말 수고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개운하고 즐거운것은 단순히 우박
피해를 미리 막았기때문만이 아니라 강성대국건
설대전을 벌리고있는 조국과 가장 가깝게 운명을
함께 하며 그 한 전선을 굳게 지켜냈기때문이라
고 난 생각합니다.》

창근아바이가 희끗한 머리를 끄덕이였다.

《웁수다. 그것 참 제대군인다운 말이웨다. 난
우리가 이 간석지논벌을 전선으로 여기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농사를 잘 지어야 조국의 전진이 빨
라지고 강성대국의 대문이 더 빨리 열릴수 있다
고 생각하우다.》

《정말 그래서 저 앓고있던 은애까지 스스로 달
려나온게 아니겠어요. 난 오늘 제일 수고한 사람
은 바로 저은애라고 생각해요.》

림덕화의 진심어린 말에 너도나도 은애를 칭찬
하며 그의 등을 두드려주고 열싸안아주기까지 했
다. 순간 은애는 너무도 크나큰 격정으로 하여 가
슴이 꺾 메여오르는것만 같았다. 그는 맑은것이
가득 고인 눈길로 분조원들을 둘러보며 마음속으
로 뜨겁게 속삭이였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

×

다음날 아침 은애는 책상에 마주앉아 동창생
최명심에게 편지를 쓰고있었다.

《...이렇게 석암간석지농장에서의 길지 않은 나
날이 흘렀어. 하지만 난 그 나날에 이 땅을 사랑
하며 오직 한알의 쌀이라도 더 내기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가는 이곳 사람들의 진정을
알았고 그들에게 깊이 정들었다. ...》

이때 푹푹 문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저녁에 마저 쓰기로 하고 은애는 쓰다만 편지
를 건사했다. 그리고는 버릇처럼 배낭을 휘둘러지
고밖에 나섰다.

얼마후 그는 철민이와 나란히 벌로 나가는 길
에 들어섰다. 문득 은애가 등에 진 배낭을 솟구며
물었다.

《철민동무, 앞으로두 이렇게 계속 물배낭을 지
고 다녀야 할가요?》

《아니지, 여기 석암마을에서부터 쪽 수도를 놓
아야지.》

《맛았어요! 나두 방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하, 은애동무두 이제 제법 공상가가 됐는걸.
좋아, 공상이 있어야 창조가 있거든. 정말 앞으로
저 넓은 벌 곳곳에 새 마을이 생겨나고 새집들이
솟아오르면 꼭 수도를 놓아야 할거야. 우린 그 새
집에서 살아야 할거구. 그땐 매일 밥박을 싸가지
고 다니지 않아도 될거야. 말하자면 진짜 한개 군
이 생겨나리라고 난 믿어.》

은애가 얼굴가득 환한 미소를 머금고 환성을
울렸다.

《야, 나두 그 앞날을 믿어요!》

《그래! 이거 사기나는데. 우리 한바탕 달려보지
않을래?》

《그러자요.》

둘은 마치 경쟁이나 하듯이 힘차게 앞으로 달
음박질했다. 끝없이 밝고 창창한 래일이, 한없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가 두팔을 활짝 벌리고
그들을 향해 마중오고있었다.

박경철

벽시

벽찬 하루가 흘러간다

가면 다시 오지 않는 하루

후회로써는 보상할수 없는 하루

한생에 하루는 짧다 말라

하루가 모여 한생을 이루나니

덧없이 보낸 하루가 있다면

하루

그것은 옥에 티와도 같은것

하나 옥에 티는 지울수 있어도

일생의 티는 한생의 후회로 남거니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드린 그 하루는

우리들의 한생이 비낀 하루

문선건

그대들과 속삭인다

새해라고
나를 찾아온 제자들아
그대들을 마주하고보니
가슴에 넘치는 말 헤아릴수 없구나
너무도 걱정애 찬 우리의 날과 달들이어서

력사의 거세찬 흐름과 함께
뜨거워만 지는 우리의 교정이다
지난해 9월 우리는
얼마나 벅찬경사를 맞이했거나

사랑하는 내 조국
김일성조선이
더욱더 찬란할 그 미래를 약속하는
우리 장군님 변함없이 우리 당 총비서로 추대!
우리 당 최고지도기관의 선거!

우리 조국의 특기할 력사였다
그것은 우리의 교단이
영원히 혁명의 교단으로
나라의 희망이며 미래인 우리의 교육이
더욱 찬란히 꽃피리라는것

사랑하는 내 조국이
존엄높고 미래가 밝은 나라로
세계의 상상봉에 오르리라는것
우리 힘 우리 식으로
이 땅우에 기어이 일떠설
사회주의강성대국에 대한 확신!

승리였다 거대한 승리였다
지난해의 거창한 전변들이

10월광장의 엄엄한 열병식대오가
하늘높이 오르던 축포의 불꽃이
대경축야회의 설레이는 춤바다가
그것을 다 말해주었거니

변혁하는 조국이
우리의 교수안을 다 짜주고있다
고난을 이겨낸 우리의 승리가
어떤것인가를 가르치고있구나

그렇구나 승리라도
우리처럼 험난을 헤치고
위대한 령도자의 축복속에
한가슴에 안은 승리 어디 있으랴
그처럼 값있고 그처럼 빛나는 승리!

승리자로 사는것은 우리 삶의 좌표
장군님은 우리 승리의 기치!
당의 향도 심장으로 받들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자
세계를 굽어보는 인재가 되자!

2012년이 다가오는 이해
열정은 불타고 지혜는 솟구쳐라
최첨단과학기술의 전초병들로
강성대국건설의 위훈자가 되자
아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인 제자들아
새해 첫아침 그대들과 속삭이노라

허수산

미곡벌의 마음

흰 김을 뿔어올리며
구수히 끓고있는 국가마
오늘도 그날의 그 영광 그 걱정
취사장 그득히 차넘치게 해요

하루에도 그 몇번
때없이 달아오르는 눈굽
어쩌면 난 철부지였을가

어쩌면 난 궁냥이 그리도 짭을가

12월의 찬눈길 헤치시며
우리 청년작업반을 찾아주신 장군님
취사장까지 돌아보시며
나의 미숙한 음식솜씨도 치하하셨는데

나는 왜 한마디 말도 못 올렸담

더운 김 확 풍기는 가마뚜껑
몸소 여시고 국이 참 구수하겠다고
환히 웃으시며 말씀하셨는데

그땐 왜 말을 못했을까
닭도 공장닭보다 더 크고 살졌다고
작업반에서 키운것이어서 더 만족해하시니
매맞추 점심시간인데도 굳이 못 올린 한마디

—아버지장군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왜 그 한마디 말 못 올리였을까

아 국가마는 흰 김을 뽑아올리고
이 가슴속에 간직되었던

간절한 소원은
그냥 끓어 땀돌기만 했으니

언제면 그날의 아쉬움
순간이나마 덜수 있을까
내 한생을 두고두고
그날의 아쉬움 어떻게 잊는담

국가마는 오늘도 끓고
내 가슴속 간절함 더 불타고
이제 아버지장군님 우리 농장에 오신 날
우리 딸들이 큰 진지상 차려
아버지장군님께 올리겠어요

김창호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만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것인가

삼일포특산물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순간에 통감자알들이 익반죽되어
감자국수 느릅랭면 감자떡이 되어 나오고

가공도 포장도 최상급으로
폭포처럼 쏟아지는
식료품을 보시며 말씀하시라
—이것은 완전한 식료품혁명이요
나는 오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쏘올린것보다 더 기쁩니다

일군들은 목메여왔어라
경질유리그릇공장에 가시여서는
끝없이 흘러나오는
멋쟁이그릇들을 보시면서
여기에 만족할수 없다고 하시며
그 그릇들에 가득가득 담아
인민들에게 안겨줄
갖가지 식료품들을 생각하시고

희한한 은덕월에 가시여서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다고
인민들이 목욕을 하고나면
배불리 먹기까지하여야
진짜 만족이라 하시였거니

삼일포특산물공장은
만족스러운 식탁으로
인민들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게 된
그이의 더없는 기쁨

장군님께서서는 이르지였어라
이것은 경공업혁명의 불씨
도처에 이런 공장들을 꾸려
인민생활을 풍성하게 하자고

아 만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오는것인가
우리 장군님 안겨주시는
갖가지 꽃그릇에 넘쳐나도록 담아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사랑에서 오는것이여라

박웅전

참된 사랑의 기초는 애국에 있다

사랑은 애국이라는 총체적미와 결부될 때 더욱 아름답고 숭고하다.

애국은 가장 진실하고 절대불변한 사랑의 결실을 낳게 하며 그러한 사랑의 결실은 번영하는 조국강산에 아름다운 자욱으로 길이 새겨지는것이다.

단편소설 《사랑의 포전》〔변창률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9(2010)년 6호〕을 읽고 받은 감흥은 독자들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이러한 철학적진리를 깨닫게 하여준다.

작품에서 애국을 굳이 강조하였거나 길게 서술한 부분은 없다.그런데도 읽고나면 그 진리는 뚜렷이 안겨온다.

문학작품에서 생활의 진리는 역시 직선적인 표현이 아니라 화폭으로 펼쳐지는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밝혀지게 된다는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이다.》

작품에서는 우리 시대 청춘들의 참된 사랑은 애국의 길에서 더욱 아름답게 꽃피난다는 생활의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선군시대의 새 세대 농촌청년들이 지닌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깊이 파헤쳐 애국이라는 사랑의 기초를 보여주기까지 소설의 형상은 참으로 진실하다.

작품에서의 모든 형상은 포전에 자기의 진정을 깡그리 바쳐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려보이는데로 지향되면서 애국의 길에 참다운 사랑의 오작교를 놓아가는 우리 시대 청춘남녀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강조하고있다.

주인공 창현, 그는 포전마다를 기름진 옥답으로 만들어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애국의 열의로 심장을 불태우는 새 세대 농촌청년이다.

소설에서는 언제나 땅과 정을 나누면서 자기의 살붙이이기라도 한듯 보살피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눈에 방불히 보이는듯 한 형상으로 감동있게 펼쳐보이고있다.

...

창현은 마치 자기가 갈증에 시달려 목이 타드는것 같았다. 잎이 가드라든 강냉이포기들이 자기를 쳐다보며 안타까이 하소하는듯싶었다.

...왜 이제야 왔어요? 새로운 관수체계를 도입해서 영원히 가물을 모르는 농사를 짓겠다면서

우리를 왜 버려두나요? 어서 좀 살려주세요. ...

창현은 양수장에서 바깥쪽을 들고나와 물이 줄줄 흐르는 감탕을 퍼담아다가 시든 강냉이포기밑에 덮어주었다. 물기가 닿자 강냉이포기들은 당장 생기를 띠며 기지개를 켜는듯 했다.

...

생기를 띤 강냉이포기들과 그것들이 든든히 뿌리를 박고있는 땅. ...

바로 진정을 바쳐, 사랑을 바쳐 자기 손으로 가꾸어가는 포전이기때 더더욱 정깊고 더더욱 고귀하게 여겨지는것 아니겠는가.

희상식구성수법으로 창작된 소설의 전반내용은 극적으로 치밀하게 짜여있으며 주인공 창현과 춘실이 사이의 애정선이 창현과 땅, 춘실이와 땅이라는 애뜻한 향토애의 감정과 함께 고조를 이루면서 절정으로 도달해가고있다.

소설은 창현이로 하여금 사랑의 고민에 빠지게 했던 춘실이의 자기가 딛고사는 이 땅에 온넋을 깡그리 바칠줄 아는 사람인 창현에게 정녕 반해 버리고야마는 과정을 그려보이면서 참된 사랑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있는가 하는 작품의 주제에 대한 인간학적해명을 주고있다.

주인공 창현은 춘실에 대한 류다른 감정을 서둘러 고백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몹시 고민한다. 그러면서도 포전마다를 기름지게 가꾸어 풍요한 가을을안아올 결심을 굳히며 자기의 성실한 땀을 바쳐간다.

논밭관수체계를 도입할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포전마다의 토양구조와 물기머무름결수, 생육단계별로 필요한 물량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면서 끝끝내 포전별토지개량계획도를 완성해낸다. 그 과정에 그는 춘실이로 하여 모대기던 그 나날들을 아득한 절벽밑에 내려놓은 자신의 값높은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것이다.

소설에서는 춘실이 역시 땅과 인연을 맺고 땅을 위해 청춘을 아낌없이 바치며 바로 그 애국의 길에서 참다운 사랑을 찾을줄 아는 새 세대의 전형으로 형상하였다.

체육에서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명예같은것은 전혀 생각함이 없이 평범한 농장원이 되어 조국의 땅을 가꾸어가는 처녀. ...

그렇게 고상한 애국의 정신세계를 지닌 처녀이기에 춘실은 논밭관수체계를 도입해보겠다고 아글타글 애쓰는 창현에게 사심없는 성의를 바치는것이다.

그러한 그가 창현의 사랑의 고백은 한순간에

거절해버린다.

여기서 소설은 극적정황을 조성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철리를 해명해나갈 전제를 주었다.

총각의 고백을 듣고 심장이 두근거리지도 않고 별로 놀라움지도 않게 생각되고 그렇듯 값없고 싱겁게 여겨지는 춘실의 내면심리세계를 작품에서는 그의 개성이 살아나게 독특하면서도 진실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창현의 고백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목표를 어떻게 정했는가고 물어보는줄 알았다고 하는 춘실의 능청스런 말속에는 차라리 그랬더라면... 하는 의미가 비껴여있다.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가 아니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길에서 우리 함께 애국의 땀을 바쳐가자》는 말을 더욱 정깊게 들었을 춘실이...

하기에 그는 그후 땅에 진정을 다 바쳐가는 주인공 창현의 모습에서 가장 참되고 값높은 사랑을 느끼게 되며 마침내 눈물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다.

땅과 정분이 난 주인공을 두고 멋있는 오작교를 놓았다고 하는 영식아바이의 말은 결코 작가가 형상의 멋이나 부리자고 꾸며낸것이 아니다.

소설에서 땅은 창현이 것처럼 사랑하고싶었던 처녀와 다시 인연을 맺을수 있도록 해준 오작교와 같은것이다.

창현이 못지 않게 조국의 땅을 끝없이 사랑했기에 춘실이도 창현의 진정을 그토록 뜨겁게 의식하는것이다.

정녕 애국은 선군시대에 사는 새 세대 청춘들의 가장 값높은 사랑의 기초이며 참된 사랑을 맺어주는 오작교라는것을 소설에서는 소박한 생활화폭으로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애국을 기초로 하여 맺어진 사랑은 옥처럼 변함없이 영원하며 만사람의 축복을 받는다.

소설에서는 창현과 춘실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작업반사람들의 형상을 통하여 그러한 진리를 형상적으로 뚜렷이 밝히었다.

소설에 펼쳐진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생활화폭속에서는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외에도 또 한사람의 모습이 어려온다.

감탕물은 얼굴에 미소를 담고 땅이 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있는 사람—그는 다름아닌 작가 자신이다.

퇴적장의 퇴비를 나르고 감탕물을 날라다 강냉이포기들을 살뜰히 덮어주고 양수장의 물주머니 바닥을 파내며 조국의 땅에 참된 사랑을 바쳐가는 주인공의 모습은 형상이기 전에 작가의 체험이며 바로 그 체험의 산물인것이다.

소설에는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다.

우리 농촌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남먼저 열어제끼는 농업근로자들의 집단적투쟁모습이 더 강하게 안겨오도록 하면서 거기서 부각되는 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하였더라면 작품에서 밝혀지는 생활의 진리는 더더욱 무게있을것이다. 그러나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 체험속에서 해마다 흙냄새 구수한 농촌물주제작품을 내놓고있는 작가의 지향은 참으로 소중한것이라고 생각한다.

독자들은 작가가 새해에도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오늘의 리기영, 천체봉이 되기 위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농촌의 들끓는 현실을 반영한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해 생활체험의 길을 계속 힘차게 걸어가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성심

상식

뇌출혈이 흔히 일어나는 시간

아침 8시부터 9시사이에 가장 많이 생긴다.

자료에 의하면 뇌출혈이 제일 많이 생기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9시사이이고 오후는 3~4시사이이다.

제일 적게 생기는 시간은 0시부터 1시사이 그리고 3~4시사이인데 전체 뇌출혈의 1/12밖에 되지 않는다.

민족수난기 진보적농민형상소설의 예술적특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난 시대의 작가와 작품을 문학사나 예술사에서 취급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작가, 예술인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우리 문학사와 예술사에도 당대 문학예술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작가와 작품이 있었다는것을 알려줌으로써 민족적금지과 자부심을 안겨주는 동시에 지난날의 역사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게 하자는데 있다.》

민족수난기 우리 소설문학은 다양한 인물형상을 탐구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작품창작에서 자기에게만 고유한 형상적특성을 살리며 발전하여왔다.

진보적농민형상소설은 당대의 농민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자기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예술적특성은 우선 농민들 고유의 생활화폭속에서 그들의 성격을 그리고있는것이다.

1910년대에도 농민을 형상하여 이야기를 펼친 소설들이 일부 창작되였다. 하지만 그 소설들은 등장인물을 농민으로 명명하였을뿐 농민으로서의 사상감정과 성격을 펼칠수 있는 생활환경을 많이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민족수난기 진보적농민형상소설에서는 사회력사적조건과 환경, 자연지리적조건, 세태풍속적인 생활, 구체적인 생활세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화폭이 농민의 형상창조를 위한것으로 되어있다.

단편소설 《농부 정도령》〔리기영 작, 주체15(1926)년〕, 《최서방》〔계용묵 작, 주체16(1927)년〕, 《맥추》〔리기영 작, 주체26(1937)년〕의 모내기, 벼마당질, 보리가을장면들을 그 실례로 들수 있다.

소설들은 농민들의 고유한 로동생활을 직접 펼쳐보이면서 그속에서 농민들의 성격형상을 창조하고있다. 하여 농사일을 하는 농민으로서의 고유한 생활세계를 펼치고 그를 바탕으로 한 농민들의 산 개성을 창조하고있다.

대표적으로 단편소설 《최서방》을 본다면 이 작품은 정황을 벼마당질을 하는 날로 정하고 이날 최서방이 겪는 불행속에서 그에 항거하는 농민의 성격형상을 보여주고있다.

주인공 최서방은 송지주의 논을 소작받아 농사를 지었다. 드디어 가을이 와서 벼마당질을 하는 날 그는 8섬의 벼를 타작하였지만 송지주에게 빚

값으로 모조리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나앉게 된다.

그 마당에서 최서방은 다른 빚꾼들에게 빚을 물지 못한다고 매까지 맞는다. 마당질은 농민들에게만 있는 고유한 생활환경이다. 마당질을 하는 날은 농민들이 한해동안 땀을 바쳐 이룩해놓은 로동의 부를 체험하는 기쁨과 함께 앞날에 대한 계획과 희망을 걸게 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서방은 이날에 로동의 부를 창조한 기쁨을 맛볼 겨를도 없이 또 그러한 부로 앞날에 대한 계획이나 희망을 가져볼새도 없이 불행과 고통만을 겪게 된다.

작품은 이처럼 농민들 고유의 벼마당질을 하는 날을 정황으로 설정함으로써 한해에 가장 기쁘고 환희로와야 할 순간에 최서방에게 크나큰 불행과 고통을 겪게 하여 그가 불합리한 사회현실을 새롭게 음미해보게 한다. 그리하여 종당에는 최서방이 《어찌해. 싸워야 하지... 우리는 이제부터 이 모든 더러운 독사같은 무리와 필사의 힘을 다하여 싸워야 되겠네.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라고 하면서 다음날 빚독촉을 온 송지주에게 도끼로 자기 집 독과 술을 깨버리며 항거하는 성격형상을 창조하게 하였다.

농민들의 로동생활을 직접 묘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족수난기 진보적농민형상소설은 농촌생활과 련관된 사건과 세부들을 설정하고 농민들의 성격형상을 창조하고있다.

단편소설 《목화와 콩》〔권환 작, 주체20(1931)년〕에서는 군청놈들이 심으라는 목화를 심지 않고 콩을 심은것으로 하여 군청놈들과 농민들사이에 생기는 분쟁사건을 그 실례로 들수 있다.

단편소설 《승어》〔엄홍섭 작, 주체24(1935)년〕역시 콩밭에 열무씨를 같이 뿌린 죄 아닌 죄로 콩밭을 떼우게 된 사건속에서 한농민의 불행을 그리고있다.

이 모든것은 자기의 고유한 생활세계를 가진 농민의 형상창조에 지향점을 두고 주인공의 성격을 밝히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것이다. 이것은 농민을 형상함에 있어서 작가의 주관적인 사상과 감정의 전달을 피하고 구체적인 생활바탕을 가진 사실주의적인 형상을 창조하기 위한 작가들의 부단한 탐구와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수 있다.

예술적특성은 또한 당시 농촌의 시대적현실에

고유한 전형적인 사회계급적관계를 구체적인 인간관계속에서 그리면서 농민들의 성격을 탐구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소작인들과 지주계급과의 대립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농촌에서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간의 모순, 투쟁을 반영하고 그를 통하여 주인공의 성격과 운명을 탐구하고있다.

단편소설 《호박꽃》 [조벽암 작, 주체25(1936)년] 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소설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농민들이 번지지 않고 쇠는 백중(음력 7월 보름날을 이르는 말)날에조차 머슴인것으로 하여, 땅없는 소작농인것으로 하여 천대받으며 고역에 내몰리우는 농민들의 처지와 생활을 탐욕스럽고 비인간적인 김참봉네 형제와의 대립속에서 보여주었다.

소설에서 주인공 칠성이는 김참봉네 머슴군이다.

김참봉은 가난한 농민들도 씨름을 하며 즐기는 명절날에 머슴들에게 음식 하나 변변히 주지 않으면서 사람이 잘살자면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훈시하는 착취자로 그려졌다.

린색함에서 형과 짝지지는 않는 김참봉의 동생집에서 머슴을 사는 이쁜이의 아버지 리침지는 먼산에 나무하러 가면서도 호박범벅을 겨우 싸가지고 간다.

그가 허기진 몸으로 나무집에 치여 병신이 되자 주인놈은 돈 한푼 안 주고 내쫓으며 리침지는 그후 약 한첩 못 써보고 한많은 생을 마친다.

벌이 들어간 호박꽃을 칠성이의 귀가에 대고 벌소리를 들려주며 앞날을 기약하던 이쁜이와 칠성이의 사랑도 방랑한 김참봉의 아들놈에 의해 짓밟히고 깨여지고만다.

소설은 이쁜이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일떠서는 마을 머슴들의 성격을 린색하고 몰인정하며 비인간적인 김참봉네 일가와의 대립속에서 그려나가면서 농촌에서의 계급적모순을 고유한 농촌생활속에서 깊이있게 그리고있다.

농민들의 성격은 또한 농민들 호상관계를 통해서도 밝혀지고있다. 단편소설 《농부 정도령》에서 정도령은 착취계급과의 대립속에서가 아니라 주로 마을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그 성격적특질이 표현되고있다.

배고파 우는 자기 딸을 회초리로 치는 용쇠를 보고 그의 따귀를 치면서 《세상에 저보다 약한자를 학대하는것 같이 못난것은 없다. 나보다 강한자에게는 소인을 개울리는 주제에 누구를 깔보고 때릴 권리가 있느냐 말이다.》라고 하는 정도령의 형상은 남의 일, 내 일 할것없이 불우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미를 잘 보여준다. 즉 무슨 일에서나 인간적존엄을 귀중히 여기며 대바르고 의

협심이 강한 성격의 한 표현인것이다.

단편소설 《경칩》 [현덕 작, 주체26(1937)년]에서도 노마의 아버지와 기동이 아버지의 총돌속에서 땅을 갈망하는 우리 농민들의 성격을 보여주고있다.

농민들의 성격은 또한 선각자와 농민들과의 호상관계속에서도 창조되고있다.

실례로 단편소설 《홀러간 마을》 [엄홍섭 작, 주체19(1930)년]에서는 선각자인 고서방과 그의 주위에몽쳐 조직적으로 최부호와 투쟁하는 농민들의 모습에서 착취계급을 반대하여 단결해서 투쟁하려는 우리 농민들의 성격을 잘 형상하고있다.

다른 작품들인 장편소설 《고향》 [리기영 작, 주체22(1933)년], 단편소설 《홍수》 [리기영 작, 주체19(1930)년] 등에서도 선각자와 농민들과의 관계속에서 농민들의 성격을 창조하고있다.

민족수난기 진보적농민형상소설의 예술적특성은 이밖에도 농민들의 생활과 성격묘사를 하는데서 민족적이며 향토적인 감정정서가 깊은것이다.

단편소설들인 《평범한 이야기》 [박승극 작, 주체24(1935)년]에서 농민들의 성격을 민족의상문제에 초점을 두고 형상한것, 《과세》 [엄홍섭 작, 주체25(1936)년]에서 설명절을 계기로 한 풍습과 세대생활, 중편소설 《쥐불》 [리기영 작, 주체22(1933)년]에서 줄다리기와 쥐불놀이에 대한 묘사 등이 그 실례이다.

이러한 형상이 나오게 된것은 농촌의 지대적특성과 작가들의 사상미학적관점과 관련된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으며 따라서 우리 민족의 풍습과 풍속이 제일 먼저 생겨난 곳도, 그것이 제일 오래 보존되어 온것도 농촌이었다.

민속놀이만 놓고봐도 가장 대표적인 놀이인 농악놀이, 씨름, 줄당기기, 줄넘기, 널뛰기, 꼭두각시놀이 등 대부분의 놀이들이 농민들의 생활에서 유래되어 발전하여왔다.

민족수난기 진보적농민형상소설작가들은 이러한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농민들의 성격과 생활을 그림에 있어서 민족적이며 향토적인 감정정서를 구현하는데 주의를 돌림으로써 빼앗긴 조국과 향토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강렬하게 구사할수 있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민족수난기 진보적농민형상소설은 자기 고유의 예술적특성을 가지고 창작됨으로써 민족수난기 우리나라의 농촌을 방불히 보여주고있으며 당시 농민들의 민족적의식, 계급의식을 높여주는데 적지 않게 이바지하였다.

정 철

해방전 녀류작가들의 진보적시문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세상에 널리 자랑할만한 문화적재부를 창조하였다.》

해방전 일제의 것처럼 포악한 폭압정치와 후안무치한 민족문화말살정책속에서도 우리 문인들에 의해 민족문화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으며 자기의 명맥을 곳곳이 이어왔다.

여기에는 녀류작가들의 눈물겨운 창작적고행의 자욱도 뚜렷이 새겨져있다.

강경애, 주수원, 김명순, 로천명, 혜원, 신진순, 홍순옥, 리해월, 장정심, 김오남 등 많은 녀류작가들이 소설과 함께 시문학이라는 량심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섰다.

해방전 녀류작가들이 창작한 시문학의 예술적 특성은 녀성의 섬세성으로 파헤친 서정의 독특한 세계로 개성이 뚜렷한것이다.

그들은 어머니 혹은 안해, 누이 아니면 딸의 시점에서 녀성들만이 보고 느낄수 있는 체험세계를 감수하고 특색있는 서정세계를 펼치고있다.

시 《참된 어머니가 되어주소서》, 《가을》, 《산딸기》(강경애 작), 《다듬질》(신진순 작), 《북별 10유여년》(혜원 작), 《달밤》(리해월 작) 등이 그러하다.

시 《참된 어머니가 되어주소서》는 빗값에 팔리어 어머니의 품을 떠난 딸의 가슴아픈 체험세계를 눈물속에서 노래하고있다.

어머니
작년 이때
우리 집 울뒤 대추나무가지에는
대추가 조롱조롱 빨갰을 때
눈등이 붓도록 우시면서도
나를 민머느리로 보내었지요

그때에 어머님께서
어머님의 머리께서
판 돈으로
얼빏과 참빏을 사서
이 딸의 콧속에 깊이깊이 넣어주면서
가서 잘 살아라 부대 배굴지 말어라!
이것이 마지막부탁이었지요

...
※콧침—머리빏는 도구들을 싸서 두는 빏집.

눈등이 붓도록 우시면서도 빗때문에 애어린 딸을 남의 집 민머느리로 보내지 않으면 안되는 어머니의 심정을 딸의 시점에서 가슴아프게 파헤치고있다. 다듬이질을 하면서도 그리운 고향의 어머니생각, 그리운 어머니생각에 단풍잎같이 빨개지는 서정적주인공, 참으로 녀성들만이 섬세하게 느끼고 몸부림칠수 있는 체험의 세계이다.

어린시절에 어머니를 잃은 외로운 주인공이 어릴 때의 어머니목소리를 차마 못 잊어 몇번째나 되새기며 가슴을 애절하게 두드리는 김명순의 시 《옛날의 노래여》.

가을밤 방망이로 다듬질을 하는 어머니의 땀만 만져지는 두손목을 쥐여보는 딸의 가슴아픔과 설음을 노래한 시 《다듬질》.

달빛만 교묘히 비쳐도 님 오시지 않을가 창문을 열고 바람만 조금 스쳐지나도 님이 부르는듯하여 창문을 열어보는 기다림에 지친 녀인의 그리움을 노래한 시 《달밤》.

참으로 이 시들은 녀성들만이 느낄수 있는 진실한 체험의 세계이다.

시인들은 어머니의 연약한 손을 붙잡고 한숨소리를 섞어 애절하게 《어머니!》, 《엄마!》하고 부르지만 앓았으며 떠나간 님을 애타게 기다리며 어서 돌아오라고 빌지도 앓았다.

그들은 애절한 부름속에서 가난과 천대를 들썩우는 간악한 사회를 절규할줄도 알았고 투쟁으로 떨쳐나설것을 호소할줄도 알았으며 싸움에 나선 그 길이 굴복을 모르는 성공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빌기도 하였다.

여기에 해방전 녀류시인들의 특이한 개성이 있고 감화력이 있다고 말할수 있다.

해방전 녀류작가들이 창작한 시문학은 간결하고 명백한 서정구조로 특징적이다.

녀류시문학의 예술적특성은 서정구조가 간결하고 명백한 단시형식을 많이 취하고있다.

이들의 시는 계기설정과 정황제시, 서정의 발전과 절정에서의 결정적인 분출, 서정의 마무리와 같은 기승전결의 서정구조를 차례로 갖고있지 않다.

일정한 시적계기에서 받은 정서적충동을 그대로 주정화하여 터뜨리고있다.

로천명의 시 《밤의 찬미》는 다해서 3련이다. 시는 짧다. 하지만 짧은 이 시가 주는 충격은 크다.

일제의 발굽밑에서 오죽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원썩들의 몰골이 얼마나 미웠으면 밤이 계속되어달라고 그렇게도 간절히 빌겠는가. 단도

직접적으로 터뜨린 감정의 분출이 더 강렬하고 세기도 높고 폭도 넓다.

그들의 시는 모두가 2련, 3련, 4련이며 6련도 흔치 않다. 물론 《참된 어머니가 되어주소서》, 《북별 10유여년》과 같이 긴 시도 몇편 있다.

이런 시인 경우에도 서정구조는 간결하고 명백하다.

서정구조의 간결성과 명백성은 강한 대조의 수법으로 이루어진다.

시 《참된 어머니가 되어주소서》는 비교적 긴 시이지만 사랑하는 애 어린 딸이 빗값으로 남의 집 민머느리로 팔려갈 때 어머니가 체험하는 설움의 서정세계와 XX회에 들어 싸우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딸의 소원의 서정세계를 인상깊게 대조시켜 작품의 사상을 뚜렷하게 강조하고 시의 서정구조도 명백하게 조직하였다.

시 《북별 10유여년》도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여 설한풍 몰아치는 북쪽땅으로 떠난지 10년하고 또 몇해되나 소식 한장 없는 야속함과 그리움, 독립의 큰뜻을 품고 설한풍 몰아치는 험난한 길에서 《겉내지 말고 나가소서/ 굶히지 말고 나가소서》라는 절절한 부탁의 서정세계가 쌍벽을 이룬 강한 대조속에서 사상의 명백성과 서정구조의 간결성, 강한 정서적충격을 주는 비결이 있다.

해방전 녀류작가들이 창작한 시문학은 특색있는 운물조직으로 음악성을 강하게 살리고있다.

...

매해 가을마다 울었더니만
뒤창문옆에서 울었더니만
떨어지는 락엽 쫓아 울었더니만
지금은 그 가을이 또 왔어요
(시 《가을》중에서)

여기서는 《...울었더니만》이라는 시어의 세번 반복법에 의하여 운물이 조성되었다고만 볼수 없다. 향수와 설움에 찬 서정적주인공의 정서적체험이 노래처럼 정가로운 운물을 낳았다.

매해 가을이 오면 고향이 그립고 어머니품이

그리워 눈물찬 서정적주인공의 진실한 체험의 세계가 그대로 유연하면서도 정이 넘치는 운물을 조성하고있다.

그들의 시에는 4.3, 4.4, 4.5조의 음수불배렬로 동요적성격을 강하게 살리는 시도 있다.

딸기딸기 산딸기
심심산골의 산딸기
...

(시 《산딸기》중에서)

또한 6.5, 6.6조의 음수불조직으로 민요풍의 성격을 이채롭게 살리는 시도도 있다.

해방전 진보적녀류시인들이 창작한 시문학은 다감하고 섬세한 언어형상으로 특징적이다.

그들은 우리인민들이 늘 쓰는 고유어휘로 된 입말체의 쉬운 말을 그대로 시줄에 옮겨놓고있다.

인상깊고 진실한 세부의 선택과 입말체 그대로 쓴 시 《참된 어머니가 되어주소서》는 화려한 말마디로 엮은 그 어떤 시보다도 더 뜨거운 눈물이 고이고 더 절절하다. 빨강게 조롱조롱 달린 대추세부, 얼빛과 참빛세부를 생활의 가장 작은 단면으로 설정하고 입말체로 가슴아픈 눈물의 세계를 파헤친 이 시는 독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다양한 시형식을 탐구하고있는것도 해방전 진보적녀류작가들의 시문학에서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해방전 녀류시인들이 창작한 진보적시문학에서는 시대와 계급을 선도하는 혁명적인 시들을 적극 창작해내지 못한 제한성을 내포하고있다.

하지만 해방전에 녀류시인들이 창작한 진보적시문학은 간악한 일제놈들의 탄압속에서도 우리시문학의 민족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데서 한몫 크게 이바지하였다.

손려나

소개

헤밍웨이와 장편소설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과 생활을 그리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참담하게 복무하는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이 있다.》

1939~1940년에 창작된 장편소설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가》 [어니스트 헤밍웨이

(1899~1961) 작] 는 1937년 에스빠냐공민전쟁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는 소설이다. 소설은 에스빠냐공민전쟁때 (1936~1939) 국제지원병대에 참가한 한 미국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소설은 나홀동안의 사건을 통하여 당시 에스빠냐의 정세를 집약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소설의 주

인공은 로버트 조단청년이다. 에스빠나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돕기 위한 국제지원병이 된 그는 공화군의 총공격계시직후에 적후에 있는 다리를 폭파할 임무를 받고 적진을 돌파하여 유격대가 있는 산속의 동굴에 도착한다. 유격대의 소부대는 대장 빠블로와 그의 애인 펠라르를 비롯하여 모두 7명이었는데 그속에는 머리칼이 짧은 아름다운 처녀 마리아가 있었다. 로버트는 이 처녀와 뜨거운 사랑을 맺게 된다. 그들은 계획된 날 아침일찍 동굴을 출발하여 다리폭파임무를 수행하다 로버트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걸어갈수 없게 된다. 그는 마리아와 나머지성원들을 먼저 빠져나가게 한 다음 자기는 그 자리에서 기관총을 잡고 다가오는 적들을 겨눈다. 소설은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민주주의적전취물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 펼쳐나선 에스빠나인민들과 그들을 도와나선 지원병들의 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하였다.

주인공의 형상에는 국제주의전사들의 투쟁모습이 구현되었으며 유격대원들의 형상에는 반파쇼항전에 펼쳐나선 에스빠나인민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용감한 투쟁모습이 생동하게 반영되었다.

소설의 이야기는 5월말의 어느 토요일 오후에 시작되어 사흘후인 다음주 화요일 낮에 끝난다.

에스빠나공민전쟁은 에스빠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여서 세계 진보적사람들에게 련대성을 호소한다.

주인공 로버트 조단은 개인주의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형상이다.

그는 미국의 모던대학에서 에스빠나어를 가르치던 젊은 교수이다. 에스빠나에서 국내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접하였을 때 그는 커다란 심리적모순을 체험한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싶지 않았고 또 자기도 죽고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에스빠나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것이 자기 일개인의 리익보다 더 귀중하다는 인식이였다.

또한 그에게는 에스빠나인민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 움텄다. 전쟁 그자체를 전면적으로 긍정하지 않으면서도 에스빠나인민을 돕기 위해 그는 유럽으로 간다. 파시스트들의 책동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구원해야 한다는 고상한 리념이 심리적모순을 극복하고 참전의 길을 선택하게 하였다.

그는 용감하게 싸운다. 자기앞에 나타나는 적을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파쇼분자라고 생각하고 주저없이 총을 쏜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행복을 느끼는 인간이다.

《나는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위하여 1년동안 이곳에서 싸웠다. ...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그때문에 우리는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며 이 세상을 떠나는것을 그처럼 아쉬워도

하는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한생을 보낼 수 있었으니 나는 참으로 행복한 인간이다.》

그는 자기의 불행을 세계의 불행으로, 자기의 허무를 인류의 고독으로 생각하는 헤밍웨이의 이전시기 작품의 주인공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인물이다.

살아있으면서도 고독하고 불행하던 인물과는 달리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삶과 행복을 느끼는 인물이다.

무엇때문에 그는 행복을 느끼는가?

그는 자기만을 위한 생을 바라지 않았으며 인류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인생을 바치는것이 가장 행복하고 값있는 생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그는 단지 72시간을 살지라도 그것은 72살의 긴 생애에 못지 않다고 말한다. 다리폭파는 그에게 있어서 인류의 장래력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되고있었다.

조단은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지원병으로 자원해나오지 않았을것이며 자부심도 가지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조단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해, 에스빠나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기의 사랑과 생명을 바쳤다. 바로 여기에 조단의 긍정적성격의 특징이 있다.

작가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개인의 울타리를 벗어나 인류앞에 지닌 책임감을 자각하고 그를 위해 자기를 바치는데 인간의 참된 삶과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안젤모로인 역시 자기 생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있다. 로인은 자기가 후날 백성들이 행복을 누릴수 있는 일을 하고있다는데 대해 한없는 긍지를 느끼고있다. 산 보람을 느끼고있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작가가 그때까지 회의를 품어오던 개인주의적인생관에 대한 부정으로 된다.

이와같이 헤밍웨이는 이 작품에서 이전시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제, 새로운 성격을 제시하였다.

예술적형상의 측면에서 볼 때 소설에서는 일화들을 묶어 구성을 짜이게 하고 영화적인 평행묘사수법을 도입하여 극적인박감을 조성하고있으며 고도로 함축되고 간결한 묘사로 내용을 생동하게 표현하고있다.

장편소설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가》에는 심각한 제한성이 있다.

주인공은 것처럼 열렬하게 삶을 지향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독자들에게 삶과 투쟁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주지 못하였다.

작가는 주인공의 헌신성과 희생성을 폭넓은 사회적관계속에서 고찰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작품에서는 개인의 요구와 리익이 사회적요구와 리익과 어떻게 결합되며 인간의 영생의 가치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다.

아직 작가는 개인과 집단이 결합될수 있는 조건을 몰랐으며 집단이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다는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장편소설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가》는 또한련애문제에 지나치게 치우친감이 없지않으나 작가가 당시 사회적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창작한것으로 하여 작품이 발표되자마자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웠다.

김진향

소개

로동계급의 계급적각성과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을 반영한 총서 《브리텐의 길》

영국의 작가 제크 린지(1900—1990)는 총서《브리텐의 길》에서 현실생활의 본질적내용과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비교적 진실하게 반영하였으며 사실주의의 창작원칙을 일정하게 구현하였다.

오스트랄리아의 미술가가정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한 작가는 1926년에 영국 런던으로 이주하여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문학창작을 시작하였다. 대학시절부터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맑스주의에 공감해온 그는 1936년에 영국공산당에 입당하였으며 자기의 창작활동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소설, 시, 평론 등 여러 분야의 그의 창작활동에서 중심적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소설작품들이다. 작가는 1940년대까지는 주로 력사소설을 썼고 그 이후부터는 현실주제의 소설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린지는 1940년대이후 반파쑈투쟁을 주제로 한《우리는 돌아오리라》(1941)와《두려움을 모르고》(1943)를 내놓은데 이어 제2차 세계대전후에는 현대영국의 사회생활을 취급한 대표적인 작품인 장편소설 총서《브리텐의 길》을 창작하였다.

총서는《배반당한 봄》(1953),《밀물》(1954),《선택의 시각》(1955),《그대의 집》(1957)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고 사회주의혁명이 일정에 오른 력사적시기에 자본주의제도를 때려부시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로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왔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파시즘을 반대하고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던 영국인민은 점차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에 대한 동경을 안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이것을 리용하여 기회주의적인 레이버당은 사회주의국가들과의《친선단결》과《사회주의에로

의 전진》의 구호를 들고 선거에 진출하여 집권하였으며 집권후에는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사회주의를 적대시하는데로 나아갔다.

총서의 기본작품의 하나인《배반당한 봄》의 제목자체가 바로 지배계급에 대한 인민대중의 분노를 표현하고있다.

작가가 총서의 제목을《브리텐의 길》(영국의 길)이라고 한것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고용된 레이버당의 기회주의적배신자들이 2차세계대전후에 인민대중의 투쟁이 양양되자 이른바 개량과 계급협조에 의한 사회주의에로의 영국의 길을 제창해나선데 대해 타격을 가하기 위한것이였다.

장편소설《배반당한 봄》은 1946년 9월부터 1947년 4월까지의 영국의 자본주의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생활과 로동계급의 계급적각성, 사회주의에로의 지향을 보여주고있다.

이 소설은 여러 지역에 떨어져사는 각이한 인물들인 펄 트리메인, 디크 백스터, 키트 스위튼, 해리 맨슨, 윌 애머리를 중심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그들이 살고있는 런던, 랑카셔, 요크셔, 타인싸이드의 생활을 부단히 교차시키면서 동일하게 묘사하고있다.

소설은 인간들의 운명선을 따라가면서 레이버당정부를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투쟁을 폭넓게 보여주었으며 런던경제전문학교 학생인 해리 맨슨과 녀성로동자 베트, 탄부 마이크, 부두로동자 벳트리와 제프, 처녀직공공 질 등의 투쟁과 생활을 통하여 공산당원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간들의 모습을 형상하였다.

이를 통하여 작가는 로동계급이 진정한 삶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야 하며 로동운동에 발생한 기회주의적배신자들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는 사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영국반동정부의 반인민적본질을 깊이있게 비판하였으며 특히 레이버당의 기만적정체를 날카롭게 해부하였다.

로동계급이 자기의 계급적요구와 리익을 지키려면 부르조아적선거와 의회정치에 대한 그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된다는것이 소설이 밝혀준 또

하나의 사상적결론이다.

소설에서는 인물형상들의 성격이 비교적 생동하게 그려지고있으며 설득력이 있는 묘사, 개성적인 언어사용을 보장하고있다. 그러나 이 소설에는 혁명가의 생동한 전형을 그리지 못하고 내용을 깊이있게 파지 못한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부족점이 있다.

장편소설 《밀물》(1954)은 《배반당한 봄》의 결함을 적지 않게 극복하면서 영국에서의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노동운동이 양양되던 1948년의 현실을 그리고있다. 소설의 기본문제는 사회주의를 위한 영국로동계급의 투쟁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문제이다.

작품에서는 《배반당한 봄》의 한 등장인물인 필 트리메인과 그의 남편 제프 브로우스를 중심으로 하여 항만로동계급의 투쟁을 그리고있다.

소설에서는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속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선진적세력이 자라나고있으며 그들의 사상의식이 장성하고 공산당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있던 당시 영국의 사회생활의 본질적특징을 제프와 필 트리메인을 비롯한 로동자들의 형상을 통하여 뚜렷이 그려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 제프와 필은 생활과 투쟁실천속에서 또 선진적로동자들의 영향밑에 각성되어 마침내 로동자들의 조직에서 핵심적역할을 한다. 작가는 제프의 뒤를 따라 필과 베트, 해리 맨슨, 매어리 등 수많은 사람들이 투쟁속에서 자라나 의식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공산당을 따라나서는것으로 그리면서 이를 통하여 혁명력량이 끊임없이 자라나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보여주었다.

로동계급의 대중적투쟁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들의 완강성, 전투성, 국제적련대성을 찬양한것은 소설의 중요한 사상적내용으로 된다.

소설에서는 또한 로동자들의 대중적투쟁을 파괴하려고 날뛰는 적들의 책동과 반동적어용로조들의 행위를 신랄히 폭로배격하고있다.

린지의 장편소설총서에는 일련의 사상예술적미숙성이 나타나고있다.

그것은 우선 계급성의 원칙을 굳건히 견지하지 못하고 뚜렷한 긍정적주인공—혁명가의 생동한 전형을 창조하지 못한 본질적결함을 가지고있는 것이다.

총서의 미숙성은 또한 자연주의, 객관주의, 기록주의를 비롯한 부르조아문학예술의 부패한 영향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것이다.

예술적형상수법에 있어서도 작가는 도식적구성, 직선적서술에 빠져 형상의 감화력을 약화시키는 등의 약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미숙성들은 작가 린지의 사상예술적준비도와 많이 관련되어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장편소설총서는 기회주의자들의 계급협조와 개량에 의한 사회주의에로의 영국의 길에 대한 궤변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계급성을 고수한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수 있다.

김정호

상식

미래의 농장 설계방안들

세계인구가 급속히 증대되고있는것으로 인하여 알곡과 남새를 생산할수 있는 부침땅면적의 부족이 현실화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세계적으로 도시중심에서 싱싱한 남새 등을 생산할수 있는 형형색색의 미래의 농장 설계들이 고안되고있다.

공중수직농장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는 도시 한복판에 건설할것을 예견한 59층짜리 공중수직농장건물을 설계하였다. 고층건물들에서 매일 3만 5 000명이 먹기에 충분한 량의 식품재료를 생산할수 있는 이 공중수직농장에서는 물을 순환리용하는 방법으로 여러가지 알곡과 남새 및 과일을 재배할수 있다고 한다.

고층건물생태농장

이 구상은 도시농장을 고층살림집 외벽에 세운다는데 바탕을 두고 설계되었다.

설계안에 따르면 베란다를 포함한 여러층에서는 과일나무나 계절성농작물을 재배할수 있다.

또한 맨 아래층은 농산물시장이므로 여기서는 건물내의 농장주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거래하거나 수확한 알곡을 외부사람들에게 판매할수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민물자원이 날로 고갈되고있는 현실에 비추어 바다물에서 증발되는 수증기를 민물로 전환하여 관개수를 보장하는데 착안점을 둔 바다물수직농장구상안과 제한된 토지에서 보다 많은 농작물을 수확하며 에너지를 재리용할수 있는 장점을 가진 피라미트형농장구상안 등도 제기되고있다.

떨어져나간 쪽상

《열하일기》의 창작으로 삼시에 사회적명성이 높아졌으나 박지원(18세기의 실학자, 작가, 자는 중미, 호는 연암)의 생활형편은 여전히 말이 아니었다.

유언호를 비롯한 벗들과 제자들이 가끔 쌀과 옷가지를 보내주었으나 로년에 들어서면서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하루는 한 제자가 연암을 찾아왔다. 학문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던 대화는 자연히 생활상 문제로 넘어갔다.

《이 궁벽한 시골에서 생활하기 편치 않으시겠는데 요즘 어떻게 살아가시오니까.》

《그저 그렇게 살지. 있으면 먹고 없으면 빈 수저만 빨고... 이 세상에서 더 살고싶은 욕망도 없네. 이렇게 살다가 명이 되면 자연히 초야에 묻히는것이 상책일세.》

연암은 허구픈 웃음을 지으며 제자의 걱정을 통으로 밀막아버렸다. 그러는 스승의 처지가 보기 딱하여 생기를 북돋아주어야겠다고 생각한 제자가 다시 말꼬리를 이었다.

《선생님의 명성도 어지간하신데 이러한 살림살이가 그 명성을 어지럽힐까 걱정됩니다. 이제라도 의관을 정히 차리고 바깥세상에 나섬이 어떠하실지요?》

제자의 속마음을 리해한 연암은 긴 한숨을 내쉬고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

《괜한 걱정말게. 난 이 생활이 좋네. 사람에게겐다 자기 명이 있고 제 푼수가 있는 법인데 나에겐 이것이 푼수에 맞는 생활일세.》

난 나라의 록을 타먹으면서 백성들에게 눈을 부라릴 그런 위인은 못되네. 그저 세상에 난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으면 그만이지...》

그리고는 잠시 말을 끊고 대롱에 담배를 눌러담더니 한모금 빨았다가 길게 내뿜었다.

《내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하라나? 요전에 땔나무가 없어서 쪽상을 내다 패려고 쳐드니 너무 낡아서 저절로 떨어져나갔네. 그래서 수고가 절로 덜리더군. 아마 천지신명도 날 도와주는가보네. 늙은이의 수고를 아껴주더란 말일세. 그러니 난 운이 좋은셈이야. 그렇지 않은가, 영?》

연암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토록 그는 빈궁했고 기아로 고생하였다. 그러나 의기만은 죽지 않았다. 제자는 연암의 속깊은 룡말에 그만 뜨거운 것이 치밀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어지러운 바깥세상과 담을 쌓고 것처럼 가난하게 살아가면서도 문인으로서의 지조와 량심을 곳곳이 지켜가며 오히려 제자를 위안하려고 애쓰는 그 고결한 정신세계에 감복되어 더 말을 못했다.

조선문학 주체100(2011)년 제1호 (루계 제759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중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 체 100(2011)년 1월 1일

발 행 주 체 100(2011)년 1월 5일

ㄱ—06718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1

D P R Korea

ISSN 1727—9437